



2014 어르신 인문학소풍

사람으로 보는 우리 마을

어르신 인문학소풍

사람으로 보는 우리마을

시흥문화원

일러두기

본 사업은 시흥문화원이 주관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이다.

사업명은 어르신 인문학소풍사업 ‘사람으로 보는 우리마을’이며, 본 보고서는 그 결과물로서 시흥문화원에서 발간하였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원 발음을 훼손치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해석이 필요한 경우 괄호로 주를 설명하였다.

편집기술상 중략, 생략이 이루어진 부분은 괄호로 표기하였다.

머 리 말

우리는 바야흐로 문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을 들을 수 있고 TV,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공연과 문화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어찌 보자면 문화 과잉의 시대입니다. 또 시민들이 영유하는 문화가 쉽게 생산되고 쉽게 소비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소비의 시대입니다.

삶이 여유롭지 못했던 예전에는 문화란 배부른 사람들이 영유하는 특권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문화를 접하려면 그만큼 교양과 배경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과도한 소비성문화와 특권성 문화는 모두 문화의 본질이 아닙니다. 문화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정서를 살찌우는 일종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배우는 것이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대중문화를 보는 시각, 어렵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전통을 바라보는 시각을 갈고 닦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인문학이자 인문학적 체험입니다. 문화원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번 인문학 소풍은 이런 문화원의 방향을 제시하는 훌륭한 기회였습니다. 시흥의 진짜배기들, 시흥의 근간을 이루고 살아온 시흥의 토박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시흥의 문화는 어떠한가, 시흥의 삶이란 어떠한가를 후대에 전하는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문화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루어낸 모든 것이며, 자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잔잔하게 전해지는 것만으로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인문학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어르신 인문학 소풍을 위해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 시흥 시민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해주었습니다. 또 사라져가는 자신의 고향을 위해 귀한 자료를 내어주시고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인문학과 지역문화를 위한 밑거름이자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원은 지역문화와 문화를 바라보는 인문학적 소양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시흥문화원의 어르신 인문학소풍, ‘사람으로 보는 우리마을’에 참여해 주신 시흥의 어르신들과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문화원장 정 원 철

목 차

1부. 시흥의 사람들

이형수	군자동의 농촌지도자
김규성	능곡동 자연마을과 변화
이영득	시흥문화원의 시작과 발전
전남훈	옛 시흥지역과 정주의식
양요환	시흥의 복지와 미래비전
이진규	과림동 과림 3통 부라위의 토박이

2부. 시흥의 자연마을

과림동	
- 부라위마을	옛 부천군 소래면 과림 1리
정왕동	
- 봉화마을	옛 시흥군 군자면 정왕 3리
- 평안촌(피양촌)	옛 시흥군 군자면 정왕 4리

부록

DVD	인문학 소풍 강의 영상
	정왕동의 옛 모습
	봉우재마을 대동잔치

어르신 인문학소풍

사람으로 보는 우리 마을

1. 시흥의 사람들

이형수 (전 군자농협 조합장, 전 군자면, 거모·군자동장, 1937년생)

군자동의 농촌지도자



이형수는 1937년 시흥시 군자면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집은 군자동 402번지였고 조상 대대로 살던 집이었다. 이형수는 가끔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을 사람이라고 자조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출생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이형수가 태어났을 때 이형수의 아버지는 진갑(進甲, 환갑의 이듬해)이었다. 당시는 평균 수명이 50, 60도 안될 때인데 아버지가 진갑이었고 어머니는 45세로 17년 차이가 났다. 게다가 두 분이 모두 재혼이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와서 말 못했어요. 재혼한 게 뭐 챙피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그 말이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말을 안하다가 나이가 먹다보니까 아 이게 역산데 이런 것도 젊은 사람들이 알아줘야 그런 시대도 있었구나를 알텐데 나 혼자 비밀스러운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요즘에는 가끔 제가 제 이름이 진갑입니다. 이형수 원이 진갑이에요.”

동네사람들은 진갑에 태어난 이형수를 신기해 하면서도 놀려대곤 했다. 학교가는 길에 만나는 마을 사람들은 이형수를 이름 ‘진갑이’라고 불렀다. 옆 동네 사람들까지 이형수를 보려고 놀러오기도 했다. 놀려대는게

싫어서 마을사람들에게 가까이 안가고 도망다니고 했지만, 어른들이 살살 꼬시면 어린마음에 따라갔다가 또 놀림을 받기도 했다. 심지어는 형수들도 짓궂게 굴며 놀려대기도 했다.

이형수가 기억하는 마을 풍경은 단편적이다. 당시는 일제 강점기여서 주민들의 삶이 매우 곤궁하였다.

“그래서 그때는 먹을거 때문에 전부가 참 어렵게 살고 보통 5세까지는 남자들은 팬티도 못입고 살았어요. 지금 저 남아공 못사는 나라가 가끔 텔레비전 보게 되면 배 쪽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농촌은 그랬었습니다.”

이형수가 기억하는 군자면의 풍경은 염전과 협궤열차이다. 시흥지역은 일제강점기에 염전이 발달하였다. 당시 근방에서 가장 큰 염전이 주안염전이었는데 일본인들이 주안염전에 버금가는 군자염전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군자염전과 주안염전에서 나온 소금을 운반하기 위해 수인선 철도를 깔고 협궤열차를 운행시켰다.

“그래 인제 석탄 때는 열차가 끌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 뒤에다가 객차를 하나를 달고 민간인을 태우고, 그 다음엔 짐차,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위해준거냐? 그게 아니고 주안에서 나는 소금, 군자에서 나는 소금을 수원까지 운반해다가 또 인천서 나오는 쌀을 수원까지 운반해다가 그 쌀을 일본에 가져갔는데 부산까지 가져가서 부산서 배에 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것이 우리 백성들로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자기 나라들이 필요한 소금하고 쌀 가져가기 위해 만든 것이 철뚝니다.”

이형수가 살던 동네는 지금의 군자동이다. 당시에 군자지역에서 가장 큰 산은 군자봉이었고 지역의 이름이 군자면이 된 것도 군자봉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 진 것이었다. 군자면은 교통이 좋지 않았다. 인천, 서울, 안양, 부천과도 25km 이상씩 떨어진 중간에 위치해 마땅한 교통로도 없었

다. 유일하게 존재하던 이동수단이 원곡역, 군자역에서 탈 수 있는 열차였고 나머지는 소에다가 짐을 싣고 인천, 서울, 부천, 수원, 안양 까지 나가 물건을 팔고 했다.

194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초등학교도 시험을 봤다. 시험내용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올 내용이었다.

“시험 보는 데 시험 보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소 뿔이 소귀 밑에 있냐 귀위에 있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둘 셋 쉬어보라하고. 근데 이거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물어 보면은 애들은 그냥 떨어. 그냥 말을 못해. 근데 그걸 해야 학교를 들여보내 주는 거예요.”

이형수도 초등학교를 조금 늦게 들어갔지만 당시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나이제한이 없었다. 때문에 같은 학년이어도 2살에서 3살까지 차이가 많았다. 대부분의 집에서는 아이를 학교에 보낸다는 생각도 없었다. 돈도 많이 들고 딱히 학교를 가야 한다는 의식이 없었는데, 집안 어른이 보내주면 가는 것이고 아니면 못가는 식이었다. 그런식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동네에 있는 한문하는 글방을 다녔다. 그곳에서는 주로 한문을 가르쳤다.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배가 고프면 찹레를 따먹고 송기 벗겨먹고 소나무 줄기를 잘라서 속을 먹고, 논을 갈고 나면 논 옆에 자라는 풀을 씹어 단맛을 느끼고는 했다.

한국전쟁 당시 이형수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당시에는 초등학생도 논에 가서 물을 뿌리고 물대는 일 같은 것을 해주곤 했다.

“물을 뿌다보니까 천둥소리가 나서 ‘야 이제 비가 올레니까.’ 좋아가지고 있었는데 저녁 때 되니까 이 피란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건가하고 봤더니 얼마 있다 인민군들이 들어오고 이럴 정도로 그냥 속도가 빠르게 그냥 남침을 해간 거예요.”

시흥지역은 인천상륙작전 이전까지 인민군에게 점령되어 있었다. 그

기간동안에는 교육이 북한식으로 진행되었다. 주로 북한 노래를 배우고는 했다.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되자 시흥지역은 포격의 대상이 되었다. 이형수의 마을은 군자봉에 살짝 파여 있는 오목한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마을 앞에 인민군의 미사일부대가 위치해있었다. 누군가가 인민군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미군에게 주었고 미사일기지를 목표로 포격이 시작되었다.

“함포사격을 했는데 원래가 인천이나 서울에 함포사격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동네를 함포사격 한 거요. 우리 밭에. 근데 우리 밭 뒤에 한 10미터 뒤에 산소가 있고 묘가 쪽 있었는데 10미터 뒤에 그 묘가 날라 갔고 그 뒤에 묘가 몇 개가 다시 날라 갔고 아침에 보니까 아래서는 불타있고 그런 게 난리가 난거예요.”

당시에는 모든 집이 창호지 문이었는데 포격당시에 창호지 문이 다 뚫리고 방안에 흙이 가득 들어차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이불을 전부 꺼내 뒤집어썼다. 숨은 충알이 쉽게 뚫지 못한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배에서 포탄을 발사하는 ‘쿵’소리가 나면 이불을 뒤집어 썼다가 땅에 떨어져 폭발하는 ‘꽝’소리가 나면 다시 이불을 벗고 숨을 쉬며 견뎠다.

이형수는 19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했다. 보통 신부는 가마를 타고 신랑은 말을 타고 갔어야 하는데 다들 돈이 없으니까 보통 신랑은 걸어서 장가를 가고는 했다. 하지만 이형수는 아버지가 구해준 말을 타고 장가를 들었다. 진갑에 낳은 아들을 위해 15리나 떨어진 농장에 가서 말을 구해다가 이형수를 태우고 좀 잘사는 조카에게 부탁해 카메라를 가져와 사진까지 찍었다.

결혼 후 일 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았다. 이형수는 웬지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아이가 생긴 것을 주변에 잘 말하지 못했다. 이형수는 전부 6남매를 낳았다.

이형수는 몸이 건강한 편은 아니었다. 뼈도 약하고 가늘어서 나이가 먹은 지금 건강이 안좋은 느낌이 있다. 결혼 후에 군대를 다녀와서는 조금 살도 찌고 했는데 그때도 60kg정도였다.

62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는 농사를 지었다. 당시는 농촌에 자원 지도자연합회라는 기관이 있어서 농업지도를 도왔다. 영농구락부라고 해서 청년들이 나와서 과일 재배 등의 일을 하기도 했다. 이형수는 그런 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형수가 먼저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제가 63년도에 산을 개간하고 해서 포도 과수원 하나 만들었는데 그때 포도를 심어도 우마를 마차가 이제 약간 리어카도 없어서 마차로 가야 하기 때문에 마차는 고무 매단 마차를 썼는데 게 쇠바퀴 마칩니다. 그 비포장가면 털컹거리니까 신고 나가면 다 버려요. 그니까 과일을 많이 팔수가 없어. 그리고 도일에 시장이 있었는데 시장이 있어도 곡물은 팔리지만은 채소는 다 농사지으니까 살 사람이 없어. 그니까 시장도 안되는 거요. 근데 그걸 팔아야 아까 제가 스물에 애를 첫애를 낳다고 했죠. 애를 나서 공불 시켜야 할텐데 판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제 그런 채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수인선, 그 중에서 안산역까지 그 과일, 채소 신고 갔다가 차에 실어 보내지면은 집에서 그렇게 팔고, 소득을 가져서 그거가지고 먹고 살고 애들 교육 시킨겁니다.”

이형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용작물을 시도했다. 포도 이외에도 65년에 양송이 재배를 시작했다. 워낙 기초가 없는 일이라 책만 가지고 혼자 시작을 하려고 했다. 정부에서는 농가 30가구를 묶어서 대량 재배를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초기자본이 워낙 없었던 농가들이 30가구를 묶어 양송이 재배를 시작하였다. 이형수는 규모를 크게 했지만 다른 농가들은 양송이 재배 규모가 크지 않았다.

그렇게 시작한 양송이 재배는 1차 재배가 실패로 끝났다.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은 해주었지만 워낙 당시 기술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 것이다. 책과 그림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다음 2차 재배를 하기 전에는 일본에서 교수를 불러서 교육을 받고 시작하였다. 결국 2차 재배는 성공하여 양송이 팔이 하얗게 피어났다. 재배가 성공한 후 양송이를 팔기 위해 서울역으로 가지고 갔다. 당시에 서울역 앞에 양송이 조합이 있었는데 재배에 성공하고 나니까 싹고 간 양송이가 양이 많아 하루에 다 팔리지가 않았다. 양송이가 하루가 지나면 붉게 변해서 모양이 안좋아지니까 팔리지가 않아 수익이 나지 않았다. 정부에서 지원은 받았는데 팔 곳이 없으니 함께 양송이를 재배했던 농가들이 항의를 많이 했다. 결국 인천에 있는 가공공장단지에 양송이 가공공장을 만들어 그곳에서 양송이를 가공해 주기로 하였다. 하지만 양송이 가공도 결국 실패 하고 말았다.

“그러니 이제 살았어요. 됐다고 좋아했는데. 이 양송이가 저녁서부터 아침까지 땀니다. 탄 걸 가지고 싹고 나가면은 인천까지 가면 도착을 하면은 가지 피지 말아야 가공을 하는데 가는 동안에 자라요. 자라면 가지 썩습니다. 그럼 그건 가공이 안 돼. 그건 시판을 해야 돼. 그럼 가공은 가공을 하고 다음에 시판을 하는데 그게 제가 상당히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는 대니는데 집사람이 팔아 불려고하는데 나중에는 중국집에서 나왔는데 한식당가면 이게 뭐냐고 해요. 모르니까. 게서 인제 나중에 팔아야허는데 집사람이 더하게 되면 난 못살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빚만 잔뜩 거머지고 다 팔아서 정리는 허는데 중학교 옆에 군자중학교 옆에 지나가면은 눈에 띄는데 지금 그게 평당 보통 몇 만원 갑니다. 근데 그때 그걸 다 팔아버렸어요. 그게 신용을 지킬라고 탄 사람들은 연체해서 안팔라고 나는 그냥 신용지킬라고 한꺼번에 팔은건데 안 값고 그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하도 인제 집단민원이 생기고 실패를 했으니까 연체 탕감을 해주는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 돈받고 값기만 하고 끝난거야. 그게 이제 바보지 바보. 바보짓을 엄청 했어요.”

이형수는 농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70년대에 들어 독농가(1972년 1월 14일 농협중앙회의 잠정기구로 독농가 연수원을 설립)가 설립되고 3기까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형수는 2기로 독농가교육을 받았다. 독농가교육을 받은 사람은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가 지역 농협의 지사를 하게 되었다.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실시한 사업이었지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자본이 없어 지역의 영농자본을 분배하기 어려워졌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다보니 이형수 개인의 시간을 뺏기는 일이 많았다.

“자꾸 불러대니까 집일도 못하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거야. 이제 과수원도 해야지, 또 인제 농사도 채소해가지구 뭘 해야 돈을 벌어 애들 교육시키지, 힘든 세상 살다보니까 그렇게 사는 건데 나중에는 그러고 나선 새마을 지도자가 생기고 인제 이런 장을 시키고 동네 시키는데 내가 자꾸 돌아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기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나와서는 말안하는 거요. 나가면 일 못하니까. 그니까 애꿎은 나만 인제 뭐 파출소장, 면장 이런 사람들이 나만 기냥 나오라고 끌어잡아 댕기니까 할 수 없이 끌려갔다 일을 하다 책임 갖고 일을 하는거요.”

이형수는 예전부터 농장에 대한 꿈이 있어서 목장을 하기도 했다. 젖소가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다. 목장을 시작하려고 친구의 목장에서 젖소 새끼를 가져다가 기르기 시작했다. 다 큰 소를 사다가 기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었지만 큰 소를 살 돈은 없었기 때문이다.

“사다 길러갖고 새끼 나서 우유를 파는데 군자지역에는 시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보니까 학교는 인제 있고 초등학교 학생 선생님들은 우유를 알아. 그니까 사먹어. 근데 나머진 몰라. 한 마리를 낳아서 우유를 짰는데 집에서 먹을 수도 없고 코카콜라 병에 내다 파는데 학교에서 그냥 막 사주니까 갖다 팔고, 게 인제 우리 집안 조카가 그걸 실어 팔아주고 그래가지고 인제 그런 사업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사업이 좀 커지다보니까 게 탄 사람 자금 빌려가지고 좀 늘렸어요. 게 인제 한참 되는데 이게 점점 우유 낙농 사업이 나빠지더라고. 게 거의 팔고 말고. 그니까 시골에서 힘

들여 해가면서 남이 안한거 먼저 먼저 시작하고 먼저 관두고.....”

이형수는 그 밖에도 과수원을 만들고, 기계를 도입한다고 경운기를 이용해서 탈곡기를 돌리기도 했다. 탈곡기를 발동기에 걸어 보리를 탈곡하면 며칠 지나지 않아 사람 쓰는 인건비는 건질 수 있었다.

“경운기도 인제 제일 먼저 그때는 경운기를 대동공업에서 경운기를 교육받은 사람만 주게 되어있어서 교육을 받고 갔다왔는데 경운기타고 막 나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땐 경운기 없을 때야. 딸딸 몰고 댕기니까 그때는 딸딸이라고 했어요. 그니까 나와서 가고 우리 동네서 시장갈라면 한 4키로 가야했는데 이걸 태워달라고 그래서 태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걸 타고 탈곡도 하고 데려갖고 나가고 하는데 논도 갈고 밭도 갈고 했는데 한 번은 동네사람들을 자리해갖고 태워갖고 오다가 다리를 딱 돌아갔는데 클러치 잘 못 하면 나가 떨어집니다. 탁 잡았는데 나가 떨어졌는데 개울에 팍 떨어졌는데 아차하는 순간에 보니까 사람들이 물에 빠져 팍 퍼올르고 앉아있고 나는 보니까 다섯 사람이었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지나가는 차가 마침 데리고 인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내 다리서 피가 나고 있어. 근데 난 아픈 줄도 모르고 사람 죽으면 안되니까 살릴라고. 그래가지고 인제 동네 잔치가 열렸었는데 좋은 집 갔다 온 사람이 옷을 다버렸는데 이 사람이 내가 미안해서 어떡하냐 했더니 자기가 태워 달라했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나를 위로해주고 게 병원치료비도 내가 다 해줄라했더니 다친 사람이 동네 이장인데 이걸 내가 해결할 건데 너 책임 없다고 지가 병원비 다 내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책임지지말라고 그랬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다보니 농업과 관련된 직책을 맡게되었다. 79년에 농협 조합장이 찾아와 다음 조합장으로 나오라고 중용을 했다. 이형수는 자기는 중학교밖에 안나와서 안된다고 고사했지만 조합장이 끈질기게 권유를 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당시 농협조합장은 운영위원들이 선출을 했는데 운영위원 25명중 23명의 찬성으로 이미 이형수를 조합장으로 선

출을 해놓은 상태였다.

“농협 직원들은 전부가 고등학교, 대학 출신 딱 나온 사람들이고 난 중학교 못나왔는데 배운 것도 없고 글방에서 천자 떴거 밖에 없어. 그니까 실력이 모자라. 안돼. 게서 안된다 했더니 니가 실제 업무 할게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직원들이 다 하는 걸 감독만 잘하면 된다고 그래서 조합장을 다해봤어요.”

이형수가 조합장을 하는 동안 군자 농협의 복숭아 작목반이 전국에서 1등을 하였다. 당시 복숭아를 영등포의 농산물 공판장에 출하를 하는데 군자복숭아는 곱팡이 하나 핀 것 없이 아주 달았다. 그렇게 1등을 하고 군자면 복숭아가 전국적으로 제일 좋다고 소문이 나서 소득이 괜찮았다. 80년대 이후에는 1년에 한번씩 조합원들을 오이도에 데려다가 모아놓고 잔치도 벌였다. 당시에 영농부장을 하던 안병안은 지금 군자농협조합장이 되어 있다.

“열심히 하다가 삼월에 있다가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이 됐는데 군자농협이 작년에 전국에서 26번째 1조원(상호금융 예수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자농협이 시흥시, 안산시에서 제일 지금 조합원 수가 많은 그런 조합이 됐어요. 게 이렇게 참 농협도 잘되고 이런거 굉장히 고맙고 또 제가 같이 있던 직원들은 다 지점장으로 나가있고 게 참 굉장히 뿌듯하고 그러고 합니다.”

이형수는 3년의 임기를 마치고도 주변의 권유로 6대 조합장을 연임하였다. 본래 3년만 하고 그만 두려던 이형수는 후임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신통치 않아 보이고 자격이 안돼 보이자 연임을 승낙하고 83년 까지 군자농협조합장을 역임하였다.

당시 군자면장이 이형수의 학교 선배였다. 이형수는 면장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현재의 안산고대병원 앞까지 가서 지하수를 끌어다가 군자동 정왕동까지 연결해 군자면 농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노력도 많이 들고 당시에는 미친짓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정왕동에서 자기 논에 물을 대는 농민들을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다. 당시에는 그

렇게 단체장들과 농촌지도자들 간의 협조가 잘됐다.

83년이 되자 시흥군에서 내무과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이형수를 면장에 추천하였다. 이형수는 당시 목장과 과수원을 운영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고사하려고 했다. 앞서 이야기 했듯 당시 면장이 학교 선배이기도 했고 함께 많은 일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밀어내고 면장이 된다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다.

“난 처음엔 그냥 온다고 해서 대출 얘기하는 줄 알고. 안산시가 들어와서 보상 나올 때가 돼서 거기서 대출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중략) 이 내무과장 양반이 그러면 그 사람은 관뉘야 되는데 내가 그럴 수 없다니까 손에 장을 지져.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야. 그래 내가 바본 줄 아느냐.(중략) 면장이 끝나면 끝나는거예요. 갈 데가 없어. 그랬더니 내가 인제 가라고 얘길 했는데 그 면장이 나에게 전화가 오더니 저걸 들었나봐 축하합니다. 무슨 얘길 들었냐니까 들었대. 걱정하지 말라고 나 절대 안간다고 그랬더니 딱 전화를 끊어 버리는거야.”

이형수는 다음날 아침이 되자 군청에 들어갔다. 당시 지역에 농협 조합장이 8명이 있었는데 이형수가 가장 나이가 어렸다. 때문에 군에 들어가서 회의 할 일이 있으면 보통은 막내인 이형수가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는 했다. 평소에도 군수와 잘 알고 농담도 하고 술도 같이 먹던 사이라 ‘이 영감이 왜 날 속을 썩이나.’ 하고 면장 임명에 대해 물어보려 군수를 찾아 들어가던 찰나에 당시의 군자면장과 마주쳤다.

“저 선임 면장이 날보더니 나보고 축하한다고 악수를 하는데 웃어.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웃나 그랬더니 들어 가보라고.”

이형수가 군수를 만나서 들은 속사정은 이랬다. 당시 안산과 소래지역을 포함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는데 소래읍장이 그만두게 되어 새로 소래읍장을 임명해야 됐다. 소래 지역에서 세 사람이 경합중이었는데 워낙 치열하다보니 누구 하나가 임명이 되어도 나머지 두사람과 불화가 생기는 상황이 된 것이다. 때문에 시흥군에서 부읍장을 임명하고 부읍장은 소래

지역과 상관없는 외부에서 가면 분쟁이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해 군자면장을 소래읍으로 발령낸 것이다. 군자는 면이고 소래는 읍이니 군자면장 입장에서 영전하는 것이 되어 이형수를 축하하며 웃어 줄 수 있었다. 군수는 그 자리에서 이형수에게 면장 임명장을 주고 16시간만에 조합장을 면장으로 만들었다.

군자면의 변화

군자동은 79년 부터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반월공단 조성에 대한 계획이 서고 군자면 옆에 반월 출장소가 생겼다. 그곳이 시화공단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군자면이 반으로 갈리어 안산과 시흥으로 나누어졌다. 본래 시흥은 서울의 영등포, 동작, 서초, 구로, 관악, 금천 등의 6개구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 면서기를 하던 어르신은 군자면에서 영등포로 출퇴근을 했다. 그어르신의 나이가 현재 96세이다.

안산은 반월공단의 개발로 점점 규모가 커졌고 86년도에는 시로 승격하였다. 반월공단에 기업 천개를 유치하고 인구 30만의 도시로 만드는 것이 안산의 계획이었다. 당시에 시화공단에는 이미 천이백개의 공장이 들어설 계획이 있었는데 공장은 시흥에 있는데 배후도시는 안산에 있는 격이었다.

“내가 지역 책임 맡고 있는 사람이 이걸 보니까 이걸 말도 안되는 소릴 하고 있는거야. 게서 인제 그때부터 단체장 다 불르고 회의 소집해서 이걸 문제가 왔으니까 이걸 우리가 할 일이다. 군에서는 이거 손 못 대는게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공고는 손 못대요. 그니까 좌우간에 체계가 그냥 가만히 있는거야. 군수고 뭐고 간에. 그니깐 면에 책임은 나밖에 없는데 내가 일반 행정 그 시험 본 사람들 같으면 나도 이거 안 했을 거야. 나는 그거 나는 면장을 관두면 끝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겁이 하나도 날게 없어요. 우리 시 주민들이 우리 면민들이 이거 지금 반 자른 것도 서러운데 이걸 또 해면서 요기다 이걸 맨들어준다 하면 찬성하지만 이

결 안산 간다. 이걸 난 반대라는거. 그랬더니 내게 설명 다 듣고 나니 그 새마을 이장, 이장이 모두가 다 면장 말씀하시니까 유치해갑시다. 그래서 서명을 받아서 4천 5백명의 서명을 받아서 5개 부처에 내고 지사님한테 내고 그랬더니 지사님에 면담요청을 했어.”

그렇게 도지사에게 면담요청을 했지만 처음에는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도지사가 시간을 내어 결국 면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안산시가 되면서 반월공단이 생기면서 (중략) 거기 30만 도시 이렇게 하는데 군에는 1200개 공장이다. 이게 배후 도시가 안산인데 군자사람들이 찬성할 수가 없다. 설명을 다 드렸더니 지사님 젊은 지산데 이 양반이 발끈하더니 이거 면장 말이 맞아. 뭐가 잘못된 거 아냐? 이게 저 중앙의 선택이기 땀에 지역 사람들이 거기 우리 말이 맞고 우리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도지사는 이형수의 의견을 듣고 개발담당관을 불러 개발계획을 유보 시켰다. 이형수는 군자에 인구 40만의 신도시를 구상하고 의견을 냈다. 인구가 40만이 되고 시화공단을 가지면 몇 년 후 군자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시 시흥 군자, 정왕 일대는 그린벨트가 너무 많아서 적당한 토지를 구할 수가 없었다.

88년 올림픽이 열리고 시흥군의 시승격이 결정되자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시 한번 혼란이 생기게 되었다. 당시 시흥군의 읍지 3군데 중 소래가 가장 인구도 많고 소득도 좋았다. 이형수는 소래읍이 시로 승격되고 군자는 따로 다루어지기를 원했다. 당시 군자면 주민들은 시흥시 승격을 기회로 안산으로 편입되고자 했다. 면장인 이형수의 입장에서는 군자면이 안산으로 편입되려면 군자면 통째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의 군수도 군자면은 재정이 열악해 안산으로 편입 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었다. 그런데 막상 1989년에 시흥군이 시흥시로 승격이 되면서 군자와 소래가 묶여 시가 되고 군자면 주민들은 안산으로의 편입을 주장하며 연일 데모를 하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안산이 개발이 잘 되다보니 군자도 안산으로 편입되면 개발의 이익을 볼 것이라고 여겨졌다.

“군자면이 법정이 14개 법정동이고 36개 행정리가 있었는데 7개가 안산에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남은거야. 게 원래는 면이 읍이 되고 읍이 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참 좋은 건데 반을 딱 갈라 노니까 이게 지들끼리 반을 가르다보니까 시흥에 갈등이 생긴거야. 그니까 도일 가게 되면 시장이 있는데 옛날에 면 상태에서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전답이 동네를 가르다보니까 갈라지잖아요. 한 평은 안산시, 여러 평은 시흥시 이런 집이 13집이 있어. 지금도 그걸 해결을 못해요.”

이형수가 면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걸림돌이 많았다. 갈라진 동네를 한동네로 합병하려면 주민투표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자녀 교육이 문제가 되었다. 당시 군자 근처에는 중학교가 하나밖에 없었고 안산은 중학교가 많으니 자식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교육 환경이 좋은 안산으로 학교를 보내기 위해 통합 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곳이 현재 거모동과 안산의 경계를 이루는 곳이다. 결국 시흥의 화정동 일부, 거모동 일부, 수암면 일부가 안산시에 편입이 되었지만 군자면은 시흥군에 남아 있게 되었다. 시흥군은 수도권 과밀화의 직격탄을 맞고 뿔뿔이 흩어져 현재의 시흥시의 경계로 확정된 것이다.

행정구역은 일단락이 되었지만 또다른 문제가 있었다. 시흥시의 권역이 워낙 넓다보니 옛 시흥군청이 안양에 위치해 있었다. 안양읍이 시로 독립되고 나자 시흥군청을 옮겨야 했다. 시흥군도 시로 승격했으니 새로운 시청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우선 급하게 소래읍으로 시청을 두기로 했는데 군자권에서는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었다. 소래는 시흥시의 북쪽 끝이었다.

당시 이철규 시장은 관전시장으로 부임했는데, 시화 신도시계획을 세우면서 군자염전을 도시계획에 포함시켰다. 시화와 공장들을 군자 염전에 유치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군자 면장인 이형수와 협의를 자주 하게 되었다. 이형수는 군자염전개발계획을 찬성하는 대신 시청의 위치를 시흥시의 중앙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시장도 이를 받아 들였다. 시

청사 부지를 선정할 때도 부침이 많았다. 청사 주위로 신도시가 건설될 테니 지역주민들이 시청사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다. 신도시 건설로 자기들 고향이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새재 장현동. 그래도 여기가 주민들 작게 살고 이런 데 별 수 없이 앞에 시청 짓게 되니까 그니까 여기선 별 문제가 없었고 그걸로 시청 지은 겁니다. 그래서 시청이 중앙으로 왔어요. 근데 속에서는 사실 그 사람들(소래주민)이 소래에 있을 때는 (시청이 가까우니까) 참 좋잖아요. 근데 일로 오다보니까 반발을 하지. 근데 이 처음에는 반발 사고 굉장히 안 좋았어.”

이형수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시흥의 난개발 문제이다. 신도시 건설은 백년사업이라고 할 만 한데 시장들이 연이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하고, 주민들 간에 화합이 되지 않아 서로 반대를 하느라 발전이 더더 보인다. 시흥의 농협조합원들은 아직도 안산지역 조합원들이 군자 농협에 조합원으로 속해 있는 상황이고, 소래 농협, 북시흥 농협이 따로 있어서 서로 견제를 하느라 어느 쪽에도 이렇다 할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도 이형수는 결국은 시흥이 안산보다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안산은 더 이상 개발 될 땅이 별로 없지만 시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본다. 현재는 안산이 문화재정비도 잘 되어 있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더 잘되어 있다. 시흥이 선진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과제라고 여기고 있다.

이형수(진갑) 연보

- 1937. 9. 7.(음력 8. 3)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군자리 402번지 출생.
부 이종호(62세), 모 조말문(45세)
- 1945 군자공립초등학교 입학(일본어 수학) 창씨개명 국본형수(國本迺洙, 구니모도 가이수)
- 1945. 8. 15 해방. 한글배우기 시작. 이형수 이름 되찾음
- 1950. 6. 25전쟁 발발. 북한치하에서 이북노래 배움(담임교사 교장승진)
- 1951 군자공립초등학교 25회 졸업
군자고등공민학교 입학(장현동, 현 시흥시청 뒤 초가)
- 1953 군자고등공민학교 1회 졸업(7명)
장현동에서 거모동 현 군자중학교로 이전
- 1954 군자고등공민학교 2회 졸업(남 23명, 여 9명)
군자공립중학교로 승격(시흥시 최초 중학교 설립 인가 / 故 최
공렬 선생이 설립한 군자고등공민학교를 정부에 회사하여 인가
받음)
부친의 권유로 서울 양화점 입사
- 1955 음력 10. 24 중매로 김홍자와 19세에 결혼(전통혼례/조랑말, 가
마이용)
- 1956. 11. 5 장녀 이미숙 출생
5. 11 부친 이종호 별세
- 1958 9. 25 둘째딸 이재남 출생
- 1959. 8. 10 군입대(육군논산훈련소)
10 마산공의학교 입소 / 12 춘천 제2보충대 입소, 양구 제2사
단 17연대 8106부대 배치
- 1961. 7. 26 셋째딸 이미희 출생

- 1962. 4. 6 육군 하사로 제대
생활고로 농촌잘살기 운동 시작 자원지도자연합회 가입, 채소, 원예 작물 수인 협케 열차로 인천 판로 개척
- 1963 산을 계단식 포도밭 조성(군자동 137, 당시 군자면에서 제일 큼)
음력 9. 21 장남 이상환 출생
- 1965 자립안정농가 군자 1,2리 30농가 조직(양송이 재배, 정부 용자) 회장 김기현, 총무 이형수 1차 재배 실패
- 1966 2차 양송이 재배에 성공 판로를 찾지 못함(서울양송이조합이사)
1. 1 차남 이상업 출생
양송이 가공시설 설치 가공 시작(인천수인역 앞 김치공장) 전날 수확한 양송이를 새벽 첫 열차로 인천에 보내니 값이 폭락하여 가공불가 사업포기 책임짐(논 2,545.455(m², 770평) 정리)
- 1967 발동기 구입, 기계화 탈곡 시작(5마력), 4H 김종채관리
- 1968 시흥군 농촌지도소 자원지도자 연합회 감사 / 군자면 정착지도사 임명
- 1969 4. 13 4녀 이영미 출생
- 1970 육우 1두로 낙농시작(의왕읍 윤여창 분양)
예비군창설. 초대 군자리예비군소대장(1, 2리) / 자택에서 총기와 실탄 보관, 밤에는 초소 근무
새마을사업시작. 초대 새마을지도자(5무 풍토 조성 운동 전개, 농로개설, 지붕개량 등)
- 1971 진주 대동공업 경운기 교육 후 최초 군자면 경운기 구입
4.3 국방부장관표창(정래혁 장관)
- 1972 농협대학 독농가반 2기 수료(전국 1개군 1명 참여) 이후 3기까지 하고 연수원 개원(김준 새마을연수원장)
시흥군 농협영농자금융자협의회위원 임명
- 1975 군자농협 이사

민주공화당관리장 임명(반월공단개발 전 14개 법정동, 36개 행정동)

- 1978. 1. 9 모친 86세로 별세
- 1979 2. 9 군자농협 5대 조합장 취임
주례시작(2000년까지 230쌍 주례)
- 1980 군자농협자립조합으로 승격(전국 복숭아 작목반 1위)
군자중학교육성회장 위촉
- 1981 군자중고육성회장 위촉
3. 2 시흥군 정책자문위원 위촉(8개 조합장 대표)
시흥군 농정협의회 위원 위촉
법무부 갯생보호위원 위촉

- 1982 2. 9 군자농협 제6대 조합장 취임
- 1983 7. 2 시흥군 군정자문위원 위촉
11. 12 제12대 군자면장 취임(별정 5급 공무원)

·1985 2. 27 경기도지사 표창(이해구 도지사)

·1986 시화공단개발 시작(1200개 공장 유치 계획) / 시화공단 배후도시로 안산고잔신도시를 지정하자 군자면장직을 걸고 시화공단배후도시를 시화공단개발지역인 군자면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산업지구개발공사에 통보

면 개발위원회와 이장단 새마을남녀 각 단체를 동원, 설명을 갖고 민의 동의를 얻어 탄원서 및 서명운동 시작(1개월만에 4,500명 받아 5개 부처에 제출)

경기도지사 면담 요청 주민대표 25명과 경기도청 방문 임사빈 도지사 면담 후 안산신도시지정 유보 지시

건설부에서 청원회신(시화지구토취지역은 그린벨트로 도시개발 불가 통보) 후일 시화지구개발배후도시는 안산신도시를 유보하고 시화지구 준공업지역으로 지정 현 시화신도시 탄생

시화공단개발 집단민원 염부사업주민 이주해결

시화지구개발 도출장소를 함께 건의하여 공공용지로 현 여성회관, 세무서, 보건소, 정왕복지회관이 들어섬

- 1987 부인 김홍자 심장박동기 1차 실패 후 성공
군자면청사 건축(1층 사무실, 2층 복지회관)
- 1989 시흥시 승격(소래읍, 군자면, 수암면) / 초대 거모동장 취임
4. 27 고 최궁렬 선생(시흥의 인물) 공로비제막 추진위원장
- 1990 최궁렬장학회설립 초대 장학회장(매년 3명 장학금 지급)
2. 13 신관동장(현 신현동) 취임
안산선부교회 장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신대학 입학
안산선부교회 건축위원장
- 1991 8. 20 입당예배 감사패 수령(박창덕 목사) / 장로 안수
- 1992 2. 25 방송통신대학 졸업
- 1994. 1. 30 내무부장관 표창(향토봉사대상/최형우 장관)
12. 14 KBS ‘행복이 가득한집’ 출연(진갑이네)
- 1995 KBS ‘아침마당’, ‘광복 50주년 기념 50대 부부’로 출연
MBC ‘노래천국’ 온가족 출연 1승하여 제주도 여행
12. 30 군자동장으로 정년 퇴임
- 1997 거모동 창일교회 건축 건축위원장
- 2000. 4. 1 입당예배 감사패 수령(이오중 목사)
- 2004. 12. 30 장로 은퇴(68세)
- 2011 시흥의 인물 최궁렬선생선양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시흥문화원
- 2014 시흥100년기념사업조직위원회 역사찾기분과 위원 위촉/시흥시

김규성 (시흥시 효도회장, 1941년생)

능곡동 자연마을과 변화



능곡동의 자연마을들

시흥에 능곡동에는 세 마을입니다. 마을이 세 개가 있어요. 능곡동이라는 것이 마을이 삼거리 마을이 있고, 그담에 목실마을이 있고 능골마을이 있습니다. 능골과 목실, 그담에 삼거리, 근데 제일 오래된 마을이 목실마을이에요 그리고 능골 그리고 삼거리 마을은 나중에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났을 때에는 아주 오지 중에 오지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군자와 시흥, 군자와 여기 수암, 이 면으로 따지는 수암면, 그 면 중에 산속에 있는 마을이 능곡마을이니까, 능곡동에 여러 적게 사는 것도 아니고 불과 80호 정도 7~80호 정도에 주민이 모여서 주로 농업을 위주로 해서 살았습니다. 이쪽이 강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건조하고 물이 적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면, 물이 가물면, 흉년이 들어가지고 전부 논을 못 치게 됐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가난한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사는 그래서 배우는 것도 여기 학교도 없었어요. 학교도 근처에 30리 밖에 안산에 하나 있었고 군자에 하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오지 중에 오지에 살았다.

김규성의 삶과 재건학교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아버님 밑에서 살때 데, 중학교, 초등학교는 화정초등학교 화정동이라고 아실 꺼예요. 화정초등학교. 지금은 학교를 옮겼습니다. 안산으로. 그리고 중학교는 군자중학교, 초창기에 군자중학교가 생겼을 때에 그쪽으로 다니게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에다가 납입금을 내는 것이 있어요. 매월 근데 우리집에는 농사 짓기 때문에 그걸 주질 않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부모님한테 받을 돈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2학년까지 안줬어요. 2학년까지 중학교에 다니다가 학교에서 선생이 공납금 밀린자 나와 해가지고, 교무실로 가서 너 언제까지 다낼 수 있어. 너 언제 너 언제, 그래서 언제 줄지 몰라요. 나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너 똥어 해가지고 선생님이 여기 교무실이고, 학생들이 쪽 무릎 꿇고 앉은 거야. 시멘바닥에. 그렇게 몇 번하고 나서는 공부할 마음이 안났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게 됐어요 학교 간다고 가방 들고 가다가 이쪽으로 군자동 가는 길이였거든요, 산고개에서, 그 고개에서 책가방매고 실컷 놀다가 집에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들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럼 집에서 농사나 지어.

그래가지고 중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고 2학년 때서부터 아는 애끼리 동네애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한 것이 뭐냐면은 그래도 우리끼리라도 해보자. 그 당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은. 아주 초창기서부터 제가 어릴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과 청소년애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초등학부라고 있었습니다. 지도공동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조직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우리 대에는 우리 동네 봉사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동네길 깨끗이 씻고 풀있으면 베고 퇴비도 하고 또 도서관도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팔면은, 옛날에는 나무가 이런 나무가 아니고 풀을 베는 거야 큰 산을 얻어가지고 풀을 베서 받은 주인주고 받은 우리 꺼야. 그걸 묶어가지고 팔아서

한동에 지금으로 말하면 5000원밖에 안될 정도로 그렇게 그걸 팔아가지고 책을 샀어요. 책을 사가지고 우리끼리 돌려보기도 하고 우리집 사랑방에다가 도서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지원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생활하다가 20살이 됐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20살 될 때까지 머리를 길었습니다. 머리를 기르고 집안에 일하고, 애들끼리 모여서 뭐든 하고, 20살때 중학교에 어느 목사님에 의해서 너 공부를 마쳐야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머리를 깎고, 중학교 3학년에 부임을 했어요. 3학년에 넷째 동생들하고 같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중학교를 간신히 마치고, 고등학교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신문에 보니까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한다. 라고 하는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 일거리를 주고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그래서 그 양계장이 있고 돼지 키우고, 이렇게 키우는데 거기 들어가서 간신히 고등학교 나오고 집에 들어왔어요. 또 농사지었습니다. 여기 농사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농사지면서 이제 27살 때 대학시험을 집에서 준비했습니다. 머 졸업하고 훨씬 지난 그 학생이 그 당시 입시를 하니까 사람들이 학부형인줄 아는 거야. 거기서 이제 공부를 대학가서 대학 들어갔을 때도 등록금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친척집마다 뭐 떡을 해서 품앗이 하는 게 있습니다. 품앗이. 품앗이를 미리 받았어요. 세 말, 네 말 반말정도가 품앗이가 많이 있었어요. 결혼하면 품앗이를 받는 걸로 해가지고 떡값이다 해가지고 그걸 미리 받고 해서 간신히 등록금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있을 때가 없어요. 교수님을 찾아가서 나 이렇게 공부하러 왔습니다. 나이 먹어서 왔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대학에 농장에 거기서 있으라고, 거기서 자취를 하면서 생활했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졸업하고 나서 어디에 갔느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나처럼 공부하기 어렵고 공부하려는 애들에게 무엇인가 주자. 무엇인가 빛을 갚아야 한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시작한 것이 재활학교입니다. 그것이 66년 돈데. 혁명이 일어나고 몇 년 후에요. 거기서 이제 재활학교 제도가 있었

어요.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농촌 청소년들의 비진학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중학교과정을 공부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어요.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그래서 마침 잘됐다. 군청에 찾아가서 우리지역에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그것도 교육할 돈이 없자나요. 교회에서 야밤에 예배 보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일주일에 세 번씩, 야간모임을 했어요. 그 야간이 13명이 졸업했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마룻바닥이에요. 마룻바닥. 책상도 없습니다. 지금은 의자도 있는데, 의자가 없었어요. 쪽 앉아서,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하는데 혼자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 청년회 청년들 중에서 4명이 우리 함께 해보자해서, 청년들이 과목을 맡아가지고 했습니다. 불과 뭐 고등학교를 못 나오신 분들이 청년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애들 가르치고, 일 년, 이 년, 이렇게 지나면서 16년을 재건학교를 운영했습니다. 16년.

내 청춘이 바로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다 바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술한 역경을 말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너무 좁으니까 애들이 모이어나요, 그러니까 교회 옆에다가 또 흙벽돌을 찍어서 지었습니다. 교사하나를. 한 20평정도 요만하게 지은 거예요. 그게 폭삭 내려앉은 거야. 그냥 무너져가지고, 잘못 지어져 가지고 무너졌습니다. 몇 년 만에. 그리고 다시 시작한 것이 바로 우리 밭이 있는데 보리밭이 있었는데, 보리가 싹이 난 것을 아버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보리를 베고 그 자리에다가 보로쿠(시멘트 벽돌)를 정식으로 지었어요. 정식으로 이제 교실 하나 짓고 고담에 또 하나 짓고, 4칸을 지어서 정규 교실로 4칸을 지었습니다. 그걸 짓기 위해서 맨주먹이잖아요. 아무 것도 없으니까 국회의원 찾아가고, 군수 찾아가고, 면, 모든 인원들 다 찾아가서 협조를 구한 거죠.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 가르친다고 하면 전부다 호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우리 동창들 중에서, 이제 제일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 야당 국회의원 비서실장이 있는데 유진오박사 비서실장을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얘기했더니 한일시멘트를 한 트럭을 주는 거야. 또 미군부대에 거기서 부대 포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학

교를 일 년, 이 년 지었어요.

내가 1966년부터 시작을 해서 1980년까지 제 교육을 맡은 운영했던 16년 동안에 그 기간동안에 술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이 지역에 천여명의 졸업생이 나왔다는 거. 이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도저히 어디 뭐 진로가 안 되는 아이들에게 그래도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를 가는 사람도 있고, 대학교를 가는 사람도 있고, 목회자도 여러 명 나오고, 시의원이 몇 명 나왔어요 우리 시에도. 지금도 어디가면 선생님, 선생님 이립니다. 우리 동네 동장이 내 제자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든든하고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나면, 자랑이 아니예요. 이 지역에서 자라서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늙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한 내 나름의 뜻이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 하겠습니다.

능골마을 이야기

능골 얘기부터하지요. 능골은 능골 마을이라고 중앙 공원이라고 그 중앙 공원가운데에 있고 류자신 묘가 있는 그 골짜기를 능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능골이라고 이름 붙였나 하면, 문헌에 보니까, 조선 5대에 문종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문종의 왕비가 단종의 어머니죠. 단종의 어머니, 문종의 왕비가 돌아갔는데 그 현덕왕후의 릉을 지정했었어요 거기다가. 능을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다 능을 쓰자. 라고 지정을 한 그 지역에다가 이제 쓸려고하는데, 더 좋은 땅이 또 나왔습니다. 현덕왕후의 그 능자리보다도 더 좋은 데가 나왔다. 여기 좀 좁다 그래가지고 군자가 가면은 능내동이라고 있습니다. 능내동. 옛날에 능내리라고 했는데, 그 능내리에 능을. 그쪽으로 된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청년 때 거기 직접 가봤습니다. 능내동에 판자집사는 능내동에서도 거기서 오래 어찌지를 못하고 단종의 어머니가 그 세조에 의해서 파해쳐가지고 그 관을 바다에다가 띄웠답니다. 어느 한 노인을 한분 인터뷰를 통해서 들은 건데, 그 마을까

지 물이 들어왔는데 관을 파헤쳐서 띄어버렸대요. 그리고 그 능자리에서 나온 주변에 있는 그 석물있죠 석물. 그 석물을 다 옮겨버렸답니다. 아마 지금도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능의 자리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이 떠서 내려갈 줄 알았는데 떠내려가지 않고 머물러져 있던 자리가 있어요. 그 머물렀던 자리가 관우물이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큰 삼나무가 있는데 삼나무 아래 물이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관이 머물렀던 자리, 거기 사람이 하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렀던 관을 김시습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방랑을 하다가 어떻게 그까지 와가지고 그 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을 끌어다가 임시로 이제 묻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능을 옮겼잖아요. 그때까지 보관을 했으나 봐요. 그 내력을 구두고, 문헌은 없어요. 구두로 들은 기억이 새롭습니다.

능골은 현덕왕후의 무덤을 만들려고 했던 그 자리에요. 여기서 능골이라는 말이, 능자리로 잡았던 마을이다. 라고 내려왔던 그 말이 지금까지 능골, 능골이라고 그 말들을 붙였다는 거죠. 그 마을에는 보면, 나중에 요샌 그 이제 그 누구니까 광해군의 장인이죠. 광해군의 장인인 류자신 선생의 묘를 그 자리에다가 쓰게 된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누가 허락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류자신의 아버지도 그 자리를 썼으니까 그 전에 그 땅이 류씨 문중의 땅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1612년에 돌아가시니까 한 400년 됐잖아요. 400년 전에 류자신 묘가 지어졌다.

그리고 그 아래에 영모재라고 하는 재실이 있습니다. 그 재실도 참 오래전에 그것도 400년 됐다고 하는데(영모재는 1885년 건립되었다.) 그 재실이 우리 6.25때에는 어르신들은 다 무너졌었어요. 그냥 가운데는 다 벌어져가지고 서까래를 깨다가 불싸지르고 피난민들이 거기서 굉장히 여러 가구가 살았어요. 오랫동안. 대가구가 살았나 봐요. 그래서 거의 다 무너졌나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될 때에 그 영모재는 헐어버릴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복원이 됐죠. 저 모형이라든지 저 형식은 아마 우리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건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에 그 아래 보면은 신도비가 있습니다. 신도비가 나 어렸을 때는 옮겼어요. 이 위에 있었어요. 산소아래 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 다닐 때에, 어른들이 수백명이 모여가지고 바다에다가 둥그런 나무를 깔고 그 큰 비석을 옮기는 거예요. 거기다 놓고 굴리는 거야 조금씩. 아마 수백명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구경도하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70미터나 80미터 정도 옮긴거예요. 지금 자립니다. 그 자리가 그리고. 그 신도비 바로 맞은편, 지금 주택자리죠. 그 주택자리가 바로 100여평이 넘는 연못이 있었어요. 연못. 나 어렸을 때 연못이 상당히 커가지고, 물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 주변에 노송이 이런 노송들이 짝 있고 백로들이 막날라 들어가지고, 그 모양이 말야, 산수가 있고, 영모재가 있고, 비석이 있고, 연못이 있고,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주 뻥이 있는 자연입니다. 개발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선 그 어디갔다 오니까 하루아침에 아주 싸그리 비워놨어. LH공사에서 말야 가까운 곳을 다 막아버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답에 류씨 문중과 군자동과 얽힌 전설의 고향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단편을 보면 나오는거거든요 kbs전설의 고향에 나왔던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큰 집이 있어요. 류씨들의 집이 있었는데 기와집은 아니에요. 초가집이었는데 엄청나게 큰 부자집이 있었습니다. 전설에 보면은 아주 포악한 류씨문중의 몰락이 거기 나오는 거야. 이런 그 종을 때려 죽여가지고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나중에 몰락하는 거야. 류씨들은 아주 싫어. 그걸 지역에서는 스토리텔링 한 아주 좋은 장소죠. 그리고 거기서 자주 보이는 곳이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군자봉이거든요. 군자봉을 보면 세자세치를 깎아낸 자리다 그러거든요. 세자세치를 깎아낸 자리다. 아주 인위적으로 깎은 것처럼 편평하고, 그 아래는 돌덩어리가 쌓여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딱 깎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가면. 그 인위적으로 깎았다 이런 거예요. 류씨문중에 의해서 깎은 거예요. 깎으면 자손이 번창 한다. 가문이 번창 한다 소리를 듣고 잘못 깎은 거죠.

그답에 거기 신도비 있는데 신도비의 발목을 보면은 한쪽이 부러져있어요. 그것이 이제 중이 그거 파면 피가 났다고 하는데 때려부시는데 피가 흘렀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도 돌 안쪽을 보면 갈라져있는 자리가 있어요. 이런 전설이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전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목살마을 이야기

그답에 그 목살마을에 관한 얘깁니다. 나무 목자니까 그 나무에 열매 실자예요. 과일이 많은 마을이다. 라고 이렇게 옛날서부터 얘기해가지고 과일나무를 심으면 과일이 잘 열리고 많이 열리고 맛이 좋고 하는 그런 곳이죠. 그렇게 옛날서부터 전해져오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줄기가 말이야. 지형의 줄기가 쪽 나와서 된 것이 나무목자, 형상을 닮은 지형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목살. 저는 목살에 이사를 해서 지금 목살에서 살거든요. 목살에서 집을 주택단지입니다. 거기가 주택단지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있고 그 터에서 삽니다. 가운데쯤. 언제 우리집에 오시면 구경오세요. 우리집에 정원이 있는데 정원이 있는 집은 우리집 밖에 없어요. 양쪽 단지 중에. 집터와 이제 집터 두개를 가지고 하나는 집을 짓지 않고 정원을 만들어서 내 나름대로 나무심고 뭐 심고 지금까지도 가꾸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와서들, 정자도 하나 조그맣게 하나 있고 조그만 연못도 하나 있고 아주 꿈을 키우는 것 같은 그러한 내 마음에 아주 아름다운 집을 정원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어떤것이 있느냐면은, 제일 사람이 오래 전에 살던 곳이 바로 이 목살마을이에요. 그리고 이 마을을 아주 요렇게 되가지고 지금 보면은 도서관 맞은편이거든요, 길으로 안보여요. 길으로 이렇게 되가지고 여기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일부로 내려가지고 돌아야 보여요. 옛날서부터 따뜻한 곳이에요. 진달래와 개나리가 제일 먼저 피는 곳이 바로 목살이에요. 따뜻한 곳. 바람이 세지 않고, 따뜻한 곳. 이곳이 바로 능곡

에 제일 먼저 된 마을이 목실이다. 사람이 제일 먼저 살기 시작한 마을이
 예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여기 연못이 아니고 약수터가 있어
 예요. 마을이 조금한(조그만) 마을인데 여섯 집 일곱 집밖에 안되요. 옛날에
 는. 근데 그 마을사람들이 항상 그 먹고살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어떠한
 가뭄도 조금도 줄지 않은 아주 좋은 우물인데, 그 우물 옆에는 아름드리
 큰 뿌리가, 이만한 뿌리만 남았어요. 삭아서. 어른들 얘기 들어 보니까 이
 게 큰 나무였는데 거기서 벼락이 쳐가지고 타서 쓰러지고 거기서 큰 구렁
 이가 나와서 하는 전설이 지금까지 들었던거예요. 그 물줄기를 가지고 우
 리 논이 있었는데 농사를 짓던 곳이에요. 옆에 논이 있었어요. 그러한 우
 물이 여기서도 하루아침에 LH공사에서 포크레인을 몇 번 찍어서 없어져버
 린 모양이에요. 이 터가 어디쯤이나면 도서관 오른쪽쯤이에요. 도서관 오른
 쪽쯤. 그거가 살았으면 말야 약수터로 유명했을거예요. 참 좋은 약수터예요.

그담에 승지골이라고 있어요. 지금 우남아파트 2차 있는데요. 이제 우
 남아파트 여기 맞은편 왼쪽 있잖아요. 고 지역이 바로 승지골이라고 합니
 다. 승지골. 승지라고 하는 벼슬을 했던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실에 해당
 한다고 봅니다. 승지. 벼슬이. 승지 벼슬하는 사람이 살았던 얘기에요. 그
 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전설이 뭐냐면. 승지골에서 승지보다
 더 유명한, 아주 유명인이 출산한다. 아주 성인이 출산한다. 하는 전설이
 옛날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승지골에서. 지금 아파트단지가 잘 되습
 니다.

그 옆에는 바로 이제 그 공원 있죠. 무슨 공원이야. 그 조그만 공원이
 지만은 그 공원에 대한 엽힌 얘기가 참 많습니다. 공원, 선사유적공원은
 우리집 저쪽면에, 우리집에서 관리하는 과수원이 있었어요. 우리집 과수
 원입니다. 그 자리가. 저쪽 뒤로 이렇게. 그 과수원자리가 어릴 때 보면은
 거기서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 절구고리를 발견했어요. 절구. 돌절구. 돌
 절구 있죠. 여기다 끼어가지고서 찜작아요. 근데 구멍을 뚫질 않고 그냥
 이렇게 조금 해놓고 나무를 매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는 거예요. 거기서
 아주 어릴 때 발견을 한거 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정원에 가면 놓은

건데. 이게 문화원에서 와가지고, 이거 문화원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라고. 문화원에서 유물 중에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은 거예요. 구멍을 뚫질 않고 나무를 매서 쓸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크지 않습니다. 조금조금한데. 그걸 하나 발견한 거 밖에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 당시 거기가 선사유적의 흔적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24기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26기? 24기? 하여튼 시흥에서 저쪽에 선사유적지, 오이도 선사유적지, 하고 저기 2군데하고 여기밖에 없어요. 굉장히 오래된 유물 200여점이 여기서 발견이 됐답니다. 200여점을 이제 국립박물관에다가 보관한다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시흥으로 돌아와야되.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유적공원에다가 선사유적공원 입구 옆에다가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보시면 세차장이 들어서있어요. 그거 땀에 주민들이 막 이거 뭐 없애야된다 하는데. 여하튼 시에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크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거 방치하면 그 주변에 전부다 lh공사 땅이에요. 주변이. 쓸모없는 유적이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러한 형태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삼거리 마을 이야기

그 다음에 능곡동입니다. 능곡동 삼거리마을입니다. 삼거리마을인데 삼거리마을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근대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다. 삼거리마을이에요.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이제 길은 삼갈래길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이 삼거리마을은 바로 능곡동에 있는데 제일 나중에 세워졌던 마을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 마을은 바로 이상하게 거리로 봐서 인천과 수원에 중앙에 있어요. 50리길이라고 하죠. 인천 50리, 수원 50리, 중앙이에요. 그리고 부천 30리, 안양 30리,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서부터 아주 교통의 요충지였고 그담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장이 있었어요. 우시장. 장. 장거리가 있는데. 그 뱃내장이라고 그 터가 있었고요. 그 담에 삼거리장터

가 있어요. 삼거리 우시장. 그담에 수원 우시장. 세 가지. 세 개가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큰 것이었다. 이렇게 굉장히 큰 소장이 있었다. 소장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소를 갈고리를 맨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그럴려면 장거리가 형성됩니다. 거기 옛날에 보면은 장거리가 쪽 있어가지고 양쪽에 가게들이 있어서 가게가 쪽 있었어요. 그리고 장날 보면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소를 끌고 왔다갔다하고 술먹는 사람 이렇게해서 거기 장거리가 아주 풍성한 시장이었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리라든지 하는 게 중앙으로 보는 것이죠. 서울 가기 위해서는 거리를 거쳐서간다 서울 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안산 삼거리라고 했습니다. 안산삼거리. 거기가 바로 능곡 삼거리였어요. 그래서 안산삼거리를 거쳐서 과천을 해가지고 서울을 가는 건데 여기서는 무엇을 했냐면은 주막도 있었지만은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대장간 철공소거든요. 모든 농기구를 다 만들어서 팔고 고치고 하는 것이 바로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 대장간 없습니다. 이 신천일대에 하나 있었고 이 군자에 하나 있었고 해요. 대장간이 여기 하나 있었어요. 여기 이층집이 있었어요. 일제 때 이층집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층집은 이 근처에 극히 드문일인데 이층집을 일제 초기에 지었다고 했던 이층집이 있었어요. 지금 어디냐면은 능곡고등학교자리 그 근처입니다. 이층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양조장이 있었어. 양조장은 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길 거쳐서 술 배달하고 가져가고 하는 거예요. 큰 양조장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무엇이 있었냐면은 장터가 가운데 큰 장터가 있는데 장터에 모인걸 위해서 각종 민속장치라던지 명절때만 하는 씨름판 벌어지고, 윷판 벌어지고 풍물 벌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거기서 지역이 우수우성 한곳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되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여기 낭정호송덕비가 있었고, 문명석 자선비가 있습니다.

이 비석에 대한 얘기를 하면 참 재밌는 것이 있는데. 낭정호비석과 문명석 자선비가 있어요. 크지 않은 비석입니다. 낭정호비석은 불과 한 일톤정도 넘을까 정도, 그담에 송덕비는 조금한 까만 비석인데, 우리 어렸

을 때 비석을 가지고 놀면서 비석 맞추기도 하고 말야 며 이러면서 놀던 장소가 여긴데 이 마을인데, 그 마을에 70년대 새마을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새마을운동이 일어났을 때 길 옆에 세워놨어요. 길옆에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니까 거기다 비석을 세운거야. 송덕비. 이 송덕비와 자선기념비라는 것은 이게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송덕비는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영원히 기억하면서 이렇게 받들어가지고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이고, 그 담에 자선기념비는 그분이 좋은 업적을 가지고 자선사업을 많이 한 분에게 후대에서 세운 겁니다. 근데 이 비가 이제 새마을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바로 길옆에다가 세웠는데, 근데 길을 넓히라고 길을 넓히라고 한 거야. 옛날에는 길 넓히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붓는데 그걸 넓히다가 그 앞에서 폭삭 무너졌어요. 넘어지니까 무겁고 그러니까 기왕 넘어진 거 물어버리자고. 동네사람들이 그랬답니다. 물어버리자고. 그 당시에 학교에 있을 땐데 한참 젊을 때, 30대초에 그 청년으로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뛰어가서 묻지 말고 내가 가지고 가겠다고. 묻지 말라고. 그래서 남학생들 20명을 동원해가지고 마차를 빌려가지고, 마차에다 간신히 실어가지고 두개를 학교 운동장 끝에다가 세워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운동장 끝에다 세웠어요. 운동장 끝에 세워 놓 다음에 주변에 미화도 하고 애들한테 당번들 정해가지고 꽃도 심고 지방에 좋은 그거다 설명도 하고 보존을 했습니다.

한 10년? 10년쯤 됐어요. 학교가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부를 하고 그담에 학교를 옮기면서 그 학교에다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옛날에 그 운동장을 기증했던 분이 그 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워놨던 비석 함부로 맘대로 여기다 세워놨으니까 다른 데다 가져가라는 겁니다. 비석을 주민들이 총의에 의해서 학교로 옮겨 놓고 학교에서 보관하다가 내가가니까 이거 계속 거기다 두지 못하고 다른데다 가져가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마당으로 옮기자. 그래서 마당으로 옮겼습니다. 마당에 가운데 집 옆에 마당이 넓어가지고 마당 옆에다가 거기 좌측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있었는데

한 10년쯤 더 지나니까 개발된다는 거야. 또 저걸 옮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기했어요. 도저히 내 땅에 가져 옮길 데가 없어요. 지방에 유적인데 방치되면 되겠냐. 이거 책임져라. 그랬더니 문화원으로 얘기해서 문화원에서 왔어요. 원장님하고 몇 명 왔었어요 문화원 마당있죠. 요 마당에 2개를 옮겨놔었어요. 세멘위에다가 올려놔었어요. 여기서 한 수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능곡동이 다 개발 됐잖아요. 공원도 있고. 저걸 시에다 얘기해서 저걸 능곡동에 있었던 유물이니까 능곡동으로 옮겨 달라. 시에서 아주 의논을 했던 모양이야. 나는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옮겨 달라. 큰 공원이라든지, 지금 선사유적지라든지, 머 이런데다가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모재 있죠 그 저 끝에, 류자신묘 있는 저 끝 산 밑에다, 거기다 또 옮긴 거예요. 풀이 이렇게 나고 말야.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고, 되도록이면 주변도 조경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냐. 그래 풀을 깎아주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방치되어 있어요. 표지도 없고. 정확히 4번을 옮겼어요. 4번을. 한 40년동안 옮긴거예요. 난 왜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저게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선기념비? 송덕비? 내가 훌륭한일 했다고 내 자신이 세운 게 아니예요. 다른사람들이 칭송해서 세워준 그 비석을 시흥에서 저런 게 뭐 없어요. 한군데 저기 저쪽에 주씨 문중에서 세운게 있는데 자기 문중에서 세운거야 그거는. 근데 이것은 조각인들이 혜택을 받고 너무 강력해가지고 조금씩 내가지고 세운 거야 저게, 아주 귀한거야. 지역 유물중에 교육학습용으로 얼마나 좋은 교육유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옮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이 바로 능곡 삼거리마을에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 병원이 있었습니다. 병원이 있는 마을이 있겠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엔 없었습니다. 그 마을에 병원이 있었어요. 병원이 어떤 병원이나면은 간호사가 부인이고 의사가 한분이에요. 그분이 박희호씨라고 박용민씨의 아버님이에요. 여기 문화원 원장님 한번 했었어요. 그분은 이제 품앗이를 합니다. 농사를 짓거든 농민들이 대개 농사를 지어요. 그러

면 돈이 없으니까 치료를 한 다음에 나중에 제가 일해드릴게요. 하면 그 만이에요. 가서 품앗이를해서 일을 해드리는거야. 하루, 이틀, 이런 거. 또 왕진을 하시는 거야. 와서 치료 해준단말야. 의료복지 중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을 했다 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한 병원이 있고 약국이 있었다. 약국도, 거기 있었고. 그담에 학교가 있었다. 재건학교 있었다. 그담에 또 사회출업부가 있었다, 농협이 있었다. 최근에 문화원이 있었다. 문화원이 거기 있었어요. 이런 것들 그담에 상점 이발관이 거기 있었고, 이런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 시설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담에 교회가 있었습시다. 최신 문물이 들어오는 교회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역개발에 중추되는 역할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거. 그래서 웬만한 분들 거의 교회에 적을 뒀어요. 이런 것들. 이런걸 보면서 나는 깊이 생각합니다.

능곡동에 대한 비전

내 젊을 때 꿈이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젊을 때에, 내 꿈이 세 가지가 갖추어진 마을을 한번 만들어보자. 생활을 만들어보자 그 첫째가 바로 병원이 있는 마을, 그 다음에 학교가 있는 마을, 그 다음에 교회가 있는 마을,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마을만 되면은 그 마을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은 마을일거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꿈을 가지고 그 당시에 활동을 많이 나름대로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학교를 하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나 그 학교가 지금 고등학교, 능곡고등학교가 그 자리에서 얼마 안되요. 그 자리에 고등학교를 세워졌고 병원이 4개가 5개가 있어요. 조그만 병원이 그 다음에 교회? 17개나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내 젊을 때 꿈을 지금 현실에서 보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중구난방으로 했는데 개인적인 이야기, 지역이야기, 마을이야기 이것이 바로 우리 향토에 발전에 연구에 앞으로 밑거름이 됐으면 합니다.

이영득 (초대 시흥문화원 사무국장, 1946년생)

시흥문화원의 시작과 발전

시흥문화원 설립의 배경

저희들이 이제 그 정식으로 96년도에 문화원을 땡글기 위해서 받기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게 그 당시에는 그 옛날에는 문화 공보부인데, (현재)문화체육관광부요. 문화체육부인데 저희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예치금도 있어야하고, 승인도 많이 받았는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몇 개월 동안 추진을 해서 조건부 우리가 또 예산이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초대 그 정확히 뭐냐면 작고 하셨어요. 저하고 한인수 이번에 시장님하고 친구, 그렇게 셋이서 문화원을 세우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들의 열정도 있었지만 저는 그 분들의 열정의 몇배를 갖고, 하여튼 문화부에 쫓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제가 아는 저는 그 전에 조직 생활을 많이 했어요.

학교 다닐 적에 후렌치 컵을 해왔고 그 당시에 부천문화에 선상을 올려놓는 작업을 했고, 군에서 제대하고 모 계약에 근무하는데 지역에 와서 일을 해줘야 겠다 해서 와서 거의 새마을에 미쳤어요. 새마을에서 저 강

쪽으로 있었어요. 새마을에 있어 제가 전국적으로 그 아마 지금 새마을 기록보전물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시흥시 이런데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훈장을 타고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땐데. 그래서 그때 훈장도 타고 새마을에 있는 역사를 얘기하면 문화보전으로 많은 얘기할 수 있는 자원이 많습시다. 그러다 보니깐 정치권에서 저를 픽업을 해서 시의회 국회의원 윤용록 의원인데 그 사람도 찾고 왔었어요.

그 양반 청년 부사관으로 들어가서 정치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4대 그 양반이 12대 때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시고, 13대 때 황철수 의원이라고 그 양반이 문교부 차관도 하고 일본 대사관에 교육 담당 대사도 나갔었고, 서울시 국회교육감, 경기도 교육감을 하다가 할수 없이 그 양반도 피력이 돼서 나왔는데 그 양반을 모시고, 그 양반이 있다 보니깐 제가 14대 때 되다 보니깐 제가 이제 정치에서 무너지는 걸 해서 하는데, 그 양반의 제자가 문체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조건부로 문화원을 개설을 합니다.

초기의 어려움

그런데 아마 지금처럼 지금은 문화원 개설하려면 쉬울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우리 자체적으로 몇 백 만원 예금 통장을 갖고 와라 마라. 그래서 저는 전 소대원들한테 어쩔 수 없이 소위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라 통장을 만들어 갖고 그걸 제출을 해요. 그래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문화원을 개설을 하는데 그래서 문화원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시흥시 정치적 야사나 문화나 새마을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렇게 얘기하라 하면 증인 비슷하게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을 맨 처음에 굉장히 그 당시 민선 1대 시라고 해요. 문화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렇게 얘길 해서 문화원을 어느 건물에다가 문화원을 딱 내 주겠다해서 집기니 머니 이런 다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는 걸로 조건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개인의 관계 때문에 저하고 원장님(초대 정학진)하고 그 당시

시장 이름은 거명 안하겠습니다만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문화원을 말살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걸 뭐 개원식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일 년에 나오는 게 천사백육십 만원인가 얼마였어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이 저기 연구자 과장님이 임시로 있었어요. 우리가 저기 두 사람 여직원을 두고 있는데. 그 사람들 보수를 주고 나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일 년에 천사백 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백 만원씩 줘도 천이백 만원인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뭐 전화니 각종 비용 써야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문화원 이사 분들을 많이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부터 창조금도 받고. 후원도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개원식을 하는데. 그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아주 많습니다.

개원을 하는데 많이 못해서 개원식을 해서 지금 보건소 있는 자린데 그게 그때는 그 막사가 머라할까 그 저기.. 임시 막사(컨테이너)예요. 그 막사를 하는 수 없이 이용을 해서 개원을 하는데 개원식을 할 적에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했습니다. 개원식도 어렵게 했고. 그래서 그 개원식을 일 년동안 개인 제 개인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했어요. 개원과 동시에 조금 더 색다르게 하자 그래서 문화교실을 한 12과목을 문화원 문화교실을 개원을 해요. 그런데 그 강사들한테 줄 강사비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문화원은 우리 지역은 문화에 굶주린 그런 상태인데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를 받을 수도 없고 그냥 무료로 하는 겁니다. 무료라도 강사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시간당 만이천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리가 가면서도 우리가 보이는 게 없다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로 얘기를 해서 여기에 일본어라던지 영어 중국어 그런 것도 제가 했거든요. 일본어 선생은 통일 교회가 국제 결혼을 해서 일본분이 결혼해서 왔잖아요. 그 분을 섭외해서 강사로 썼고. 또 영어는 필리핀에서 이주해서 사는 분을 영어 강사로 쓰고. 하여튼 그렇게 그렇게 짜집기를 해 왔어요. 근데 저희들이 심혈적으로 기울인 거는 한국민요. 경기 민요에 대한 민요교실을 만들어가지고 민요 하는걸 제복을 하는데 한복을

맞추잖아요. 한복이 맞출 돈도 없고 줄돈도 없고 수강생들한테 50% 해라. 우리도 50% 하겠다. 그래서 그런거 저런거 강사료 이런 비용을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넉넉하게 주지를 못하니깐 저도 호주머니를 털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그래서 문화원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적에 저희들이 나중에 뭐 역사편에서 보면 나오는데 저희들이 과주 남양주 우리나라의 전통문화가 살아 있는 곳을 수배를 해요. 수배를 해서 하고. 또 남들이 안하는 갯벌체험도 하고 진행을 해 나가는데 그때마다 시청에서 저희들한테 문화원에 대한 압박이라던가 그렇게 굉장히 심했어요.

그 당시에 민선 시장이니깐. 민선 시장이 다시 그 재출마를 하기 위해서 저를 필요로 해달라고 해요. 와서 선거 대책 본부를 해달라. 아 저는 못합니다. 연규자 혼자 있는데 시장이라는 분이 문을 딱 열고 들어갔어요. 이영득이 돈 여기서 가져간 거 회계정산처리해서 갖고 와. 사실 천사백만원 일년에 다써야 천사백만원 쓰는 건데. 그러면 직원들 봉급을 못주는데. 시장이라는 분이 그 정도로 와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연규자씨가 굉장히 어릴 때니깐. 그냥 사시나무 떨 듯 막 그런 거예요. 시장이 허름한 그 아주 형편 없는 막사에 와서 독촉하니깐 얼마나 불안하고 떨었겠어요. 그 정도로 문화원에 대한 개념이 시장님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뭘 하려고 하면 그게 전부다 소모성이다. 소모성이니까 문화원에 예산 줄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거를 제가 발체를 하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김용문 의장님 택에서 저희들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 수익에서 몇 프로 영점 몇 프로를 문화원 예산으로 넘어가는 걸로 의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그 또 시의원들 쫓아다니면서 독촉하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게 그렇게 의회에서 의결을 되었는데 집행이 안돼요.

시흥문화원 초기 사업 - 연성문화제

그 당시에 연성문화제라는 것이 시민의날 체육대회 때 곁들여서 하는 거예요. 글짓기대회 무슨 전시회 그런 것이 연성문화제라는 이름만 계속 가는 거지 어떤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2회 때 인가 독립적으로 연성문화제를 하겠다고 그래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랑은 별개로.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의원들 개별적으로 전부 접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연성문화제를 독립적으로 하려는데 이 정도 예산입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 오천만원인데. 사, 오천만원을 시의 예산을 받아내는데 그렇게 어려웠어요. 하여튼 그래서 사정사정하고 그래서 의원들 일대일로 로비 아닌 로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연성문화제를 하는데. 연성문화제를 하면서도 그때 누구도 연성문화제에 관심 없고. 연성문화제를 하면서 기획을 해야하는데 그래서 제가 기획도 하고 연출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해서 그때서부터 연성문화제를 하는데 이게 연성문화제를 그렇게 하면서도 예산을 확보 됐는데. 총무국장이 거론을 안하셨습니다만 총무국장이 예산 결제를 안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류병문 원장이 2대 원장을 하는데 류병문 원장이 쫓아 들어가서 총무국장하고 대판 싸움을 해요. 총무국장이 이 지역 사람인데. 너는 지역 선배도 없냐. 너가 요 한마디만 하면 예산집행이 되는데 왜 안주냐. 엄청나게 부의장실에서 집기가 왔다갔다할 정도로 싸움을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부시장이 총무국장을 출장을 보내고 전걸해서 예산을 받아갖고 연성문화제를 집행하고 했는데. 그 고초를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에 보면은 경기도에 국악 그 국악단이 있고 이렇게 많아요. 그분들을 초청해서 연성문화제에 실내체육관이 있어서 하는데 관중이 그 국악단이 50, 60명이 국악단인 거예요. 의복이 저기하니깐 저희 왕복하는 탑차에 싣고 와야하니깐 그 비용만 하고 무료로 공연을 해주는데 관중이 불과 100명 미만이에요. 그니깐 지휘관이 우리 국악단 연주자 보다 관중에 더 적은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한 두 번 지나가니깐

관중이 많아졌어요. 그때 지휘하는 분이 인제 문화제가 정착된 것 같습니다.

시흥문화원 초기 사업 - 『신현동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다음해에 저희들이 시흥문지라는걸 만들어요(문화원 연간잡지 『시흥문화』 1997, 큰기획) 시흥문지. 시흥문지를 만드는데 문화원에 비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예산 따는데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쪼개고 쪼개서 사정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 나라의 역사적인 대학교에 위탁을 줘요.(출판사 큰기획(현 역사만들기)에서 주도) 신현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게 행정적으로 신현동이지만 법적으로는 신현동이 없어요. 인천구 시흥면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기 포동, 방산동, 미산동, 하중동. 이렇게 있는데 서로 서로 동이 적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미산동은 미산동으로 해달라. 하중동은 하중동으로 해달라. 포동은 포동으로 해달라. 유일하게 시흥시에 지금 동이 법적으로 없는 동이 아마 신현동일 거예요. 신현동. 그건 사실 법적으로 하려고 하면 포동, 미산동, 방산동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신현동. 새신 자에 고개현 자거든요. 그 당시에 신현동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아닌 저기도 아닌 역사를 따서 신현면을 만들었는데. 신현동이라는 것이 아마 지역을 잘 모르실거예요. 방산동에 가면 밤이리라는 동네에서 밤거리를 통해 넘어오는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마터도 있어서 발굴하고 그랬죠. 거기에 약 그 당시에 한 천 여명이 살았다니깐 아주 커다란 지역이었죠. 가마를 뒤갓고 인천 앞바다로 거기까지 물이 들어왔죠. 그래갓고. 수출하고 했던 가마터라고 역사적으로 나오는데. 『신현동지(1999, 큰기획)』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정왕동 오이도 개발하려고 하던 시점이에요. 오이도지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그걸 왜 해야되냐. 그 당시에 시의원님들이 진짜 속상할 정도로 너무 문화에 관심도 없지만 너무 너무 우

리가 얘기하자면 너무 무식하다고 할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이도지를 못 만들었고.

시흥문화원 초기 사업 - 고틀이놀이

그 다음에 저기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흥하면 트레이드 마크를 하나 만들자. 그걸 해가지고 고틀이(놀이)라는 거를 합니다. 고틀이라는 거는 이런 짚. 옛날서부터 내려왔는데 길다란 막대기에 줄을 만들어서 땡기처럼 떼가지고 나중에 그걸 푸는 거죠. 그걸 고틀인데. 그거로 하려고하면 여러 가지 장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나중에는 안 되니깐.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저기 시흥에 어디야 거기에 표시나무 고틀이 크게 확대해서 해놓은 게 있는데. 고틀이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고틀이름. 그니깐 뭐 예를 들어서 밤골이다 산골이다 우특골이다. 이런 거를 쪽 놓아가지고. 운동장에 다 놓아갖고, 운동장에서 펼쳐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나. 장비도 없고. 시에서 예산도 안주고 하니깐. 그래서 저희들이 크레인 커다란 크레인을 동원 해가지고 인조로 커다란 박을 만들어요. 무지하게 커다란 박을 만들어서 처음에 가로 묶고. 그 다음에 사물놀이들이 돌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면 확 퍼지죠. 그걸 한 사람이 하나씩 잡고 빙빙돌면서 놀이를 하는 그런 거를. 사실 지금도 그걸 하고자하면 기술적으로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낚시대 뽑는 식으로 안테나 뽑는식으로 해갖고 하면 되거든요. 지금은 너무 장비를 잘 해서 하니깐. 그러니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사물놀이 놀고. 고틀이 지역이름을 가지고 쪽 돌면서. 연서가 안되니깐 완벽하게는 안되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깐 너무 좋은 거야.

(중략)

이렇게 하다가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으면서 우리가 채택이 되요. 채택이 되서 고틀이를 수원 월드컵경기장에 와서 시연을 해달라. 야 이런 기회도 오는구나. 그 당시에 또 왜 그랬냐면 여기에 있던 부시장이 문화

관광국장으로 경기도로 갔어요. 그걸 인정을 해주고. 여러 가지로 보고 그걸 해달라.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달라고 문화관광국장한테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얼마 안준다는 거예요. 그 대신 예를 들어서 오천만원이면 오천만원 시흥에서 주는 걸로 하겠다. 시흥은 가볍게 꺼내는 돈이 아니어서 우리는 못하겠다. 거기서 다 줘야지 시흥에서는 절대로 예산을 줄 수도 없고. 받아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타진을 해보니까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육칠천만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소래 중학교하고 신천중학교 애들을 여름방학 때 합숙을 시켜서 고품이 시연을 하는 작업을 해요. 계속 작업하고. 그러다보니까 개네들한테 해줄수 있는 게 충분히 없잖아요. 개네들한테 뭘 좀 해줘야하는데. 그래서 메이커 추리닝 한 벌씩 해주겠다. 뭐 그런 약속도 하고. 먹는 건 인색하지 않게 저희들이 학생들 방학 때 놀지도 못하고 그걸 시연을 하니깐 물론 하루종일 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한번씩 해야되니까 개네들이 떨리는 못가잖아요. 그렇게 하고, 인천에 사물놀이패 굉장히 잘하는 패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초빙해서 월드컵운동장 근처에 수원에 운동장 근처에 시연을 하는 걸로 시작하는데.

그때 월드컵 시작하면서 고 이튿날인가 저희들이 들어와, 운동장 아닌 데서 하는데. 그 당시에 학생들이 출입표가 없다 이겁니다. 그 대신 월드컵 경기하는데 입장해서 그걸 구경해달래요. 월드컵 경기장 들어가는 데에는 금액도 비싸지만 그 표를 살래야 살수가 없어요. 하늘에 별따기야 그 당시에 은행에서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줄을 서다보니까 한 열장밖에 구입을 못했어요. 야 이걸 애들한테는 완전한 약속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내가 정몽준을 찾아갑니다. 그때 월드컵 추진위원장이었죠. 축구협회 회장님도 하고요. 강제를 하는 거예요. 강제를. 우리가 당신네들이 예산준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많은 예산들여서 하는데 자라나는 학생들 월드컵 경기 한번 보자는데 표를 줄 수 있는 쥐라. 없다는 거야. 없긴 왜 없냐. 감춰놓고만 있을 거 아니냐. 나중에 가서 막 하니깐 붉은 악마 그 자리만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도 좋다. 하여튼 뭐 거짓

말 시켜서 한 60번 찾아갔어요. 그러니깐 그 수원월드컵 경기장 정면에 있는 그 자리를 준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붉은 악마 자리를 준거예요. 와 그러니깐 세상 다 얻은 것 같죠. 그래서 그 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 당시에 지도하는 교사들. 다 두 장씩 주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만 더 주세요. 누구 좀 데리고 가게. 그때 저희들은 어깨 막 펴고 나눠드렸는데 그렇게 주다보니깐 실제 우리 집행위원 사람들은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근데 그 남은 자리는 붉은악마 자리에요. 그 붉은악마 자리 가보니까 앉질 않아요. 맨 서서 대한민국 이것만 외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해야돼요. 이태리하고 할 때예요. 그 학생들이 아마 자기네들도 일평생 처음일 거예요.

시흥문화원 초기 사업 - 미추진 사업

그 다음에서부터 시장님들이 아 문화라는 게 뭐다 조금 눈이 뜬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느 시장님한테 그랬어요. 지금 우리 방산로에 가면 활터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오이도에 활터가 없을 때니깐. 그래서 활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수원에 가면 잘 하고 있잖아요. 수원에 가면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했던 건데. 그래서 약 15미터 20미터 사선을 만들어가지고, 화랑복을 입고 동조를 누비는 화살이 몇 개 나오게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마차를 타고 월קות을 가요. 월קות을 가면 한 천원 이천원 이렇게 나무 함으로 만들어서 새우것갈 어리굴젓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먹는 거 해서 이렇게 하고 해서 하자. 하니깐 어느 시장님이 그런 얘길 해요. 아니 지금 캔버스에 그림 그리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런데 지금 수원에서는 사선에서 천원인가 받을 거예요. 천원 받고 쏘고, 그 앞에 전통 물품 팔고 그런 가게도 있고. 그런 거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거를 많이 착안하고 폐염전도 철새 도래지입니다. 철새 도래지는 만들면은 세계적인 시흥시가 될 수 있다. 그때는 그린벨트가 되

서 개발은 절대 안 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골프장도 있고 다 들어왔지만. 그래서 철새도래지를 만들자. 철새도래지를 만들면 세계적인 우리 시흥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도 아마 그런 망심을 해도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염전 쪽방을 쪽 떼서 옛날에 철로가 있어가지고. 소금을 나르는 조그만 열차가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도 이용을 하는 방법을 하자. 해서 지금도 강원도 가면 레일바이크를 그거를 시도하자. 그때 그 시도하면 지금도 시도하면 그 쪽은 굉장히 효과를 볼 거예요. 중간에 쉼터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체험도 하고 하면 좋은데. 그걸 한번 해보자. 그거를 해서 시흥시하면 바로 이런 것이 트레이드 마크다.

시흥시의 문화시설과 시청이전

문화원도 제가 관리해서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문화원을 7년동안 하면서 수태한 수모를 겪죠. 엄청난 수모를 겪습니다. 수모를 겪으면서 문화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기 위해서 할 땐에 그 당시 제가 정치권에 있을 때 지역분리가 됐어요. 의왕시 과천시 그리고 군포시 안산시 광명시 그때 분리 했습니다. 그때 분리했는데, 아마 86년도 87년도인가 분리 됐을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뭐 의왕도 그렇고 군포도 그렇고 과천은 이로 말할수 없죠. 문화 시설이라는데. 그런데 시흥은 유일하게 분가를 내주면서 문화시설을 지금도 제로 아니예요. 문화예술의전당, 문화 머 아무것도 없잖아요. 과천 같은 데는 아 물론 지역적으로 다른 건 있죠. 과천은 뭐냐면 경마장이 있어서 그 당시에 1년에 약 십육억 정도 과천시한테 줬어요. 지금은 아마 몇 배가 오를 거예요. 과천은 사실 유일하게 공장이라던지 그런 게 없어요. 유일하게 수익이라는데 주민세가 전부예요. 그게 경마장에서 나오는 걸로 문화시설하니깐 이로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마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 과천일거예요. 과천시가면 거

기는 아파트 도색도 시에서 해주잖아요. 자체서 안해요.

그래서 나중에 시흥군의 마지막 군수가 과천시장이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은 보도블록을 금을 낀 걸로 해줘야겠다. 돈쓰는 데가 없다. 그래서 김연아도 과천빙상경기장에서 김연아도 거기서 연마해가지고 세계 피겨선수가 되었는데, 그 정도로 과천 문화시설이 대단한거예요. 과천도 그렇죠 의왕도 다 있습니다. 군포도 다 있어요. 유일하게 시흥시만 없어요.

여기 종합 포동 운동장을 그 당시에 거기다 시청을 맨 처음 앉히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정치적으로 했을 적에. 그 당시에 성남에서 면적에 50프로를 그냥 주고 50프로는 사는 걸로 해서 시청을 앉히는 걸로 했습니다. 거기에 시청 앉히는 면적이 제가 기억하는건 40여만평. 20여만평은 성남에서 주고, 나머지는 20만평은 사는 걸로. 모 시장이 이쪽으로 끌고 온 거예요. 이쪽으로. 모 시장이 이쪽으로 끌고 왔는데, 모 시장이 여기가 고향이라. 그래서 이쪽으로 끌고 오는데 그 당시에 소래권이라는데가 시의원이 9명이 있고 소래권이 빠지는 데가 4명이 있어요. 그러면 9대4로 저요. 내 지역에 시청을 앉히기 위해 전부다 청사진을 그려놨는데 나중에 시의회에서 의결하기로는 이쪽으로 오는 걸로 해가지고 9가 저요 4한테. 나 기권했다. 기권했다. 뭐 그렇게 애길해서 결국에 시청이 이쪽으로 와서 많은 수난을 겪잖아요.

그래서 뭐 시청 부지가 나빠서 어떻게 보면 시청부지도 그래요. 정면으로 해서 국도를 보게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시청이 앉은 자리를 보면은 그것이 꼭 형무소 같으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시장들이 다 형무소 들어간다. 그래서 안들어가는 시장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장실에서 딱 쳐다보면 정면에 산이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 산을 비껴가서 시장실을 이렇게 했다해서. 내가 그걸 두고 풍수지리 봤습니다. 조금 봤습니다. 그러더라고. 시장이 그런 저기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수난을 겪은 시청을 저희가 유치가 할게 뭐있냐. 구가 몇이냐. 그 시장이 상당히 로비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문

힐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까닭에 저희들이 문화시장이라는게 더욱 깊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시장한테 어른들한테 들어서 사자 했는데 이때 사는걸로 했어요. 근데 의회에서 부결했어요. 아마 부지 사가지고 지금 팔아도 엄청나게 부동산 증가를 해서 이익을 남겼을 거예요.

문화발전의 주체는 시민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문화를 성장시키는 과정이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여러분들의 술집 하나 생기는 거보다 문화에 어떤 책방이 하나 더 생기고 전시장이 하나 더 생기고, 이것이 문화에 국민이고 문화의 정책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소비성으로만 가지고 생각하는데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중에 가서 보시라고 이거는 그 당시에 문화라는 무엇인가라는 우리가 문화원을 개원하면서 쓴 건데 문화라는 무엇인가. 생활문화는 이렇게 쓴 거구요. 그 뒤에 보면 문화라는 게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에 나오는 글을 발췌해서 줄인 건데요. 문화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한 거. 맨 끝에 가면 창의적 상품이라고 해서 젓가락 긴장됨에 대해서 있는 건데, 제가 문화원에 있을 때 꼭 하고 싶었던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제시나 이런 걸 하라고 하고 농협에도 하라고 했는데. 굉장히 쉬운 건데도 우리가 문화정책하는데 굉장히 유일한 문화상품일 겁니다. 우리가 보면 전부 포크 쓰잖아요. 포크쓰고 나무젓가락 쓰고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만 유일하게 젓가락 쓰는 문화중에서도 쇠젓가락 쓰는 문화가 한국밖에 없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손가락 그렇게 하면 팔꿈치하고 관절에 50개 내지 30개가 움직인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뇌자극을 하고 섬세한 저기하고 집중력을 갖고 한다잖아요. 그래서 모 학교에서는 막 애들이 등산도 하고 체육활동하고 교실에 들어가면 개네들은 수농기를 한데요. 수농기를. 옛날에보면 엄마들이 수농고 팽팡하게 원형에다 괄목 꺾가지고 그림 그리고 수 몇잖아요. 애들한테 그걸 약 한 시간을 가르친데요. 그러면 애들이 평

장히 참을성도 있고. 인내성도 강하고 두뇌도 발달한다잖아요. 과학적으로 나온겁니다. 그래서 젓가락 긴장되게는 각 학교에 우리 지역에 다 말을 못하지만 중고등학생들한테 사전에 젓가락 긴장되게 한다는 시나리오에 좀만 찾아냈는데 이런 광고도요.

광고도 문화원에서 외부 광고 같은 건 커다란 저기 뇌물이나 받은 줄 아는데요. 요즘에는 전부다 광고를 이용해서 다 하잖아요. 그러면 광고를 이용해서 조금한 수첩을 학생들이 좋아하는 조금한 수첩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흥시에 있는 학교 마크를 다 넣어주는 겁니다. 메모지 뒤에 보면 다 학교명을 다 넣어줘요. 넣어주고 맨 뒤에 우리 젓가락 기능장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니 사전접수 하라. 접수 하려면 공짜로는 공짜시스템은 절대 안됩니다. 오백원이던 천원이던 꼭 받아야해요. 받고, 여기에서 기능장 내지 일등 먹은 애들은 고등학교 3학년정도 되려면 대학 등록금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나무젓가락 아니고 쇠젓가락으로 십분동안에 쌀을 몇 개 콩을 몇 개 나중에는 깨. 조그마한 깨, 좁쌀. 그렇게 해서 기능장 대회를 하는거 거든요. 그것만 하면 시간이 짧고 하는 게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전통 창이라던지 아니면 뭐 전통 무예라던지 학생들한테 문화에 대한 그런 걸 심어주는 거죠. 그렇게 심어줘 가지고 진행하면은 이걸 충분히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정원장님이 뭐 문화원에 관심 많으니깐 이걸 삼대 스폰서 받아서 애들한테 좋은 것을 배려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서 우리가 자꾸 잊혀가는 전통문화를 살리는 것이 문화원 아녘니까. 그래서 문화원에서 이런 걸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시에도 하고 농협에도 하라고 하는데 안 해요. 지금은 문화원밖에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런 걸 구차한 걸 안하려고 해요. 안하려고 하고 가장 단순하게 인터넷 들어가서 뭐 보는 거 그런 거나 하려고 하지 안하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전통문화가 없어지고, 잠잠도 없어지고, 끈지끈지도 없어지는. 이게 우리 역사상으로도 옛날에 조상님들이 우리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거지 그냥 재미로 잠잠 끈지끈지 그런 게 아니

거든요. 이런 걸 할수 있는 것은 문화원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원에는 시흥시 엄마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문화원의 전통 역사를 이어가고 문화를 계승해서 발전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뒤져보니까 옛날에 있던 문화원에도 있겠죠.

시흥문화원에 대한 열악한 지원과 문제점

이 전에 우리가 문화교실 때문에 90년도가 2000년도에 월간잡지 케 이비에스에 각 방송에 다 나와요. 보셨나요? 그 다음에 이비에스에서 다큐로 문화교실을 찍어요. 여기서 한 보름 이십일동안 먹고 자면서 이비에스 방송에서 시흥문화원에 대해서 문화원에 대한 것을 다큐로 찍어요. 그런데 문화교실을 하면서 갈등요소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영상비디오방도 있고. 뭐 하여튼 대학교에 과목 못지 않게 문화교실이 활성화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갈등이 있어가지고 싸움을 해요. 문화원 교실 수강생들끼리. 그래서 그 음성이 그대로 다 들어가. 뭐 싸움하는 화면까지. 그래서 입이 먼 찢어진 입이면 말이면 다야 이런식으로. 그런 거까지 그래서 문화원이 한참 상송세를 타고 올라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도 시장님들이 예산 집행하는데 인색하니까 황당할 수가 없죠. 그건 다만 문화가족들이 많이 생겨서 이 문화원에 대한 위상을 살렸을 때 예산집행이 가능한 거지 지금도 아마 시장님하고 문화원하고 예산관계가 아마 썩 옛날 같으면 지금 고려당 같은 집인데 옛날 같으면 여담지에서 살면서 일년에 천사백만원 타गत고 문화원 운영 하고. 이것이 문화제 수입을 하면서 해요. 이것이 신문에 이렇게 나는 거야. 창고에 낫잠 자고 있다. 전시 안하고. 지금도 전시 하고 . 향토자료 창고에 허술하게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나는 거야. 아니 어디 보관할 자리도 없는데 차곡차곡 쌓아놓을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흥군에서 시흥시로 되면 여러 가지 물건을 가급적이면 수

집해서 갖다놔요. 그래서 뭐 농촌에서 쓰던 각종 기구. 그다음에 염전에서 쓰던 각종 기구.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그 내가 정리한 거에 있는데 여기에 간단하게 있어서. 우리가 여기 숲속마을에도 숲속마을 거기에 가면은 우리가 탐을 하나 제조 해놓은 게 있어요. 옥구공원에도 가면은 문화원에서 원장들 장군들 커다랗게 탐을 물론 원씨네 종가에서 예산을 주고 우리가 집행한 것 뿐인데. 우리가 삼성아파트인가 숲속마을 옆에 삼성아파트 인가요? 거기가면은 왜 우리가 거기를 선택했냐면 그 당시에 누구 임금 때더라. 그 임금 아시죠? 그 분이 절구를 그 당시에 쓰고 그랬던 거를 저희들이 수집을 해요. 이사 오면서 절구가 없어졌다하데요. 그 양반이 절구 찾아내라고 나한테 작년인가 제작년에 전화가 왔어요. 내가 어떻게 찾나 절구를. 그렇게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도 우리가 보관 못해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시흥문화원 발전을 위한 제언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느끼는 점인데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또 하나는 전통문화 중에서 가장 잠잠 이라는걸 얘기했지만. 핀란드 같은 데서는 애들 장난감을 주면서 망치를 두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핀란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망치질을 해봤냐니깐 백프로 망치질을 해봤다고 그래요. 초등하고 저학년 학생들한테. 그런데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15프로 정도밖에 망치질을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손에 기능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손에 중요한거는 젓가락 문화가 되가지고 그래서 황우석 박사도 젓가락 문화 때문에 연구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젓가락 문화가 우리는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재료를 저도 수집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젓가락 기능 젓가락 문화가 우리나라를 이렇게까지 살게 오기까지 하는 기본인데, 우리는 그런 전통문화를 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교실 어머님들이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가 문화원에 와서 이렇게 문화강의를 들으

면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게 안되면 문화원이 또 폼박받는 문화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두서없는 얘기를 시간 다 지나갔는데 문화원이 여기까지 오기는 아주 상상 못하는 그런 아주 험악한 그런 데서 문화가 싹이 트기 시작하고 여기까지 온겁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정원철 원장님이 아마 다른 원장님들은 미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화까지 생각하시고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 문화원에 나오시는 어머님들이 옛날에 보기에 다 시시한 거지만 저희들 학교다닐 적에 보면 시장에 가면 야바이꾼이란거 아시죠? 야바이꾼 막 후두둑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돈 있고 없고. 거기에 해학이 있습니다. 해학. 가뿐합니다. 이 어느정도 오면은 돈 잃어버린 별써 같은 지경이 되어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라고 얘기하고 길위에서 돈싹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해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돌방돌부리라고 하나에 미쳐서 할 정도로 되어야 이게 발전됩니다. 광산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는것보다 뭔가 물먹이느대서 미쳐. 미쳐야 뭐 이뤄지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을 버리고 미치라는게 아니고 문화에도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라고. 불과 우리의 그런 문화원이 이야기합니다.

전남훈 (시흥향토문화연구소장, 1947년생)

옛 시흥지역과 정주의식



그 시흥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강의를 맡았는데 하여튼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교재를 준비해오지 못했어요. 교재를 준비를 못했거든요 우리 시흥의 역사 유래니까 동네 시골할아버지가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를 그거를 듣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자가 되어야되. 제가 이야기 한 것을 전부 기록을 하면서 집에가서 전부 학생들하고 정리를 해서 앞으로 깊이 연구를 하게 되면 큰 연구자료가 된다는 거.

강희맹선생님도 팔 걷어붙이고 농사일하면서 얘기를 주고받은 거거든요. 주고받으면서 아 이렇게하면 과학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기록을 한 거 거든. 그래서 만든 것이 『금양잡록(衿陽雜錄)』(1475)이라는 농업서적.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과학 농업서적이 『금양잡록』이렇게 있죠(우리나라 최초의 농업서적은 『농사직설(農事直說)』이다. 1429, 정초, 변효문). 그다음에 『사숙재집』 책(강희맹의 문집)을 만들어

요. 대화하면서. 또 농업을 3천여개가 되는 것을 다 듣고 수록을 해서 정리해서 300권인가 이렇게 만들어 놓 것이 시경이잖아요. 바로 그렇게 학자들이 만들어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학자예요 이제. 향토문화에 학자고, 저는 시골에서 올라온 촌마예요. 그니까 촌마가 시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시의 팽창

도시가 형성이 될려면은 처음에 자연상태에 자연 그런 마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서로가 뭔가를 주고받고 사람을 일으킬려면 모여가 있어야죠. 그래서 제일 첫 번 째로 뭐냐면 동네 네거리가 되는 거예요. 4거리에 나오면은 대장간이 있고 또 옆에 가는 방앗간도 있고 또 잡화상도 있고 가게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모여 나오는 거죠. 그러면 모여 나오는 데 사람들은 “아유 저기 사람들이 모였구나” 이런생각을 하고 거기 물건거리를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상인들이 오일장을 만들고 그런 것은 그 동네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커지는 것은 대전이고, 시흥이고, 서울이고, 똑같이 그런 방향으로 커지는 거예요.

서울은 종로4거리를 중심으로 크게 커졌고, 그담에 저 전라도 순창이나 이런대 썸가면 적게 커졌고 하는 거예요. 다만 커지는 건 마찬가지로, 그러면 커지는 게 어느 동네는 커지고, 어느 동네는 들켜졌나, 그것에 차이는 거기에 얼마만한 자원이 있느냐 자산이 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도시는 커지고 적어지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그만큼 고대에 자산이 많은 동네가 땀에 커. 그렇죠? 순창보다 훨씬 크죠. 그 커지는 거예요. 그 커지는 과정에서 우리 시흥이 있다는 사실. 이게 중요 한거죠.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시흥이 대한민국 한강을 중심을 해서 가장 자원이 많은 동네에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가 형성이 될려면은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한 자원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4거리에 모이는 거예요. 네거리에 모이게 되는데

4거리에 모이다 보니까 점점 장이 커지고 거리가 복잡해져. 그렇죠? 복잡해지니까 사람들은 아 사람이 많고 복잡하게는 하는데 통행이 불편하다. 이게 좀 불편하다. 그니까 슬그머니 변두리를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4거리는 그대로 있고 그 변두리, 종로4거리같은 경우는 저 서대문쪽, 동대문쪽, 시흥같은 경우는 저 바깥에 월곶쪽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4거리에서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 도시가 더 커지면은 그 옛날에 쓰던 4거리에서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복잡하고 또 많이 하고 돈 유통비용이 더 많이 들고 그니까 거기서는 할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변두리로 더 나가게 되는 거죠. 조금 나갔던 것이 그 다음에 더 나가게 되는 거야. 더 나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기존 4거리에서 있다가 변두리에 나갈 적에는 자본가들이 빠져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소자본 가진 사람들은 못나는 거야. 그럼 거기 그냥 살게 되는 거야. 네거리에. 그리고 자본가가 변두리로 빠져나가면 그 자본가는 또 큰 자본가가 더 빠져나가고 그리고 가운데는 나가지 못한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자연히 수준이 같은 사람들이 살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빈민들이 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빈민촌이 많이 형성이 되죠. 이렇게 해서 도시가 팽창해가는 과정이 되요.

시흥시의 현주소

제가 15년 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10년 15년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흥을 떠나지마라. 했어요. 여기 경제조건이 안 좋죠. 시흥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강남에 가있는 사람은 빨리 그거 30억자리 팔아서 시흥에 와서 단독주택사가지고 여기서 어린애들 가르치고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도 콧등으로 듣지도 않아.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변했잖아요. 시흥이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예요. 이제. 왜그러

냐면 우리는 중국에 자본이 뭐가 있어요. 땅밖에 없잖아요. 빌딩하고 가게 아무것도 없어. 지하철도 국가 꺼고 자기 거 아니라고. 그런데 시흥에는 자본이 많아. 아까 얘기했죠. 배에서 들어와서 바로 만들어서 가져가는 공장이 있어. 오래갈 거예요 아주. 그니까 거기서 산업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농업이 되있어. 먹을거리가 많아. 농업이 있죠. 공장이 있죠. 그다음에 유통거리가 교통이 좋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옛날 15년 전부터 시흥을 떠나지마라. 시흥떠나면 서울에 간다면, 강남에서 빨리 이리 옮겨라. 30억짜리 여기 가져오면은 살만큼 땅사니까 그거가지고 살아라 하는데, 다들 안 듣고 서울 가야 서울대야 간다고 거기 앉아서 있거든요. 지금두요. 강남 앞으로 생활없어요 거기. 지금이나 애들 거기서 가르키면 판사도 되고 서울대학가기 좋으니까 거기 있지만은 미래에는 안 그렇다니까요. 먹고 살수 없어서 나와야 되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안 나오고 있어. 이것이 바로 시흥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고 시흥이 좋은 데로구나. 가만히만 있어도 돈을 버는 거로구나. 첫 시초가 대학이 올까말까 하다가 온다고 하잖아요. 거기만 온다는 게 아냐. 나도 갈까 해서 또 와. 그럼 이제 종합병원 서울대학 종합병원도 그리갈까? 그리고 또 오는 거라고. 우린 땅이 넓어. 많이 있어. 바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공장수입, 해양수입, 농업수입, 그다음에 오는 사람들 포함해서 보면 여기 상당히 괜찮은 동네다. 이것이 시흥이다. 이것이 시흥의 현주소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우리 고대 시흥으로 돌아가는 거죠.

시흥군에서 시흥시로 변천

시흥군의 경계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에 우리 구역이 어디냐, 하고 영등포, 구로,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이게 이 우리 시흥군이에요. 그 다음에 안양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이 넓은 권역이 우리 시흥 옛날 시흥군에 소유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구통이로 와있는

가, 근데도 또 우린 구룡이에 와서도 시흥시라고 하죠. 시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 와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증가집이라는 사실이에요. 시흥문화의 중심이 우리 시흥시라는 사실.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되요. 그래서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 시흥은 넓고 광활하고 큰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한쪽에 작은 지역에 와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연구 해야해요. 여기서 제가 숙제를 내드리는 거예요. 저는 촌놈이니까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물리적으로 할 줄 모르고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한국사를 다시 쓰는 그런 계기가 되는 메시지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초로 발설하는 내용이에요. 아무도 거기에 관심들이 없어요. 알긴 다 알아. 그러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넓고 크고, 생각해 보세요 영등포서부터 소래까지는 시흥인데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사람의 중심지가 시흥이잖아요. 맞죠? 영등포에서 공장이 생겼잖아요 처음에? 해서 박대통령시절에 무역박람회를 구로에다 열고 별판에서 무역박람회열면서 거기서 산업의 원동력을 일으키고 공단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공단이 팽창하는 거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나이트 산업식으로 넘어오다보니까 안양으로 내려온 거예요. 안양으로 내려왔다가 또 거기서 팽창을 하니까 군포로 내려갔죠. 군포로 내려갔다 더 팽창하니까 아예 바다를 막아버리자 해서 시화호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화공단, 안산공단이 영등포하고 같은 산업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이 우리 꺼야. 우리 산업의 문화라고.

그러면 지금 처음부터 시흥의 문화를 아는 사람이면 적어도 세계무역박람회는 시흥에서 열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산업의 중심지니까. 전세계 국가로 가는 걸 우리가 시흥에서 제공해줬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 하지 않지. 우리는 산업무역박람회를 국제박람회를 열어도 우리는 자격이 있다. 왜냐면 우리는 증가집이기 때문에. 증가집에서 제사 모시잖아요. 작은집이 암만 커도 작은집에서 못가져 가는

거야. 종가집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산업박람회를 열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시흥이다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갈갈이 찢어져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을 수도 없어 너무 길어서, 찢어진 동네가 그걸 한데 합치면은 우리는 인구가 400에서 500만명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지방 직할지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지금도 문화적인 통합을 이루고 행정통합을 하자 해서 주민투표 다 나와버리면 집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꽃을 누가 튀겨줄 것이냐. 아무도 없어요. 이제 우리식구들이 젊으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되는 거거든요.

옛 시흥지역의 문화

이 동네에 신도비만 이 시흥지역에 32개가 있어요. 신도비만. 다른 거 말고. 그럼 신도비는 뭐야 바로 그 시대를 영위했던 정승들의 비문이 거의 다 라는 얘기죠. 좌의정, 우의정, 좌찬성, 우찬성, 다 그때 높은 벼슬을 한 사람들한테 그 신도비가 있는 거지 시골할아버지한테 신도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신도비(神道碑)는 죽은 사람의 평생사적(平生事蹟)을 기록하여 묘 앞에 세운 비로 조선시대 이후 관직으로 정2품 이상의 뚜렷한 공업과 학문이 뛰어나 후세의 사표(師表)가 될 때에는 군왕보다도 위대할 수 있는 일이라 하여 신도비를 세워 기리도록 하였다. 사대부의 신도비는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 무슨 얘기냐면은 32권역이나 되는 곳에 정승반열의 호족들이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들의 토지들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시흥문화를 한데 합쳐서 후손에게 넘겨 줬으면은 지금 우리는 시흥직할시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호족들이 뭐했냐. 자기네 속에서 안주하는 거야. 살만 하잖아요. 그렇게 호족에 시급을 줬다면 일대 부호를 쥐버리는 거니까 그때는 살아온 거라고.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 고대(전통시대) 시흥의 권역이 이렇게 넓었고, 이 넓은 지역의 문화를 하나로 묶어서 앞으로 시흥문화를 중심으로 한 지방간의 다시 모이는 그런 작업을 지도자들이 해줘야 된다는 거지.

해서 작은 시흥시가 아니라 큰 직할시로, 무역박람회를 우리가 여는 동네로 그렇게 해서 허면은 직할시가 뭐예요? 도의 간섭 안 받고 세금 우리가 낸 거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정부에서 할당량 더 해야 되고 기반시설도 더 해야 되니까 더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좋은데 지금도 그게 왜 안 될까? 의문 들어요. 다 그 시흥의 우리 역사는 알고 있으면서 그게 왜 안 될까, 고대(전통시대)에 32개(신도비를 만든) 호족(위인)들하고 요즘 지도자들하고 같은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해보는 거죠.

시골촌놈이라서 생각을 잘못한가요? 합치면 합칠 수도 있는데 합치면은 결국 뭐예요. 직할시 되면은, 시장이 구청장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니까 그게 안 합쳐져. 안합쳐 지니까 합치려는 기대를 할 필요도 없고 시장이 구청장으로 되면 그게 좋은 거지 하면서도 아이고 안했으면 좋겠다 할거아냐. 그니까 그걸 접고 시흥문화, 시흥문화만이라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어떠한 정서가 시흥에서 공유해야 되고 우리 시흥이 이제부터 바빠야 돼요. 시흥시가 총괄자 되니까 시흥시에서 서초나 영등포나 이런대서 우리 문화에 대한 하나의 학술단체를 움직여보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왜냐면 문화의 중심은 그 지역에 있는 그 정규하고 있는 시민들이나 소속되어 있는 겨레들이 흩어지지 않는 거 거든요. 우린 뭐 노래 한번만 불러도 외국서는 우리식구지 하고 물려들잖아요. 그게 문환대. 그니까 시흥문화를 고대문화를 우리가 개발하면서 한데 묶는 그런 학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 한번 시흥이 광활했던 그것이 왜 하나로 안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과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공부를 하죠.

고대(옛날)에도 우리 시흥에는 사상이 많았어요. 옛날에 산업이 크게 발달되기 전에는 가장 돈이 많이 움직였던 곳이 이 조선쪽 이쪽으로는 염전사업입니다. 염전이 뭐냐 소금, 판금이야 판금. 그것이 우리 시흥이 제일 생산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자산을 일으켰어요. 이 동네사람들이 다 부자들이잖아요. 원주민들 다 그렇죠? 부자들이죠? 원주민의 어머니들은 처절한 고생을 한 거야. 왜냐면 염전에 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소금을 받아와, 그때는 버스도 없잖아. 이고 집에까지 오는 거야. 왜냐면 금이니까. 집까지와서 이걸 집에다 탁 나놨다가 그 이튼 날 또 나가. 근데 우리 시흥의 중심지가 여기 장곡동이 아니야. 우리의 시흥의 중심지는 안양과 지금 관악구 시흥동 여기라고. 여기가 중심지야. 맞잖아요. 영등포서부터니까. 그리 가져 나가는거야. 거기 가서 팔아.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꼬깃꼬깃 향아리에다 모았다가 그 다음에 옆에 땅 나온다고하면 사는 거야. 어머니들이, 그러면서 재산을 늘렸어요. 그러면서 염전사업이라는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었어.

그 이전에 고려대 이전에는 그때는 교통수단이 차가 아니니까, 배로 들어오니까, 여기는 해안만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바닷가가. 그래서 여기에서 방산동 가면은 가마터가 있죠. 그래서 방산동 가마터에서 만들어지는 자기가 그것이 팔려나가고 한 거야. 그래서 포동 일대에 고려 조선 때 2000년 가까이 1000년 전에 인구가 1000호가 넘었다 했어요. 그러면 엄청 큰 동네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니까 우리가 염전이나 이런 것을 해서 고대서부터 여기는 부자동네에다가 모터가 광활하잖아. 모터가 광활해서 여기는 맨날 부자야. 부자니까 괜찮은 동네니까, 호족들이 이쪽으로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신도비가 30개나 있다. 시흥 권역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 시흥은 영등포 이남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시흥의 권역이 수리산, 그담에 관악산, 그것을 가로질러서 거기서 수원이 내려와서 그것이 양천구로 김포공항으로 해서 한강으로 빠져나가죠, 그것을 금천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옥귀 금자 날 천자. 옷을 빨래하는 그런 개울이다. 금천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천현이잖아요. 금천에서 빨래를 하고 그 물이 한강으로 빠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해안까지가 우리 시흥이야. 그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수도권에 중서부가 우리 시흥이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거죠. 그리고 자원이 아주 많다. 그래서 호족이 32명이나 신도비를 거기가 세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엄청나

게 큰 동네가 되는 거죠. 그 증거로는 강희맹 선생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강희맹선생이 『금양잡록』이라는 아까 책을 썼다고 했죠. 『금양잡록』이 뭐냐면 금천구와 양천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천구, 양천구,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수리산 발원지를 중심으로해서 저 김포공항까지. 그 일대에 농업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거죠. 그니까 여기를 포함해서 크게는 그렇게 보는 거죠.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가 시흥의 고대경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문화사상들이 우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항상 어디가든지 설명했죠.

강희맹선생님이 여기 토질이 너무 좋고 그래서 『금양잡록』이라는 책을 만들고 사실 『사숙재집』라는 책을 만들고 그랬죠. 근데 『사숙재집』이라는 책의 내용들이 고대(전통시대)에는 농서가 읽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서적들을 인용해서 우리가 그 농사를 짓고 그랬는데, 최초로 우리 농사를 강희맹선생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걸 상당히 큰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렇게해서 우리의 농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그니까 중국대륙에서 저 남서쪽에서 농사를 짓고 산지나 평야에서 농사를 짓는 농법과 우리나라 아기자기한 산이 많이 있고 이런 데가 농법이 틀린 거야. 그니까 바람이 소래산을 넘었으면은 그것이 어떻게 오류동이나 괴수동으로 그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거에서 농사를 어떻게 질 것인가. 벼폭이 넓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준 거거든요, 그니까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되는 거죠. 그것을 바로 강희맹이 만들었는데 바로 그 권역이 시흥권역이었었다 하는 거.

그니까 그 정조대왕도 여기 관심이 많으셨던 거야. 정조대왕이 시흥, 화성가기 전에는, 내가 왕이지, 임금이니까, 그 임금이 거기를 임금을 한번 시찰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신거야. 그래서 시흥을 지날 때는 절대로 그냥 안지나가고, 수원 능행사를 한다 하면은 능행사를 가기 전에 말로 다녔기 때문에 하루면 될 꺼 아냐 근데 바로 안가고 한 두어달 걸리면 저 송파로 해서 과천으로 해서 안산으로 해서 빙빙 돌아서 민정을 살피고 그렇게 하고 화성까지 가는 거거든요.(시흥을 지나간 것은 1797년 8월

행행 한 번이다. 그간도 평소 하룻 거리를 김포 장릉 전배로 이틀이 걸렸다.) 갔다가 되넘어 올 때에 수원고개 넘어오죠. 수원고개 넘어 올때 정조대왕께서는 다니면서 아버지묘도 다니다보니까 오기가 싫어서 가마가 이제 막 달려서가니까 시를 짓는 거야. ‘가마야 가마야 좀 천천히 가거라. 금방 대궐에 들어갈텐데 천천히 가거라.’ 그래서 천천히 가라고해서 거기를 더딜 지씨서 지지대고개라고 하는 거야 수원고개가. 바로 그만큼 수원고개를 넘어서면서 시흥권역이 너무 관심지역이고 자원이 풍부하고 그런 동네였었다는 것을 증명하죠,

정조대왕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드릴까요. “여기가 지세는 반반하여 만송이의 연꽃과 같고, 산세가 아기자기한 것이 연꽃과 같다.”는 거야. 보통의 물고기와 계는 돈으로 말하지를 앓았으니,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만이 많잖아요. 계곡이 옛날에는 계털이 많은 거야. 지금은 간척사업으로 없지만은 그전에는 배가 저 물왕저수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물왕리가 아니라 물항리아 병목 ‘항’자를 원래 쓴 거야. 병목처럼 이렇게 되서 거기에 배가 들어가는 거야.(물왕골(物旺谷)은 예로부터 물이 많은 고을이라 하여 ‘수다동(水多洞), 또는 ‘수동(水洞)’이라 하였고, 조선시대 바닷물이 들어와 배가 닿았다 하여 ‘항동(港谷)’이라 함- 『시흥시지명유래』)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여기는 전부 바닷가고 그래서 그냥 물고기가 나가면 그냥 고기야 전부, 그리고 계가 꽃계서 부터 참계서 부터 갈계, 논계, 없는 계 없는 거야 별판에. 그니까 너무 많으니까 돈 주고 팔게 아니라 다 잡아서 가져다 먹으라는 거야. 좃어다 저녁반찬 해먹고 하니까 여기는 계를 돈으로 계산을 안하니 참 말씀이 좋아. 정조대왕 말씀이, 그래서 사는 곳으로는 안산이 제일 좋다. 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여기가 행정개편이 안산이었으니까. 그래서 안산이 제일 좋다.

그런데 또 풍년까지 드는구나. 이 시흥은 태풍이 잘 안지나가요. 묘하게 태풍이 들어오다 보면 저 강화 이쪽으로 쏙 빠져버려. 여기 잘 안들어와요. 그러면서 광활한 평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수원이 풍부하고 가뭄이 별로 없는 동네죠. 그래서 여기는 농사가 잘 되니까 정조대왕께서

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 풍년이 들어서 좋구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서에서 제가 한마디로 인용을 한 거죠.(정조가 1797년 8월 행행에서 안산관아에 묵으면서 지은 시(詩)로 “밤에 안산의 아헌에 임어하다(夜御安山衙軒)”는 제목에 “살기는 이 안산이 가장 좋다 말하거니와 더구나 다시 대풍까지 들었음에라!(生居最說安山好 況復穰穰大有年爲)”의 시구 3~4절의 7언시다. 후에 행행별시 부제로 내렸다.)

옛 시흥지역의 생활

자 그래서 우리가 고대 시흥권이 이렇게 넓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선조들, 호족(증언자가 당시 기득권층을 지칭)들은 이걸 왜 하나의 문화로 묶지를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많이 느꼈어. 젊은 시절에 시흥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느낀 것을 아주 요약해서 짧게 말씀 드리는 거죠. 제가 젊었을 때 조금 역맛살이 있어서 돌아다니는 끼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러다가 저 중심지, 안양시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또 보고 오잖아요. 오면은 내가 왜 안양에 갔겠어요? 거기에 모든 시흥문화의 중심지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거기에 철도를 뚫었죠. 그게 어디로 지나가요? 안양으로 지나가잖아요. 안양으로 지나가고 거기가 읍지가 되잖아요. 거기가 읍지가 되면 거기가 먼저 활성화됐어요.

우리 시흥이 안양을 읍지로 해서 군청을 거기다 지어야겠다해서 옛날 시흥군청이 안양역전, 역 앞에 시흥군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청에 볼 일도 볼 겸, 또 이렇게 할 겸, 그러다보니까 전부 역 앞으로 갈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교류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30대 때 안양문화원에 시흥내 안양문화원이니까, 젊은 시절에 제가 이제 문화원에 있었다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나는 이 동네 잘 없어요. 차가 오면 3시간이야. 한대 놓쳤는데 건너뛰면 3시간이야. 3시간을 기다릴려면 그냥 걸어오는

게 낫죠. 그니까 안양서 집에까지 걸어와. 혼자서 안 걸어오지. 왜 그러냐면 친구하고 같이 나가니까. 동네 이장, 반장이 내 친구 아냐. 같이 술도 먹고 이려고 걸어오면은 여기오면은 1시간 50분에서 2시간 걸려. 그러면 3시간 걸리는 거보다 낫죠. 그렇게 해서 여기로 와요. 그니까 우리의 문화의 시흥문화의 중심지는 안양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안양이 중심인데, 왜 안양이 시흥시가 안됐느냐 물으세요. 왜 시흥시가 안됐어. 당연히 거기 역 앞이 군청인 것을. 거기가 시흥시청이 거기 들어서야지. 그런데 그렇게 안 되죠. 안된 이유는 모르겠어 나도.(1914년 일제 군면통폐합은 조선의 기존 행정체계를 무시하고 광역화로 이루어져 식민지 지배의 효율성을 기한 것으로 영등포에 있던 군청사는 광복 후 안양으로 이전하였다. 안양은 전통시대 금천과 과천 경내였으므로 고려 때 읍내에 위치한 사찰 ‘안양사’를 통해 ‘안양’이라는 명칭으로 독자화를 추구한 것이다.)

어쨌든 젊은 시절에는 아쉬운 거예요. 거기서 착 걸어서 집에까지 2시간을 오는데 어떻게 하다 차를 타죠. 차를 타면 옛날엔 차장이 있는데 차장이 어디서 내리세요, 하면은 이층집 앞에서 내려주세요 한다고.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이층집도 안양에 없었다는 얘기에요. 전부 다 단층이고, 하나가 이층집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층집 앞에 내리세요 그런다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아쉬움을 그 목감사거리 있죠, 요 동네는 목감사거리가 원조예요. 아까 얘기한 쌀가게, 이밭소, 거기 있는 거니까 거기서 내려. 내리면 거기서 열심히 사는 그때 이제 젊었어 우리가 보기엔 아주 할머닌데, 쌍둥엄마라고 있었어. 쌍둥엄마네 집에 거기가 대포집이야. 거기서 대포 한잔 딱 하거, 정보 좀 듣고 그러고 집에 오는 거야.

그니까 안양서 와서 쌍둥엄마네 집에서 막걸리 한잔 안 먹고 왔으면 이 동네 사람이 아냐. 그니까 이 동네 노인들보고 물어보면 다 알아. 쌍둥네집 아세요? 죄 안다고. 이 동네가 그런 아주 시골동네야. 그런데 시흥시청이 안양에 없잖아.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은 호족들이 내가 보기에 너무 자기 안주해서 자기들 호강 속에서 아무 관심도 없었던 거야.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적어도 우리 시흥시청은 안양역

앞에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등포까지 우리 관할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럼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할시에서 우리세금, 우리가 맘대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큰 동네 사는 문화권인데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쉽고, 그렇게 안 되어있지만은 우리가 문화적으로는 하나의 중지부를 만들어야 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큰 과제가 우리 식구들한테 앞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흥은 아쉽게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많이 갈라져 나간 동네다.(일제 때 이루어진 광역 행정개편은 이후 전국의 많은 지역들이 지역의 실정에 맞게 분화하였고 특히 수도권은 신도시 등이 개발되면서 더욱 가속화하였다.) 그걸 얘기하고서, 갈라졌지만은 아 중국 사람도 뭐 자기네 권역을 넓히려고 애를 쓰잖아. 우리도 해야지. 우리도 시흥의 영토를 넓혀야죠. 우리 문화속으로 흡수해야 하는 겁니다. 미래에 지방자치의 승패는 아마 문화의 중심을 어디에서 잡느냐에 따라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다른 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흥은 그렇게 그냥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주장할 거리가 많죠. 아니 32개의 신도비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기라성같이 움직인 인물들이라고, 박동량 선생이라든가, 하연 선생이라든가, 장유 선생, 강희맹 선생, 강희안 선생, 시대를 좌우하는 그런 훌륭한 분들의 엄청난 학술적인 문화자산이 있는 거거든.

강희맹 선생의 일화

강희맹(정조)이 수원 정자동에서 현릉원에 가기 전에 그 지역을 시찰을 하다가 그때에 이곳에 와서 과거를 치른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도 읍지에 (강희맹)연꽃을 심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주제로 해가지고 과거를 봐서 거기서 벼슬을 올린 일들이 있거든요(강희맹은 고사고 그 고사를 별시 시제로 낸 사람은 정조다). 그만큼 여기 애착이 있는거야. 그리고 우리는 조정에 준 게 많아. 이 엄청난 호족들이 있으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곡물이 소작농들의 소작료를 제외하고는 다 호족에게 들어 간거야.

그걸 가지고 저 지방이고 어디고 힘든 동네 못사는 동네 전부 보내 준거야. 그 자산이 여기서부터 나오니까 정조대왕께서도 여기에 특별히 애착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2개 신도비에 나오는 기라성 같은 인물들의 선양사업을 할려면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해. 그러나 기왕 쪼개져 나갔으니 어떻게 해. 쪼개져 나간 건 그거고 내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선 추천하고 싶은 인물은 바로 강희맹 선생이에요. 또 하연 선생. 이런 분들을 추천해주고 싶어요. 특히 농업에 대혁명을 이룩한 강희맹 선생님은 농학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철저히 성리학자에 실천가예요. 그분은 이이 선생이나 퇴계 선생처럼 성리학의 학술을 논리적으로 저술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성리학을 몸소 실천하는 분이예요. 그래서 실천가로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여러 임금을 섬기잖아요. 여러 임금을 섬기고 그분이 이제 우리 시흥의 문화를 만들어 준거죠.

강희맹 선생님에 대해서 다 아시잖아요. 웬만한 분들. 그렇지만 이제 시흥에 대명사가 나오는 거니까 이야기를 하죠. 강희맹 선생님의 집이 저기 서소문 옆천교 있는 데예요. 옆천교. 옛날엔 대궐에 드나들어야 하니까 멀리 거기 있었나봐. 그러나 시골은 이쪽으로 있는 거죠. 옆천교에서 사셨는데 그분이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리학의 실천가라고 했잖아요. 실천가기 때문에 성격이 무난해. 무난하기 때문에 외관직을 별로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조정에서 주로 임금을 섬기고 저술도 많이 했죠. 책도 많이 냈죠. 그러면 농학자가 아님에서 불구하고 또 그분이 농학에 대한 책을 또 만들었잖아요. 그분이 또 예술가예요. 예술가가 되서 또 그림, 또 형님이 예술하는 분인데 그분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좀 아쉽죠. 강희맹 선생이 그 예술성이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었어요. 저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옆천교에 가서 사셨는데 그분은 그 집안에 보면 지금 확인을 못했어. 가보질 못했는데, 소나무가 있었더라요. 그래서 그 소나무가 정3품 소나무라고 했어요. 벼슬을 뵈어요(연산군 고사). 정3품벼슬을 뵈어서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러면 그 소나무

에 정3품 대사를 뵈는 것과 똑같이 정중히 예를 갖추고 말을 타고 가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럼 왜 정3품의 벼슬을 좇냐하면 그만큼 우리 지역의 강희맹 선생님의 인품이 훌륭하시고 여러 임금을 섬길 정도로 무난한 분이시고, 그러다보니까 그 부인이 강희맹 선생님의 부인이 또 훌륭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강희맹 선생님 부인이 그 연산군이 어렸을 때 돌도 안지났을 때에 병이 난 거예요. 병이 났는데 그때 그 왕자가 병이나면 치료를 보내잖아요. 치료를 보내는데 그 품계 높은 분들의 집안을 다 확인한 결과, 강희맹 선생님 덕이 제일 낫다. 가자. 그래서 강희맹 선생님 덕으로 그 치료를 온 거죠. 여행을. 그래서 한살도 안됐는데 연산군이 장난기가 좀 심하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실타래를 삼킨 거야 어려서. 실타래를 삼키니까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집안에 그 식솔들이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연산군을 뉘어놓고서는 그걸 끄내느냐고 난리치고 있는데, 연락을 받고 이제 강희맹 선생님 부인이 온 거야. 와서 보니까 애를 뉘어놓고 난리를 치는 거지 그래서 호통을 치는 거지. 그 실타래를 그 왕자를 그러커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변쩍 들고 거꾸로 들고서 이제 뺨을 이렇게 하면서 실타래를 끄집어 냈다 그래요. 그니까 살린 거지.

옛날 사람 같으면 자기가 살렸으니까 자량을 할꺼야. 그런데 거기서 하인들이 마님, 우리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셨습니다. 감사하고 있는데 강희맹 선생님 부인이 식솔들한테 입단속을 시킨 거야. 이번일은 없었던 거 모르는 일로 해라. 왜냐하면 반드시 어떤 일에는 공과가 있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이 공을 지었으면 누군가가 과과 있는 것이다. 이런 거야. 즉 너희들이 다친다 이거지. 그니까 아예 입단속하고 말하지 마라. 자기 식솔들 살릴려고.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쉬쉬했지만 그 말이 안 나가? 그 어질고 착하신 부인의 얘기가 나왔지. 그러니 임금이 안 거야. 그래가지고 임금이 그냥 감사하다고 선물을 보내 주고 그러고 강희맹 선생님 부인이 아파서, 강희맹부인이 이제 안씨죠? 안씨일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이제 제가 기억이 없어서.(연산군이 어

려서 안씨 부인에 맡겨져 피접한 일화)

그래서 연산군이 포악하기는 했지만은 나중에 안씨 부인을 흠모하면서 저기 소나무에다가 작위를 줬다 하는 얘긴데, 하면서 제가 오늘 말이 길었는데 오늘 여기서 요약을 하기로 하고, 다음번에 그 가서 더 자세한 얘기를 듣기로 하고 그다음에 오늘 저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리 시흥의 문화권권역,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미래에 우리가 연구해서 취합해야할 숙제이고 그래서 우리는 시흥직할시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종가집 시흥시라는 것.

양요환 (사, 새오름포럼이사장, 경기도노인전문시흥병원장, 1947년생)

시흥의 복지와 미래비전



성장과정과 강화도 생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시흥이라는 도시에 제 고향이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시흥을 제 고향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향이 이북이에요. 세 살 때 그야말로 뻘쓰 바람에 기저귀차고 내려 왔습니다. 정말로 총알이 날라 오니까 내려왔습니다. 기억은 없어요. 기억은 대전 중구인가 피난길 이..부터 기억이 나요. 조금. 그리고 부산 가서 피난처 가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까지 다니다가 서울로 와서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돼서는 강화도라는 곳에 가서 삼년을 했어요. 강화도에 가서 내가 있으니까 아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이 왜 강화도 땅에 와서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왔겠나. 그래가지고 내가 뭐 수술 좀 하자고 하면 (웃으며 고개 절레). 근데 삼년 째 되던 해에는 아 우 내가 못하는 수술 저 대학병원 가가지고 제발 나보고 해달라고 그런 사람도 있지 뭐,

삼년 있다가 거길 내가 떠나왔습니다. 왜 떠나왔느냐 하면 그곳은 연

세대학교의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있었어요. 우리나라 지역사회의회라고 하는 그 시범학교였어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범사업을 거기서 했어요. 거기서만 한 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6개 지구에서. 그중에 하나로. 근데 그 지역이 특별한 이유가 뭐냐하면, 독일. 독일이란 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독일이란 나라는 (전범)국가거든요 제일처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나쁜 짓 한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후진국에 지역개발사업을 하게 해줍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강화도에 병원도 짓고 보건이라든 걸 가지고 학생들 3,4학년 학생들을 농촌지역사회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거기를 제가 3년을 이제 하면서 있었는데, 거기는 연세대학교 출신들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거기 교수님이 훌륭한 분이 계셔서 제가 거기서 있었는데, 왜냐하면 계속 의사를 보충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누군가 연세대학 사람들이 와야 계속 이렇게.. 저는 삼년만 하고..그러고서 내가 봉사할 곳을 찾아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업할 자리, 봉사할 곳을 찾은 게 아니라 고향으로 살 자리를 찾았어요. 내가 정말 평생을 의원을 하면서 고향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 옆집에 개인택시기사가 살았는데 제가 이제 몇 군데 이렇게.. 그분께 부탁하기 전에 우리 대학교 후배들, 지역사회의회라든가 농촌 그 당시에 다 무의촌이 많습니다. 우리 의과대학 내가 66년도에 의과대학을 들어갔으니까. 그 때는 전국에 뭐 다 무의촌이 많았어요.

서울에만 5개 의과대학이 있었고, 지역에는 전남대, 부산대, 동국대. 3개 밖에 없었어요. 무수히 많아졌죠. 그래서 그런 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구별 그 지역사회니까 같이 연루됐던 씨클(사회의학연구회, '사의연')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은씨클이 돼가지고 거기서 간첩 혐의로 나와 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고생을 좀 했습니다.(민청학련 사건) 보니까 사회에 관심이 있고 뭘 캐내고 문제점을 찾아가고 하는 걸 보는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뭐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 후배 애들한테, 내가 그 선배님 몇이서 같이, 지역사회를 위한, 실천할 곳을 이런, 이런, 이런 추천할 만한 곳 해가지고 서베이(선정)를 먼저 해라. 돈을 좀 줬

어요. 8군데를 서베이를 해가지고 나한테 왔어요. 택시기사한테 일요일날 갑시다 하고 그분 걸 타고 이제 같이 일했던 내과의사도 같이. 그 지역을 8군데를 다 다녀왔어요.

제정구와의 만남과 의료봉사(시흥정착)

이 지역(시흥)을 들어왔는데 이 지역을 내가 지원한 거는 제정구 라는 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어요. 넣어봤는데 그때 그 우리 부대에는 소위 노동운동이 우리사회의 진보를 대변할 때였어요. 그니까 그런 노동자들이 세상을 진보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젊은 학생들은 믿을 때였어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봤더니 학을 뺐어요. 시청에~. 노동운동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악마진 측면도 있어요. 사람들 서로 의심하게 하고 이렇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로 공단지역을 많이 추천했다고요. 그래서 안산도 가보고. 주안리 공단도 가보고.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는데. 역시 여기가 맘에 들더라고. 제정구라는 사람이 끌렸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정구는 제가 66년도 입학동기예요. 의과대학은 본과 4학년 의과대학에서 공부하지만, 서울대학은 문이과 대학에서 기초라고 2년 동안 공부 하는 게 있었어요. 같이 문이들의 정치학 학생 사회학 학생 다 같이 어울려서 이제 공부하고.

그때 나는 정치학 쪽의 제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정치학도들은 뭔가 좀 이상하다고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치학도는 이렇게 뭐 사상 운동하던 친구들이 나중에 보면 안기부 들어가고 있고. 뭐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정치학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야심이 지나친 거에 일반적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다가 의과대학에 올라가서 내가 의사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일까. 우리 선배들이 한 그런 행태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거의 대부분의 그 서울대학 의대를 나온 선배들이 가

있는 곳을 보면 물론 지금 돌아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서는 80%가 미국 가서 있었어요.

한국 서울대학교는 등록금이 되게 쪼았거든요. 내가 16,600원인가 때 들어갔으니까. 입학금이랑 등록금합해서. 제가 졸업할 때는 30,000원인가 그랬어요. 다른 학교는 그거보다 한 서너배는 했어요. 그렇게 국가가 해서 길러줬는데 그 사람들이 다 미국에 가버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교과서를 보니까 저는 외과 공부를 했는데, 외과 책이 그 때 우리 서울대학병원 저희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은 많은 경우가 결핵과 장티푸스. 저희병동에. 결핵도 막 척추에 결핵이 걸려가지고 척추가 막 썩어나가지고 터져 나와서 고름이. 그러면 기브스를 온몸에 기브스를 해가지고 고름을 빼내고. 그런데 외과책에 결핵은 챕터도 하나 짜져있지가 않아요. 미국에 외래 큰 무슨 결핵서는 무슨 뭐 복막염 결핵서인지 가르칠 이유가 없죠 뭐 환자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환자가 차고 넘치는데 몇 페이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논문은 비만을 어떻게 수술하는가. 요즘은 문제가 되지만 우리 때는 비만이라니 피골이 상접해서 비만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비만을 어떻게 수술하는가. 그 다음에 유방 축소수술. 얼마 전에 골프선수가 유방이 하도 커가지고 잘 안 맞아서 수술을 하고서 우승을 했다. 이러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아 유방 축소수술도 이만큼이나 되요. 교과서가. 그런 거 가지고 공부했으니 미국 갈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못 살줄 알았겠죠. 나중에 졸업 30년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선배들 만나니까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잘 살 줄 몰랐다고. 지금은 뭐 집 하나 가지고 와봐야 안되니까 그냥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쓸쓸하니까. 그니까 이거는 뭔가가 잘못 된 거죠.

우리나라에는 무의촌이 넘치는데. 국가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인재를 양성해냈는데 다 미국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무의촌 봉사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같은 친구들과하고 사회를 위한 것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판자촌에.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유명해졌죠? 두레교회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 아세요? 최근에 그 뉴라이트 운동으로 정치권에

풍파도 일으킨 분인데. 그 당시에는 젊은 선두자로서 저 한양대학교 쪽방촌에 활빈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가난한사람들하고 상대를 했어요. 그 김진홍 목사님이 의과대학을 찾아와가지고 우리 환자가 많은데 학생들 진료를 주말에 좀 와달라 해가지고 제가 그 팀장이 되가지고 우리 학회 사람들이 주말에는 좀 하게 됐고. 여기에 한철 하는 게 의료봉사가 아니다. 주말마다 가자. 그리고 나중에는 주말마다 가는 것도 아니다. 돌아가면서 살자. 그래서 판자촌에서 돌아가면서 사는데 급기야 제정구를 다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뭐야 녀마주이를 하고 있더라고. 어 그때 내가 다시 봤지. 아 정치학도 제정구가 아니라 사회운동가 제정구로서 보고, 아 그럼 나하고 뜻이 배짱이 맞는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거기서 만나게 되니까. 요가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내가 여기 개업자리 좀 찾으려고 하는데 여기 어때? 아~여기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래. 막 꼬셔요 막 꼬실 수밖에.

다들 그때는 본장이 마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오시라 그럴 때였고. 그때에는 병원이 여기 지은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새로할라고 막 그랬던거 있었고. 내가보기에 뭐 그렇게 뭐 양심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 같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보면. 그사람들은 바로 가버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내가 후배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이제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하~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신천 연합병원을 이제 강화도에 같이 일했던게 있었으니까 바로 산부인과 전문의를 일단 올라오라 하고. 지금 신천연합병원에 이사장으로 있죠? 병원을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제정구가 사방을 다니면서 판 철거 투쟁을 하는데 그 철거투쟁을 할 때, 그 당시에 노동복이 없던 건 아니에요. 그 직장복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지역복은 없었죠. 그러니까 번듯한 직장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여기 없으니까 의료보험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다 뭐 보험도 없는 동네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판자촌 투쟁하고 뭐 철거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보험이 있겠어요. 거기서 뭘로 맞은 사람, 불지르고 이렇게 분신한 사람, 갑자기 암이 발견된 사람.. 전

부 택시타고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시기사가 서울서부터 오면서 아니 이 시골에 무슨 병원이 있길래 여기까지 찾아온다고. 그러지만 뭐 제가 할 수 없는 거는 동료들이랑 같이해서 수술도 하고. 공단에 지금 뭐 유명한 교수, 의사가 된 친구들도 오라고 해가지고 성형수술도 해주고. 그렇게 이제 연합병원을 조그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공단생기면서 시화연합 의원을 한분 만나서 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근데 그거 망했어요. 잘 안됐어요. 그 다음에 그 인천에서 계속 오는 거예요 환자들이 인천에 그 근로자들이 많고 그때는 뭐 저기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다치거나 하면 지금처럼 산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진정서도 제대로 안써주고. 또 뭐 폭행을 당하거나 해도 뭐 노동조사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진단서를 안써주는 거예요. 의사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일로 넘어옵니다. 전교조선생님들의 정기검진 기관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뭐 수몰한 사람들. 위장취업해가지고. 그런사람들이 어디 아프면. 애기낳는 사람들도 우리병원와가지고. 형사들이 들이 닥쳐서 연행해가는 경우도 있었고. 상당히 양심적인 진료를 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양심을 지키면서 살면 굶어죽지 않고 오히려 저처럼 성공한다. (웃음) 양심이 돈이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같죠?

신천연합병원과 녹향병원 설립

신천연합 의원이 병원이 되고 종합병원이 될 때, 법인으로 하자. 그리고 재단 이름을 할 때 녹향이라고 짓습니다. 녹향 녹차. 그래서 그 녹차에 파랗게 물든, 초록색으로 물든 사람이 되자. 고향을 찾는 운동. 푸른 고향. 녹향. 그랬더니 어떤 공무원이 어우, 녹향운동을 한번 합시다. 푸른 고향. 고향을 찾는 운동. 고향을, 고향을 사는 운동. 고향을 찾는 운동. 고향으로 만드는 운동. 근데 그 녹향 이라고 하는 이름은 내가 고등학교 1학년때 YMCA의 그 서울 농재생이 주축으로 브나로드운동이라고 해서 농촌 속으로 농민 속으로 농촌으로..그 농촌 계몽활동을 많이 했어요. 사회

문화원 가서.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적인 정치인사들은 이제 자생적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그걸 많이 때려잡았어요. 그게 무슨 뭐 사주를 받고 한 게 아니고 가난한 농민 속으로 들어가자는게 이제 공산주의의 사상과 일치한다. 물론 국가는 그런걸 경계할 필요가 있겠죠. 북한과 맞닿아 있는 입장에서. 그렇지만 그 순수한 청년들의 그러한 그 부분을 길러주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그거를 사상적으로 터치를, 짜르고. 이제. 저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예방의학교시에서 낙오자가 되가지고 거기 나오고, 연세대학 쪽에 받아준다고 했다가 그것도 못하게 됐고. 그래가지고 강화도 사업은 내가 지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강화도 사업을 하게 된 건데. 모르겠어요. 근데 어차피 들판에 나간 의사라는 것입니다. 들판에 나간 의사. 예방의학 그 의료 관리를 하려고 했어요. 사회과학 이거거든요. 그 의료가 사회과학입니다.

의료봉사의 계기와 활동

여러분들이 의료는 물론 생물학적인 것이 중요하지요. 병을 알아내고, 뭐 이렇게 하고, 해부하고, 생물학적인 것이지만 사실 많은 부분의 것이 사회과학적 것이고. 현재 의학이 발달했지만 (늘어나는)수명은 평균 4년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습관, 생활습관을 잘 하면 13년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콩고에 유럽 사람들이 전에 그 식민지 수탈을 해가지고 당시에 그렇게 해서 종합병원 크게 멋있는 걸 세웠어요. 콩고인들의 건강이 좋아졌겠습니까, 그대로이겠습니까. 병원은 잘되지만 건강상태는 그대로예요. 교사를 파견했어요. 건강을 생활화하게 하고 위생을 지키게 하고, 화장실을 고치고. 그랬더니 좋아지는 거예요. 그건 의료는 병원에서 약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학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의사들이 전부 점 빼고 성형수술하고 다니죠? 산부인과 의사, 외과의사 할 게 없어서 그래요. 나라에 의료보험은요 의료수술 못하죠, 의사들은 죽겠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의료가 다 왜곡

되어 버렸어요. 상업적으로 다 왜곡되어가지고 거기다 돈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진짜 의사를 찾는 데가 다른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라는 것이 바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양쪽 꽃밭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우리 미생물학 우리 교수님의 정년퇴임사 거기에 제가 확 반해가지고. 일반대학..사회의학이죠. 사회학자가 들어가면 옛날에 다 알거지가 됐어요 요즘에 사회의학교실이 생겼어요.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예방의학이라고 했어요. 지역사회니까. 사회학자가 소셜 메디슨이에요 사실은. 그걸 사회적, 의료의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 개발과 함께 지역사회 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신천을 알아보고 종합병원 건설...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제가 녹향이라고 하는 농촌 지도자를 꿈꾸는 그 서울농대생 선배들의 그 모임에 고등학교 학생으로 ..고등학교 1학년때. 구밀리라고 여러분들 아시려나, 구밀리 저 분교이기 때문에 한참 신문에 났었는데. 구밀리분교가 폐교된다고. 그 구밀리라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갔더니, 제가 호랑이 담배 물던 시절 정말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에서 그 구밀리에 호랑이 잡으러 포수를 파견해가지고 호랑이 잡으러 다닌다. 근데 저 산위에 호랑이굴까지 화재가 나가지고 소가 밭을 나가는데. 저기 산 위에 보여요 이렇게. 근데 호랑이가 소를 잡아갔대.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포수를 파견해가지고 지금 농촌봉사를 왔는데. 그러니까 호랑이 담배먹던 시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웃음). 거기서 농촌 봉사를 하면서 이제 콩밭을 매는데, 산골 비탈에 콩밭이 한 데 펼쳐 있는데 고무신 신고 근데 고무신에 물이 새가지고 척척 척척 하는데 저 가다보니까 무좀에, 그래가지고 발가락이 다 쓸렸어요. 근데 의사가 없어요. 이장님이 의사더라고. 그래 농약을 팍 발라주더라고. 근데 그게 그냥 덧나가지고 막 그래서, 선배들이 옆고서 꼬불꼬불 길을 내려오는.. 그러면서 이제 선배들이 너, 의과대학가서 의사가 되라. 어 나 의사가 되리라. 신기하더라고 고등학교 1학년때 의사가 되어 되겠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가려면.

근데 대학가 보니까 애들이, 그런 생각하는 애들이 없어. 뭐 무의존

문제를 뭘 읽어. 다들 미팅하기 바빠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미팅 주선 할게. 까까머리 아직 자라지도 않았는데 이대 이대약대가가지고 실험실 들어가서 미팅하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하 다들 웃더라고 교수도. 왜냐하면 학생들을 좀 모아가지고 좀 뽑아야 하니까. 거기서 이제 교수님들한테 사회의학이라는 것을 소개받아가지고. 아 내가 고민하던 것이 이 사회의 학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사회의회 모임을 만들고, 그 학생들이 그대로 이제 농촌 봉사 하고 체험하고 그런 것도 하고. 그니까 그렇게 그 의식이 있는 후배들이 계속 붙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제일 교포 학생이 하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간첩이라는 겁니다. 근데 간첩 신고를 안했다고 이제 제가 감옥생활도 했어요.(웃음) 그래서 사회안전부에 걸려가지고 여기 이제 병원 할때도 굉장히 애먹었는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뭐 똑같습니다. 정치할 생각 없고, 제가 정치학도를 만났을 때 싫어했고, 판자촌가서 일하는거 내가 좋아했고. 그래서 여기 같이 그 이주해 왔길래 아 같이 살 만한 친구다. 좋아했고. 그때 그 친구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작은 복음자리 마을 가서 병원을 개업할 수 없지는 않냐. 동네서 사는데 이 동네서. 그럴 듯한데 가서 해야지. 교통도 좀 편한데 가서. 그때는 뭐 건물도 없었어요. 거기는 이제 소셜 워크. 우리가 돈을 얻어 그 사람들 집을 얻고 그 사람들을 의료보험 조합 같은 비슷한 것도 만들어갔어요. 우리 시에서 같이 해서 만들어도 보고. 그런 짓을 하면서 인천에서도 우리 요구가 있고, 또 시화공단 생긴데서 시화연합에서도 만들고. 돈보다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인천의원 만들어서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후배들 개업 시키고. 인천의원은 지금도 있고. 그 당시 노동자들이 갈 데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그 되고. 산업 보건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송면군의 수는 중독사건, 아....정말 시골에서 그 공장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다고 올라와가지고 수는 그 온도계 만드는데 그걸 마셔가지고 수는 먹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증기로 마시면 다 큰일나요 중독이 되가지고 미쳐버리는거죠.

이 제가 들어와서 서울이라는 것 보니까. 제가 이쪽(시흥)에 들어올때만 해도 한 6%, 8%밖에 안된다고 그 토백이라는 분들이. 지금은 이제 여기서 다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다 그런 사람 들이죠. 이제 대부분 다. 그 여기서 제정구가 이제 국회의원도 되고 나도 환경운동연합 초대 이사장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병원도 커지고. 양심대로 하니까 병원도 더 잘되는 거예요. 이제 좀 사는 것 같았어요. 어려운 사람들 전국에서 다 와서도 수술해주고. 인천이나 뭐 이런데서도 아우 이견 안타까운데 돈이 없대요 하면 나한테 다 후배들이 연락해서 수술하고 막 그랬어요. 또 외국인 노동자는 척추가 다 나갔어요. 대학병원에서도 잘 못하는 수술이에요. 후배들이 미국 유학가기 전에 대기하는 놈이 있어 척추를 잘 만들어서 수술하고.

(중략)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 강화에 있으면서 저축해뒀죠. 제대로 설계를 다 완성했죠. 그래서 신천연합의원 만들었죠. 그런 다음 병원 지었죠. 그 옆에 내가 또 종합병원으로 만들었죠. 시화연합의원 만들었죠. 인천의원, 녹향 메디칼 만들었죠. 시흥병원, 노인전문 시흥병원 만들었죠.

6개 만들어서 내 이름으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이름으로 된 게 없어(웃음). 지금 하고 있는 건 국가 이름으로 된 거고.

고향의 상실, 정서의 상실

내가 뭘 생각할 때는 꿈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뭐 여기서만 가지고도 즐겁고.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안 그렇잖아요. 빨리 빨리 성장하고 싶고. 그러니 힘든거예요. 아이 아버님 우리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25년 왔어요. 대학교를 어떻게 쉬냐고. 요새 애들 어떻게 교육하라고 그러는지. 근데 저는 그 녹향의 꿈을 계속 주제로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푸른 고향의 꿈. 근데 내일모레 칠십인데 아직도 계속 꿈을 꾸고 있어요. 현대

인이 문제가 많죠. 정서가 불안하고 자살율도 많고. 우리나라는

지금 제2의 자살율..아이들도 정서가 불안하고.. 이혼율도 높고.. 가정이 평화롭지가 않아요. 현재 뭐 물질은 굶주린 사람이 별로 없고 좋은 옷 입고, 아파트 다 들어오고.. 옛날보다 낫죠. 앞으로야 뭐 그렇지만. 그걸 이제 제가 찾았어요.

고향의 상실이다. 이렇게 얘길 해요. 고향의 상실. 물리적인 고향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고향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땅, 있는 곳과 긴밀한 유착. 그죠?

지금 우리가 다 땅에 관심을 가지고 사나요, 우리는 그래도 땅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 뒷산 있는데, 아 공기좋다. 우리 여기 이사오길 잘했다. 대부분의 도시가 콘크리트 구조물, 도시에 매력적인 것들이 있죠. 매력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즐기면서 사는데. 정말 우리가 자연과 땅과 분간이 안가요. 조화가 된다는 거죠. 사람간의 유대. 유대감은 있죠. 자꾸 사회가 발달하고 자동기계가 발달하면서 네트워크를 하면서 먹고 살죠. 여기서 내가 새오름포럼을 10년째 하고 있는데 사업하려고 온 사람이 절반이야. 같이 하려면 꿈을 꾸야 하는데 꿈은 무슨 개꿈이야. 모두를 위한 거죠. 인간의 유대도 드라이해요. 가족 간의 유대도 드라이해요. 내가 노인병원장하고 있는데 상대가 이상해. 가족 이라는 게. 유대가 다 깨어진 게. 남보다 더해. 이러니 지금 찾을 수밖에요. 고향을 찾아야 되요 고향을.

그래서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는 이 시대의 병폐는 고향 상실이에요. 우리는 고향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것은 자연과 나, 사람, 사물 이 사방이 노는 거예요. 이 즐거움을 찾아야 해요. 사람을 만나니까 즐거움이 있을 거고. 소통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럼 서로 계약 관계 이제 그게 아니고.

이게 왜..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 다들 통합니다. 우리가 이거 물질을 얻기위해 너무 스피드하게 사는거예요. GNP 얼마나. 요즘 참 사람이 속지 않죠. 우리나라 GNP가 겨우 몇백불에서 시작해가지고 GNP 5,000불

되면 뭐 어떻게 된다. 10,000불 되면 맨날 그걸로 이제 사람들 이렇게 뭐.. 정치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막 키웠죠. 그 사람들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가 워낙 못사니까. 해야죠 근데 하면서 잊어버린 것도 챙겼어야죠. 그죠? 그 스피드하게 가면서 그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농촌이 다 깨어지고 사람들 사이가 다 깨어지고 애들이 망가지고 하는걸 보면서 갓았어야죠. 그죠?

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남이 이렇게 하는 걸 고적 봐주는 사람이 이렇게 탐사를 가는데 그 요즘으로 얘기하면 짐꾼들. 한 닷새를 막 가더니 끔찍않고 있는거야. 자기들끼리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모여서 이려고 있어. 빨리 가야되는데 이렇게 급한데. 아 돈 더 줄게. 아 됐대. 촌것이, 빨리 일어나. 안 움직여. 이틀을 거기서 그냥 자기들끼리 둘러앉아가지고 이틀이 딱 되니까 딱 일어나더니.. 나중에 끝나고 나서 너희들 왜 그랬어? 너무 빨리가서 우리영혼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야. 영혼이 따라오는 걸 기다려가지고 같이 가야되는 거야. 그런게 그냥 그러는게 아니라고. 고고학적으로 보면. 인디안들도 막 말 타고 가다가 한참 뒤돌아보고 또 가고.. 영혼을 띠어놓지 않기 위해서. 그니까 이 시대에 불행이라고 하는 것, 문명의 병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혼을 잃어 버렸다는 것이죠. 영혼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깐 굉장히 신학적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그런거죠? 뇌가 좀 적응할 시간을 가져야하는 것이죠. 우리 정서나 이제, 뇌 기능이나 이런 게 세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하는데 그거 안주고 막 가니까 놀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내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공이라는 말 알죠? 내공이라는 말이 바로 용이 없다는 말이랑 통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공이 있다. 든든하다. 흔들림이 없고.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허약해요 걸으로는 대단해보이지만. 누가 잘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속에는 불안과 가족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그렇게 살아온 거 보면 저도 몇 번 놀란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노인네가 매일 아침마다 이러고 이러면 종이 펴가지고 읽고서 샤워시작하고 이런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종교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이게 뭐 시가 장시인데 뭐 아주 일반적인 도리 같은 거예요. 이웃과 잘 지내고 부모를 잘 섬기고, 그런거 읽어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식하고 그러지만 흔들림 없이 잘 사는거죠. 근데 우린 그런 것만도 없다는 말이에요.

녹향(綠鄉)의 꿈과 비전

저는 지금까지 저는 지금 행복해요 녹향이라는 것을 완전히 찾지는 못했어요 녹향이라는 꿈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이런, 노인 병원에서는 이뤘어요. 내가 여기 오늘 오기 전에 그래도 뭐 황실수설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냥 뭐 지나온 얘기 하면 된다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종이에 좀 적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면 뒷산이 바로 뒷산이 이렇게 보이고, 가사미산(범배산이다 일제가 창지개명(創地改名) 함)이 있는데, 가사미산 앞에 이렇게 큰 집은 운수대통한다고 되어있대요. 나는 아마 운수대통할거예요. 옥상에 토종닭도 기르고 금계도, 배추도 기르고 노인들이 좋아하셔요.

그렇게 막 열심히 만들었어요 꾸몄어요. 병원이니까 예산을 뭐 내가 원장이 뭐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잖아요. 내가 뭐 나쁜짓 하는거 아니니까.

고향을 만들어주겠다. 노인들이 정말 고향을 떠나서 다 살잖아요 그죠? 고향에서 지금 막 늙어서 떠나 온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고향에서 죽겠다는데도 자식이 가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 좋은데 있으니까 오시라고. 또는 이미 일찍 떠나서 전전 하다가 고향에 내려 가서 죽을순 없조 소원은 그건데. 그래서 우리 병원 읍니다. 이것이 녹향이에요. 푸른고향. 그래도 오늘 아침에 노인네 둘이 이제 지낼만하세요? (아니) 집에 가고 싶죠? (응) 집에 가봤자 동무할 사람도 없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은 그래

요. 고향이니까. 그분들에게 정말내가 아 이게 고향이구나 고향에서 지내는 기분이다 이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걸 만들어가는데. 저는 그러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아 여기서도 그래도 내가 녹향을 이루었다.

이거를 제가 여기서 한 십여년 까지..19년간 신천연합병원 원장을 했는데요 제가. 제가 의원 병원 종합병원을 하면서. 근데, 신천연합병원을 가서 보면 내가 뜻하는 것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돈이 잘 벌렸어요. 양심적으로 이렇게 해도. 양심적이라는게 몇 개 안되요. 의료보험비 받으라는 데로 다 받는 거예요. 꼭 할 정산만 하고 꼭 할 수술만 하고. 먹을 필요 없는 약 먹지 못하게하고 필요 없는건 다 안하고 그렇게 해도 양심적으로 진료를 해도 수가가 작긴 하지만 좀 남았어요. 그래서 후배들 병원을 차려주고 뭐 정신보건 센터도 운영하고. 정신과 의사, 보건의학박사 돈이 안 되지만 그래도 했어요. 가정방문 시범사업도 하고. 근데 점점 의료수가가 통제가 되면서 의료 운영이 너무나 어려워져요. 그리고 노동조합에서는 나눠먹자고 그러지 꿈은 개떡은 꿈. 나는 노동조합이 진보세력이라고 생각을 안해요. 나눠 먹자는 생각의 기본적인 건 보수적인거죠. 더 앞을 봐야되. 더 앞을 보기에선 직원들이, 노동조합이 딱 이렇게 있어 힘들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돈을 주고 병원을 이렇게 지은게 일제 때 경찰병원, 철도병원, 독립병원 지은 게 처음이고, 그 다음에 국가가 돈을 내서 병원 지은 게 별로 없어요. 다 민간으로 지었죠. 그러다 대대적으로 국가가 돈을 댄 게 고령화 사회로 바뀌면서 노인전문병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그 철학이 있었어. 공공사업을 하면 그것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게 하늘의 섭리라는 게 있어요. 나는 그 학교 다닐 때 운동권 사람들하고 몰려다니고 사회의학이다 뭐다. 내가 강원도에 있기도 하고. 그니까는 대학에도 몸담고 손해가 막심하다. 애들이며 장가는 제때 가서 자식은 크는데. 손해가 막심하다고 생각이 그게 아니에요. 손학규 지사가 도지사로 있더라구요. 저보다 1년 선밴데. 그래서

이런 걸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아. 그사람 생각에는 사업을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도 그 사업을 하게 마련인데 니가 하겠다는데 땅만 있어? 땅 있으면 좋다 이거 하자. 근데 이게 뭐 그린벨트에다 하려니까 뭐가 많이 걸려요. 이사람 아니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국무회의에서 도장을 찍어야 하니까. 2년 걸려가지고 그린벨트에다가 그 병원을 지을 수 있었어요.

짓는 과정에 뭐 공공사업이 병원 짓는 게 얼마나 영터리인지. 국가가 정말 크게 반성해야 되요. 예산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막 싸움을 해서 제대로 병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쌍팔년도 병원 설계도를 가지고 짓겠다는 거예요. 저가 입찰을 가지고. 김문수 지사는 마침 또 내가 학생때부터 잘 알고 그러니까. 너 임마 말이야. 도대체 이거가지고 안되겠다. 날 믿으니까. 내가 뭐 째짤해서 내가 하려는 게 아니니까. 입찰과정에서부터 내 말을 다 들어줬어요. 건설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우리가 100년 앞을 못내다 보더라도 20, 30년 앞은 내다 봐야지 이렇게 쌍팔년도 병원을 지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설본부장을 만나가지고 병원장이 부탁하는 거는 법에 저촉 안되는건 다 들어줘라 그래가지고 내부를 60가지인가를 다 뜯어고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지역사회가 정말 별 볼일 없어요. 뭐가 뚜렷하게 되는 일이 없어요. 제가 이 현장을 만들고 했던 이유가 2005년에 신천연합병원을 정리를 했어요.

어차피 그거 사회에다가 공헌하기로 한거니까. 친인척 하나하나가 질투하고 그랬었어요. 거기서 노인병원을 짓는데 찬반이 갈리는 거예요. 내가 그만 둘 때가 된 것 같다. 그래가지고 녹향메디컬을 만든 이유가 평생을 외과에서 쉬지 않고 수술을 했는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고 노인병원 짓는 동안이라도 그거라도 좀 하자. 그래서 그 녹향메디칼이 생긴 겁니다. 녹향메디칼 좀 살려주세요. 나도 걱정입니다. 병원 운영이 양심적으로 해가지고 너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가 거기는 전문의가 7명이예요 치과의사까지. 이 동네에 정말 필요한 병원인데 알아주지는 않

아요 사람들이. 뭐 멀리 가야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그리고 이제 노인 병원을 이렇게 짓게 된건데.

2005년에 이거 준비하면서 내가 뭐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19년을 그 병원을 통해서 내가 뭘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접을 수밖에 없더라니까요. 그 노인병원은 이제 언제 될지 모르고 그린벨트에 그걸 내가하다가 자식한테 줘야하나. 내가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게 자기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요셉처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은 힘들어요. 내가 병원을 이제 하나 더 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지역사회가 너무나 불쌍하다. 이 지역 사회가 다 떠날려고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뭐 정치가들은 여기서 발판을 해가지고 그 다음장에 점프업 하려고 그러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공천도 잘 안주고. 어떻게 어떠한 메카니즘으로 공천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평균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고 공천이 되고.

그리고 뭐 투표율이 40%남짓밖에 안되니까. 자기네 조직만 똥똥 뭉쳐 가지고 맨날 가, 나 뭐 가변 양쪽 가 하고 세 군데 이번에도 두 사람 뽑는 선거라면서요? 세 사람 뽑는 것 중에 나가 어느쪽이 될까. 둘 다 가나 그죠? 한번 가 이번 나. 세명 뽑는데 어느쪽이 가가 되느냐야. 어느쪽이 나가 되느냐. 그니까 시민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같아요 시민들이 허약해. 내가 정언양 시장께 건강복지사업을 한번 해 봅시다. 제정구씨가 추천해서 한 시장이니까. 얘기가 통하겠지.

근데 그 때 기획실장이 기억이 잘 안나네. 나중에 들었을 때 나중에 총장까지 한 김환중교수 그 일반학교에서 주임으로 계실 때 건강복지사업한번 해보자. 정말 멋있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얼마 안떨어진 곳에 곳곳에 저수지가 있고 바닷가도 있고 그때는 뭐 막을 때가 아니니까 그 포구에 배도 있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한 40분 정도 왔어요. 연세대학교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바퀴 빙 도니까 세상에 이런 데가 서울 근처에 있냐. 바닷가 가려면 인천 저기 월미도 근처 뚝방 밖에 더 봅니

까? 근데 여기는 자연 그대로의 바다와 포구 이렇게 있고 말이죠. 저수지가 곳곳에 있고. 여기다 건강복지사업을 해야 된다. 유럽에서 하고 그런거는 이 지역사회는 한 물 갔다고 우린 보기 때문에 강화 사업도 다 접었어요. 다 도시로 가니까. 농촌은 안됩니다. 건강도시사업을 해야합니다. 거기서 무슨.. 실장을 만났는데. 이 시장님은 제정구씨나 당신하고 얘기가 안 되는 사람이다. 포기하십시오. 부천으로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백청수 시장. 다 해준대 다. 그 사람은 뭐든지 다 예스야. 그 다음에 가서 얘기하면 뭐 언제 그랬냐는 거야. 정종훈 시장님이 부시장을 하다가 나한테 오셨어요. 시장 하겠다고. 근데 건강도시사업이 필요합니다. 건강도시 하시겠습니까? 건강도시 자기가 하겠다고. 그리고 시장이 됐어. 또 이렇게 하겠지. 근데 그분 진짜 써요. 건강복지사업을 시작해서 연세대학교 사업도 따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그 노인병원 계획도 서고 고령화 사회니까 계획도 해야 한다고 하고.

근데 어디 경찰서장 하던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발목을 잡더니 지가 시장 나왔는데 시민아 나 찍어줘. 이거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그러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시민들은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원로 목사도 시민만 살려야 된대. 아 사람을 보고 찍어야지.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안산에서 벌써 그 꽤거리하고 모으고 왔다는데. 아 해먹다가 안됐잖아요. 아 그래서 안되겠구나 그랬어요. 그 사람 되면 잘못하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가시는 남는데 가시도 안남을 수 있겠다. 근데 보니까 정말, 아 근데 정말 모르겠어요. 시민들 시민사회가 기브앤 테이크라고 다 뭐 문제같은거 다 뭐 소금창고 다 없어지고 허가 다 해주고 뭐 그러다가 감옥에 가요. 그래서 참 허약하다. 나는 고향삼아 여길 왔는데 나는 이 병원도 하고 병원을 안 할 거면 시민 단체 똑똑한 거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로 한계 새오름포럼이에요.

그래서 포럼에서 시흥의 문제를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한도 없어요 근데 안되겠습니다. 각개격파로 안되겠습니다. 우리 도시의 비전을 세웁시다. 그렇게 해서 한계 생명도시라고. 건강도시사업 제기했지만 건강도

시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잡혔어요. 결국은 그게 우리나라예요.

유럽은 건강도시 사업을 가지고 도시 전체가 리모델링 된대요. 건설부터 다. 그 개념 가지고는 건강개념은. 그래서 생명도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처음에 하던 얘길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걸 만들었더니 그때 우리 김윤식 시장님이 회원으로 오셨어요. 자기가 시장이 되면 생명도시를 하겠다고. 그때 우리 9명이, 시장후보 9명이 다 위태로웠어요. 선거 때만 해도 그 사람들이 다 굴러들어와요. 선거 끝나면 다 없어지고. 이거 그때 김윤식 시장은 공천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림까지 가지고 왔더라고. 생명도시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공천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똑똑하네 가능성은 없는 데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공천에 붙었어요 신부식 씨, 백청수 씨가 될 줄 알았는데 운수가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미래의 생명도시 시흥이라고 딱하니 붙었어요. 겁이 덜컥나는거예요. 약속 지키는건 좋은데 이거는 뭐 정치 고아가 되어버리잖아.

한 몇 해 있다가 일 년 있으면 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다 내릴거 아니예요. 급했어요. 그래가지고 글짓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생명도시 글짓기 대회. 부모님이 관심 가지게 글짓기 대회를 왜 거기서 안하냐면 다 삭감을 해버려. 예산을 안줘 그래서 계속 돈을 모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 우리시에 생명도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철 들어오는 게 두려워요. 전철 들어오면 우리 병원도 내가 아는 병원도 다 놀거고 노인병원은 뭐 큰 영향이 없어요.

근데 전철 들어오면 개발이 막 될텐데 그 개발이 정말 미래형도시에 맞는 역량이 우리한테 있느냐. 그게 그 전부터 겁이 났었어요. 그게 4년 반 전부터 현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장 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시민단체들 하고. 올해부터는 생명도시 시민단장, 실천운동본부가 계속할겁니다.

저는 이제 그만하기로 했어요. 저는 손떼기로 했어요. 시민단체들이

한번 해 보시고. 이제 시에서도 이제 함께 하실거고. 우리 도시가 정말 생명도시가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생명도시로서 한 발짝 나아갈 때 아내 녹향을 향한 내 꿈이 이뤄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민이,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감각을 갖게 되죠. 그쵸.. 사랑하면 또 괴로워요.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이 많아요.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만들겠고. 이 지역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시의 이런 움직임을 바깥에서 굉장히 놀랍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문화연구소 초대 회장과 후임소장님이 지금 다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생명도시연구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을 실천하자. 이걸 골목과 우리마을 공원, 모든 학교 이렇게 간단한 실천구호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함께 만들어 봅시다.

여 백

이진규 (과림동 과림 3통 부라위, 1929년생)

과림동 과림3통 부라위의 토박이



개관

이진규 씨는 부라위 태생으로 출생은 호적에 1929년 3월 15생이나 실제 나이는 86세이다. 부라위거주 전주이씨 온녕군파 주민 중 최고령이다. 2013년 10월 7일, 대야동 대야노인정으로 찾아가 이진규 씨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다. 5형제의 맏이로 자랐고 김포출신 양경석 씨와 결혼하여 슬하에는 4남매를 두었다. 일제시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징용인 근로보국단에 끌려갔다. 6.25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징병되어 강원도 영월에서 전투에 참가, 다리에 총을 맞아 부상으로 제대하였다.(6.25참전유공자) 고향에 돌아 온 후 농사에 전념하고 현재는 공장임대업과 대야노인정을 다니며 노년을 보내고 있다.

어린시절

내가 기억이 잘 안나지 뭐유 가족관계는 아버지가 이병덕, 어머니는 남양 홍씨. 내가 맏이로 5형제이고 누이는 내가 먼저 나고 다음에 났는데 3살 먹어서 세상을 일찍 뗏시다. 온녕군과는 17대 손이요 부인하고 아들 3형제하고 딸 하나하고 있어

부모님은 집 뒤 300평 땅에 모셨수 어머니가 먼저 83살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2년 뒤에 뺑소니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7~8년 됐죠 지금은 큰 아들 태권이랑 세 식구가 살고 있어.

어려서 개구쟁이였어 동네 가장 노인네인데 안효원이라는 어른이예요 그 전에 뚝병이라고 하자나요 거기에 미나리나 이런 걸 심어놓으면 4~5살 때인데 들어가서 제 밭고, 안효원 씨가 어디 갔다 오는 거 보면 “안효원 씨 어디 갔다오셔?”, 그럼 “저놈의 자식 봐라” 욱도 많이 먹었지. 근데 귀엽다고 때리지도 않고 “저놈의 자식 봐라”라고 할 뿐 받아주셨지.

이 노인네들이(부모님) 한문 배우는 데를 보냈어 노은사동에 있잖우 그거나 제대로 했으면.. 이병권이 하고 같이 거기를 다녔어 네게 아저씨 뻘이야 나이는 동갑인데.. 집에서 책보자기라도 싸주거든 그래 가면은 목감천 고기도 많아 학교는 거기서 한참 더 가야지만 그 개울에 가서 두 놈이 그 때는 게도 많아 참게가.. 그거 잡고 놀고 그러니 배울 도리가 없어요.

모갈 사는 이궁노 씨는 이북사람인데 같이 안 다녔어 그러다가 노은사동 국민학교를 보내줘서 시방 거기 학교 있잖우 거기를 보냈는데 거기 역시 가면 개울에서 놀다오고 그게 그렇게 재밌거든.. 학교는 왜정 때예요 그 반장이라는 놈이 조선놈이 한국말하고 그러지 일본말을 할 줄 알아 개새끼가 조센징이라고 일본말을 앓고 조선말을 한다 귀싸대기를 때리고 하잖아 지금 같으면 이관사관 너죽고 나죽고 한다면 이 반장놈이 학교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맞고 집에 와서 안 가버렸지 학교도 그만 뒤버렸어 이미 매나 맞으려고 가냐하고 안 가버렸어.

일제치하 근로보국단 착출

일본놈들 저거 징용이고 같 나이는 아니었거든 16살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 구장이라는 사람이 키는 지금이나 그 때나 머쓱해서 그러니 노상 일본놈들 시절에 소래 보국단 보내는 거지 구장이 이구성 씨야 이름도 안 잊어버려.. 가면은 뭘 시키냐면 지계에 양철을 지설랑 가 어디로 가냐면 소금창고, 소금창고 가서 지계를 이렇게 지고 있으면 소금을 짚어줘 그럼 그걸 지고 설랑 소래포구로 가 그래서 가서 한 지계 나르고 나니까 점심 시간이 되었습디다.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 먹으라 그래 아 이거 짚어지면 일본사람들이 저울 갖다 놓고 거기 올라가야해 그래서 올라섰더니 몸은 마르고 100근도 안나간다고 지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있어 점심 때 거기서 주먹밥이라고 해서 이렇게 줘 그래 금방 먹고서 내가 그 때 뽕 박질을 잘 했수 그래서 여기 소래산 아니유 거기 와설랑 해넘어 가기를 기다린 거지 그 때 차나 있어 거기서 집을 밤중에 갔더니 이 연병할 놈이 보냈는데 벌써 집에 있다고 구장이라는 놈이 또 보내 어디로 보내냐면 의정부.

아 이거 정말 클랐어 거기 가서는 뭐를 하냐면 옛날에 쓸구르마(레일 달린 수레) 있잖우? 난 거기에 그냥 흙 실어서 밀고 그게 징용이지 정말 동네에서 많이 가지 않았어요. 이병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몇 군데 갔었지 한동네 사는 사람이라 같이 보내더라고 그 사람도 나처럼 갔다가 하면 도망오고.. 쓸구르마를 하는데 애들적이라 힘이 있어? 밀고 이렇게 내려가다 손으로 잡는 브레이크지 그렇게 하는데 며칠을 그렇게 가만히 보는데 2~3일했나 흙을 파서 실으라더니 그때부터는 타는 거 시켜주는 거예요 싸앵~ 내려가니 사람도 많이 죽었어 그냥 밤중에 내뺐지 그렇게 돌아오니 거기는 안 보내더라고 그 때부터는 우마차 있잖우 그거를 또 보내더라고 소랑 우마차가 있으니까 연병할놈이 김포비행장 댕는 거 흙 실어 나르는 거 보냅디다. 별거 다했수.

6.25한국전쟁 참전

강원도 가서 싸웠지만 사람 많이 죽었수. 22살인가 군대를 가서 6.25 참전용사요. 국가유공자증이 있어(6.25참전유공자 - 국가보훈처 11-13027821, 2008.9.29) 내가 고생 많이 했수 어려서. 이제는 늙어서 놀러 다니고 편하지 이북 애들이랑 싸움을 하는데 개들은 따따하는 따발총(기관단총 PPSH-41 파파샤, 소련제)입디다 그래 그걸 맞았는데 애들 적이라 끄덕없어 그래 도망 온 거지 뭐 강원도 영월에서. 근데 그 새끼들 무척 많이 죽었을 거야 일등병이라나 그걸로 제대했어요. 군대나가서 부상을 당해 제대하고 그러면 하사로 진급시킨다고 그러는데.

그 때 연령은 안 되는데 군대 같 나이가 1년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급했는지 군(시흥군)에서 몇 살에서 몇 살까지 여기 소래국민학교로 오라고 말야 해서 몇백명 되지 거기다 불러다 놓고 저녁때가 되도 보내주지 않는 거야 큰 트럭이 오더니 거디 다 때려 싣고 인천으로 가잖아 인천항으로 가서는 거기서 뭘 타냐하면 기차로 갔다가 대구에 뿌려놓더라구 훈련도 한 달도 못 받았어요 한 15일인가 훈련을 하더니 또 기차를 타고 강원도 영월에다 놓고는 뭘 주냐면 M1소총 총알 케이스 있잖우 무척 무거운데 7~8박스씩 주는데 아휴 어깨에다 뻐는데 M1소총이 여간 무거 이거 걸머졌지 아휴 참 순 산으로 이런 평지가 어딴지 겨울인데 땅을 팔 수나 있어 슬폐기 오두막 지고 그 밑에 내려가서는 그래도 옷을 두겹게 입고 그래서 그렇게 추운지 몰랐어.

전투가 심했고 말고요 무지무지 심했지 참. 새벽되니까 후퇴 명령이 떨어진 거야 야산 같은데 모여 있다가 내려오니깐 강이 조금한 강인데 물이 팡팡 얼었는데 다 보이니까 불안하고 그걸 건너오는데 이놈의 자식들은 좋다하고 뒤에서 따따당 쏘지 뭐야 다 건너 왔는데 발이 빠끗해 불이 반짝하면서 총알이 저 앞으로 떨어지더라구 총 맞아서. 인민군 따발총이 발뒤꿈치를 뚫었어 총알을 집어 왔어야 하는데 이미 죽겠생겼는데 주울 수 있어 어디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겨울에 숨바지 입고 애들 적이니 아픈줄 모르고 내뻐는데 뒤에 오는 사람이 눈에 그냥 피가 흥건하니까 “애

너 맞았다.” 내가 맞은 거 몰라 알아도 그냥 뛰는 거지 다리가 뚱뚱부었는데 이것이 땃달 되니까. 그 때 대구 육군병원인가 치료받고 다섯 달 만에 집에 갔는데 짐 싣고 다니는 기차 있잖우 군인 나갈 때도 그 기차로 가고 왔는데 아유 그런 세월을 보내고 5개월 있다가 제대를 하는데 거기한 일주일 있는데 극장도 보내줍디다. 절뚝 거리면서 가서 앉아있으면 아가씨들이 무척 많이 와 그래서 이렇게 꾸욱 찌르고 저 사람들은 이제 군대도 못 가고 저 사람들 사귀면은 내가 출가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는 거 같애.

군대생활은 1년 5개월인가 하고 말았지요. 집에서는 죽은 줄 알고 오니까 그 때 초가집이었어 와 보니까 집은 그대로고 그냥 벽이고 뭐고 총구멍이 뽕뽕 뚫렸지 내가 시방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전쟁터 저 사람들하고 싸울 때 이게 무슨 일본사람들하고 중국사람들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같은 동포야 이북사람이라면 이사람들하고 총질을 하면서 싸운 것이 가만히 생각하니 100방을 쏘다면 50발은 적어해도 50명은 죽었을 거다 그러면 100여명. 내가 이렇게 오래 사는 것도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여서 사는 가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명이 기니까 살어 명이 긴 거야 내가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돼서 내가 오래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결혼, 그리고 생활

군대 갔다와서 제대해 가지고 24살에 결혼했으니까 몇 년도는 모르겠네. 그 때는 맞선보고 그랬는데 옆에 사람들이 김포 계화동(현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인이 양경석이유 그전에는 거기서 곧잘 살았다고. 그 장모 되는 분이 동네서 이웃의 아주머니가 친정이 그 쪽이니까 그 양반에게 이야기해서는 소개를 했어. 그래서 장모 되는 분이 옛날에는 초가집이었지. 나중에 초가 위에 기와를 올렸었지. 그 후에 농협에서 융자 받아 집을 지었지 그게 무슨 주택인가 이 노인네가 걸어서 날 보러 온 거야 나를 보고

놀란 거야. 내가 지금은 이렇지 24살적에 아주 이뻐지. 장모가 승낙해야 돌아간다고 그러니 중매하는 분이 노상 하라고 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알아요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결혼했지. 그 때는 예식장은 없고 족두리 쓰고 전통혼례 했어. 그 집안에서 트럭을 부려서 그 거 타고 했어. 3형제에 딸 하나인데 24살에 결혼해가지고 시방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일찍 낳고 그러잖우. 근데 2년인가 있다가 낳어. 애들 어릴 때 형편없지. 어려워서 애들도 제대로 중학교인가 가르쳤구먼. 난 소학교인가 가지도 못하고 돈이 있어야 가지. 학교도 못 보내고 뭘 알아야 하지 면장도 하고.

생업은 줄곧 농사지었지 뭐 있수.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농사를 많이 지었지. 머슴도 하나 두었었는데 늙은이를 뒀어. 어디사람인지는 모르고 떠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놈의 영감이 어디 갈 데는 없고 우리집 사랑방에 와서 일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괜찮게 생각했다는 말야. 한 2~3일 하더니 이 노인네가 소도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소죽을 쭈잖아요. 근데 사랑방에 가서 보니까 없어. 근데 노인네(아버지)가 반지를 빼서 베개 밑에 뒀었나봐 이놈의 영감이 그걸 가지고서 내뺐잖아. 찾아보니 어디로 갔는지 뭘 알어.

우리 농사질 때 논이 80마지기(약 52,892.562㎡, 16,000평. 한 마지가 씨앗 한말 뿌릴 넓이 혹은 쌀 4가마 수확넓이) 우리 노인네가 처갓집이 인천 주안이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는지는 모르지. 처갓집이 부자지 뭐야. 땅이 나오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욕심은 많은 분이야. 그냥 어머니를 보내서 논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 외할아버지가 보따리를 싸서 돈을 보냈거든. 사라고 80마지기. 그 때 했으면 많은 거유. 내가 놀기만 하고 야금야금 여기 꺼 하나 팔어 저기 꺼 또 팔어. 동생들이 있으니까 한 마지기 몇 개 떼주고 나니까 뭐가 남어. 나머지는 내가 갖고 그렇게 동생들에게 나눠줬지. 한 300평 있는 거 고추 심고 뭐 김장거리 심고 없어.

동네나 종종에서는 무슨 일을 말지 않았지. 뭘 시키려고 해도 내가 뭘

알어. 내가 배움이 있어요? 뭐를 하던가 하지 일절 앓고 그렇게 세월을 살았지. 그냥 편하게 살았지 일을 안했으니까. 아버지라는 분이 농사를 이렇게 많이 짓잖우. 그럼 소 있고 그럼 쟁기질 좀 가르쳐주고 이래야 하는데 일절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쟁기질을 할 줄 알아 뭐를 할 줄 알아 그래서 그것도 배우지 못했지. 쟁기질을 못하니까 탄사람 데려다가 품삯주고 했죠. 왜 내가 쟁기질을 못 배웠냐면은 노인네가 쟁기질을 하시잖아 그러면 내가 어린데 새참 내다 드리라고 하면 가서는 쟁기를 쉬고 있으니까 에이 이거나 해봐야겠다 가설랑 쟁기 붙잡고선 모니까 그냥 휙 나가잖아. 논두렁 가를 못보고 그냥 쟁기만 내려다보고 가니까 그냥 거기에 탁 부딪쳐서 쟁기가 와장창 부러지잖아 그 때부터 이 노인네가 다시는 안 시키는 거야. 내 나이가 17~18세 됐을 거야. 그래서 아랫 동생들이 다했지. 집이 소가 암소라 순해서 부리기 좋아. 그런데 이거 시켜줘야지 못 배웠어. 그래서 학교도 배우지 못했지. 그렇게 세월을 보낸 사람이유 참 세월을 잘 보냈지.

그래 모갈 그쪽 사람들은 아무개는 소나기가 와도 마당에 멍석을 널어봐도 내다도 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수다. 그렇게 세월을 보냈오. 50이 넘어서는 노인정이나 아는 사람들 만나서 신하철이나 안동선이 선거운동도 했어요.

집을 이렇게 저놓고 세만 받아도 지금 과일나무 포도나무 열댓줄 하고 사과나무, 배나무 조금 심고 그 전에는 4~5년 포도농사도 해서 출하도 하고 그랬는데 많이 해봐야 그거야 몇 폰이나 남우. 시방은 다 캐내어 버리고 고추 심고, 콩 심고 김장이나 심어서 먹고 살고 6~7년부터는 두군데 공장 임대주고 세받아서 편하게 살잖우. 세 받으니까 그것도 재밌습디다. 그리고 우윳소도 길러서 몇 해 해 먹었수.

보금자리 사업 이후 계획과 바람

금년까지는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논이고 밭이고

못 진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보금자리사업이 된다는데 막막해요. 어디로 가야되나 연구를 하는 거야. 자 보금자리가 된다는데 되면은 어디로 가야 좋은가 어디 가서 물어볼 사람도 없고. 참 나 어디로 가나 시방 이게 되면은 종산이 보상을 받으면 종산을 충청도로 모신다는데 묘는 거기로 모신다지만 사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는지 캄캄해요. 어디 먼데는 갈 수 없고 매화동이나 목감동이나 어디 참한데 있으면 이런데 변화한데 말고 뒤에 산있는 단독주택이나 있으면. 이제껏 편하게 살았는데 다른 바람은 없고 아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종산은 산으로 간다는데 난 죽어도 화장은 하지 못 하겠어. 그래서 종산 옮기면 거기로 가려구. 화장하는데 몇 번 쫓아 가봤는데 아이고 그건 못 보겠습디다. 그 생생한 사람은 넣어가지고서 나중에 절구에 빻아서는 나는 그거 보고는 정남이 떨어져서는.

여기 노인정(대야노인정)은 매일 나오지만 모갈도 노인정이 있지만 사람이 안 모여요. 내가 아는 사람이 몇몇이 있어 노인정에 와봐 그래서 나오니 점심도 해 오래됐어요. 한 20년 가까이됐어요. 매일 여기서 놀다시피 해요. 여기 오면 고도리 100원짜리 쳐요. 재밌어요. 노인정을 올 때는 지금은 시청으로 해서 오는 26번 버스가 있어서 집 앞으로 오거든 노상 그걸 타고 다녀. 이게 없을 때는 숲두루지 있잖우. 거기로 가서 갈아타고 두 번씩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26번이 다니니까 시간 맞춰서 와서 기다리면 꼭 와. 여기 나가면 간판에 시간도 나와 있고.

어르신 인문학 소풍

사람으로 보는 우리 마을

2. 시흥의 자연마을

여 백

과림동의 자연마을

과림동 과림 3통 부라위마을 (옛 부천군 소래면 과림 1리)

지리적 접근

시흥에서 과림동 부라위로 들어가는 길은 은행동에서 계수로를 타고 광명방향으로 가다 계수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범안로를 타고서 중림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금오로(397번)로 진입하거나 수인산업도로에서 수원방향으로 가다 금이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금오로로 들어서는 방법이 있다. 이 길은 광명을 지나 서울 오류동까지 이어지는 길로 예전 우마차가 지나던 길을 도로로 낸 것이기 때문에 왕복 2차선의 좁고 구불구불 이어지며 마을 마다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어 초행자들에게는 매우 불편하다. 도로가 나기 전부터 광명과 서울 오류동(영등포권)을 다녔던 길이라 지역인 소래권보다는 광명과 오류동 지역이 예부터 지금까지 주 생활권이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이 금오로가 과림동의 중심 교통로이다. 부라위

는 모갈과 중림 사이에 위치한다. 행정구역은 과림 3통이다.

부라위 입구는 ○○식당과 ‘과림동주민센터, 예비군훈련장’ 버스 정류소(25-561) 사잇길로 맞은편에는 양지산레포츠 산림욕장 입구 안내판(건너 부라위와 안 부라위 사이로 예비군훈련장이 위치) 골목 입구에 서 있다. 마을길은 ‘부라위길’로 표시 되어있다. 주택보다도 더 많은 공장과 고물상들이 골목 끝까지 포진해 있다. 골목을 따라 들어가 보면 사람 만나는 것보다 차량을 마주 치는 일이 더 잦은 동네이기도하다.

그나마 부라위의 자연마을 형태를 간직한 곳은 와우산 중턱(겨뜨락)의 집들이다. 마을은 와우산(빨바위) 아래 배산임수의 전형적인 마을입지 유형에 속하며 모갈과 달리 야특막한 와우산 아래 동남방향으로 집들이 줄지어 나타나는 산촌(山村)의 모습이다. 이는 산과 계곡을 따라 형성된 마을 유형으로 평지에 모여 있는 집촌(集村)과는 거리가 있다. 이는 산지가 많이 포진한 경기도 지역에서 주로 보이는 촌락 유형이며 평지에 군소취락이 분포하는 경우는 평택평야에 형성된 마을 등이 해당한다.

부라위의 지명유래



빨바위(각암) 사진 : 박종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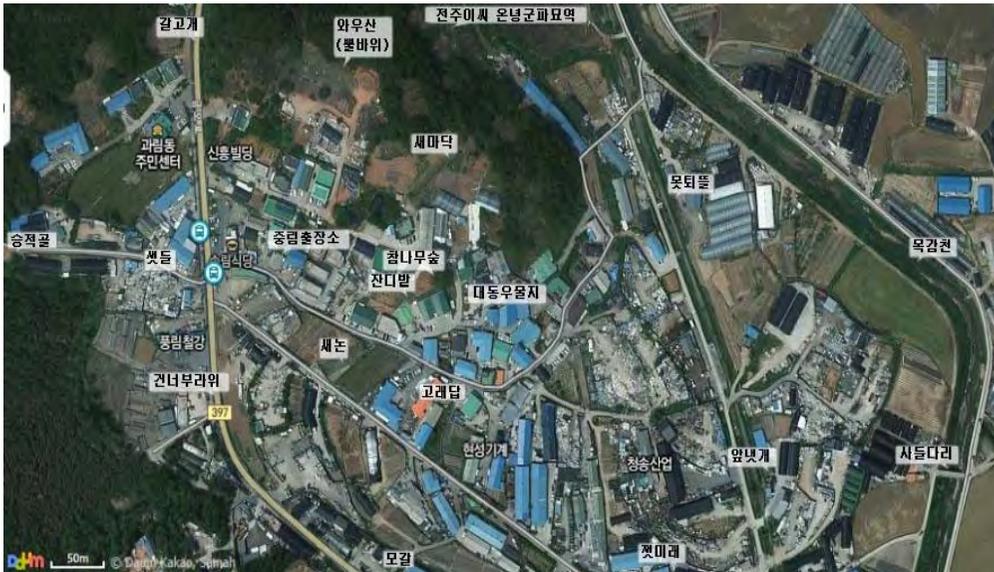
부라위는 모갈 북쪽에 있는 마을로 북쪽의 와우산(각암)이 풍수지리적으로 소가 누운 형국이고 마을은 소의 밥통에 해당하고 각암은 소의 혈이다. 특히 마을 뒤 겨뜨락 위 산 중턱에 있는 바위가 소의 빨처럼 생겼다 하여 빨바위(角岩)라 불렀다. 조선시대 각암동(角岩洞)이라 불렀으며 일제 때 ‘불아위’라 불리고 현재는 ‘부라위’가 되었다. 마을의 북쪽 지역은 ‘대각암’(大角岩, 또는 건너 부라위), 남쪽 지역은 ‘소각암(小角岩)’이라 부르고 있다. 조선 중엽 전주이씨 온령군(태종의 아들)의 아들 무풍군의 후

손인 이중길이 낙향하여 세거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빨바위는 본래 2개가 나란히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중림동 안골의 전주 이씨 선대의 묘와 마주하고 있어 풍수지리적으로 좋지 않다고 하여 없앴다는 이야기와 바위를 그대로 두면 동네 여자들이 바람나서 마을을 떠나게 된다는 전설을 지니고 있다. 또는 조선말엽에 중림마을의 서씨, 주씨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배가 아파서 빨을 부셔 버렸다는 전설이 있다. 부라위는 건너 부라위, 안 부라위 두 동네로 나뉘지는데 두 동네 모두 서로를 건너 부라위라고 부른다.(『시흥시 지명유래』, 2006)

이밖에 부라위라 부른 것을 마을 고개에 새부리 모양의 바위가 있어서 새부리이, 부리이라고 해서 부라위가 되었다는 설도 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기억하는 장소나 명소, 고유지명



○와우산

빨바위가 위치한 산은 풍수적으로 소가 누운 형상을 한 지형으로 ‘소가 누운 산’이라하여 한자로 와우산(臥牛山)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형의 특성

은 광명 애기능산(민회빈 강씨의 묘원인 영회원(永懷園)이 위치하여 왕릉보다 작은 능이 있다고 하여 애기능이라고 불렀다.) 정상에서 부라위를 바라다보면 확인할 수 있다. 와우산 정상에는 마을신앙의 중심인 빨바위(각암)가 있어서 예로부터 그 신엄함에 마을에서 산고사를 지내고 있고 마을을 일군 온녕군과 과림종중의 묘역이 들어선 선산이기도 하다. 특히 와우산의 혈에 해당하는 곳에 9대조 영일을 모시고 있는데 여기가 소젓에 해당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곳에 조상을 모신 이유는 온녕군과의 자손이 자자손손 번성하라는 의미에서 자손을 기른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현재 빨바위는 곁에는 산불감시초소가 설치되어 있어 마을 어디에서나 그 위치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현재 산에는 참나무가 많다. 또한 이해용 씨 부친이 심은 개나리가 빨바위 직선으로 동측에 줄지어 자라고 있다. 와우산 동편으로 새마닥(519-1, 431-1번지 경계지점) 끄트머리 위에 터줏가리를 만들어 이곳에서 산고사를 지내고 있다. 빨바위와 새마닥 언저리 대지와 밭은 예전부터 겨뜨락(503번지 주위)이라 불렀다. 겨뜨락에서는 참외, 포도, 복숭아 등 농사를 지었다. 광명시흥새보금자리 사업으로 와우산도 포함되어 개발될 예정이므로 현재 위치한 온녕군과 전주 이씨 묘역이 이전되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보상금 등이 해결되지 않아 선산 이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주 이씨 가문과 빨바위의 전설이 살아있는 이곳이 공원녹지 등으로 보전되길 바라본다.

○갈고개



갈고개(과림동주민센터 앞-좌)

금오로에 있는 고개로 부라위와 중림을 잇는 고개이다. 갈고개라는 이름은 사람이 못 건넜다는 모갈고개와 달리 사람이 넘어갈 수 있는 고개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갈고개는 과림동주민센터 앞을 통과하는 곳으로 지금은 완만하게 약간의 경사가 있을 뿐이다.

이름은 갈고개이나 예전부터 지형적으로 고개를 이뤄 험하고

수풀이 우거져 별이 잘 들지 않아 음산하여 사람들이 다니기 꺼려했다. 특히 마을 앞으로 버스가 다니기 전에는 중림까지 버스가 들어와 이 버스를 타려고 가거나 중림에서 내려 걸어오려면 인가도 없고 숲이 우거지고 캄캄해서 매우 무서워 애로사항이 컸다. 특히 밤에는 야생동물도 많이 마주치게 되니 여간 곤혹이 아니었다.

버스가 처음으로 다니던 시절, 이 갈고개는 운전수들에게는 어려운 길이었다. 비포장도로에다 땅이 고르지 않아서 버스들이 갈고개 진흙탕이나 눈길에 빠지면 그대로 움푹달락도 못하여 그날은 그냥 버스 운행 중단이었다. 1987년 지금처럼 고개를 완만하게 낮추고 도로도 포장하였다. 이 갈고개는 모갈고개와 달리 넘어 간다는 갈고개이지만 실상은 꺼려지는 고갯길이었다. 그러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이름을 붙여 고갯길을 사용했던 주민들의 해학이 담긴 추억의 담긴 고갯길이다.

○대동우물지

부라위길 530-7번지. 현재는 ○○정밀이 들어와 공장으로 바뀐 이 자리에 대동우물이 있었다. 대동우물은 부라위 마을의 공동우물로 작은 언덕에 위치하며 샘이 깊고 물이 풍부하였다고 한다. 1970년 중반까지 있었는데 집집마다 우물을 파서 양수하는 통에 그 쓰임이 없어져 관리가 소홀해지자 자연적으로 매몰되어 없어졌다. 이 마을 양경석 씨(이진규 씨 처)에 따르면 집집마다 우물을 파기 전에는 시집 와서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는데, 어린 시동생을 업고 물동이를 길어 나르기가 여간 고된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 물이 워낙 잘 나와 인근에 우물 없는 이웃들이 길어다 먹었다. 칠월칠석이면 우물 청소하고 전을 부쳐 마을 사람들과 모여 우물고사도 지냈다고 한다.



대동우물지

○고래담 웅덩이 터(과림동 558-1번지 일대)

대동우물에서 이어지는 실개천이 이어지고 이곳에서도 물이 많이 솟아

단오날이면 동네 사람들이 창포를 삶아 그 물로 머리를 감았다. 현재는 2m이상 복토를 하여 공장부지와 밭이 되어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참나무숲(부라위 길 520번지)

부라위 길 503번지 삼백년 이상의 수령을 가지는 참나무가 3그루 있다. 이곳은 시원하여 마을 주민들이 여름나기가 좋은 장소라고 한다. 예전에는 10구루가 서 있었는데 참나무가 서 있는 땅의 소유지의 잦은 변동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소유지의 소유자가 베어버려 현재는 3구루만 남아있다.

○잔디밭 터(과림동 520-1)

참나무숲 아래 이해용 씨 증조부 진사 이희진의 묘가 있던 곳으로 평평하고 무덤 잔디가 잘 입혀져서 마을 공터가 변변치 않던 시절 동네 아이들이 공도 차고 놀던 곳이다. 현재는 공장이 입주하여 커다란 크레인이 설치되어있다.

○사들다리(사들교)와 변복순여사 선의적덕비

부라위(모갈)와 광명시 학운동(법정동 노온사동) 사들 사이의 목감천에 놓인 다리이다. 사들다리는 노온사동의 자연마을인 사들에서 명칭을 따온 것으로 ‘모래밭 위에 터를 잡고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사들이라고 불렀다. 이 사들마을은 조선 세도정치시기 영의정을 지낸 경산 정원용(鄭元容, 1783~1873)이 살던 마을로 99칸의 고택이 있었으나 도시 개발로 없어졌다고 한다. 이 사들다리는 처음에는 사람만 그냥 건너다닐 수 있는 나무다리였다. 따라서 우마차는 다닐 수 없고 사람만 겨우 다녔다. 그러다 1960년대 후반 시멘트로 된 다리가 놓이게 되었는데 당시 사들에 살던 부호, 변복순은 부라위와 모갈지역으로 버스가 들어오는데 사들사람들이 버스를 타려고 목감천을 건너려면 다리가 없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그 어려움을 보다 못한 변복순은 임종 직전 “다리를 놓아 주민들이 서로 왕래하며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유언하여 그의 재산으로 처음으로 시멘트다리가 놓였다. 다리가 완공되고 개통이 되자 부라위와 모갈에서 가장 연장자였던 안희원(당시 78세 추정)이 제일 먼저 다리를 건너며 개통식을 가졌다.

현재 사들다리 사들편 북쪽 길가에 ‘변복순여사 선의적덕사비’라고 비석이 세워져 주민편의 를 위해 재산을 희사했던 변복순 여사의 선행을 기리고 있다. 비석은 70cm 높이에 40cm 너비 20cm 두께로 제작된 화강암으로 만든 비석이다. 세월이 오래되다보니 비석은 그 마모가 심하여 잘 알아보기 힘들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비석 말고도 다리 건립에 따른 기록이 더 있어 그 건립에 대한 자세한 뜻을 알릴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있었는데 다리가 개축되면서 비석말고는 다 철거되었다.



변복순여사 선의적덕비

현재 사들다리는 목감천 정비에 따라 다리가 개축되어 1987년에 준공되었다. 이 다리의 현재 모습은 길이 24m, 폭 4m, 높이 3m이며, 경간 수는 3개이다. 상부 구조 형식은 11.RCS, 하부 구조 형식은 14.TP이며, 설계 하중은 DB-18[32.4톤]이다. 또한 철재 구조물로 다리 난간을 설치하여 안전시설이 되어있다.

○창박골

부라위에서 서북쪽으로 성주산 아래에 있는 산골짜기.

○못퇴뜰(못통이 과림동 419~420번지 일대)

부라위 와우산 남사면 아래 목감천 방향으로 펼쳐진 들.

○셋들(과림동 483-3,9번지)

현재 예비군훈련장 일대로 예전 논.

○새논(과림동 522-2,3번지 일대)

논.

○젯미래(과림동 580, 581-1번지 일대 밭)

밭.

○앞넷개(과림동 564-2, 578번지 일대)

광명과 경계부근으로 샘이 솟아 작은 실개천을 이룬 목감천 지류.

○승적골(과림동 산47, 48번지 일대)

예전 소래면사무소와 소래초등학교, 소래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용하던 고갯길로, 양지산에 위치한 골짜기 따라 넘어가면 맞은편 양지편으로 이어져 신천동으로 가는 길이다. 예전 소래면사무소에 일을 보러 마을 남정네들이 나가면 아낙들이 “예 니 아버지 오시는지 승적골에 가서 마중하거라”했다고 한다.(이해용) 승적골은 부라위 주민들이 사용했고 이웃한 모갈은 따로 소래로 넘어가는 길이 있었다.



참나무숲에서 본 부라위와 승적골

○과림3통 마을회관이자 과림동 최초 행정기관 중립출장소



중립출장소로 쓰였던 마을회관

부라위길 7번지에 위치하는 예전 과림3통 마을회관이다. 이 회관에서 과림동 최초의 행정기관인 중립출장소가 개소되었다. 현재 모갈에 있는 노인회관이 과림3통의 마을회관까지 겸하고 있는데 원래 마을회관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이성규가 1981년 당시 이장을 맡아보면서 마을회관 건축을 마을사람들과 추진하였다. 이에 시흥시가

건축자금을 지원을 하였으나 부지매입에 난색을 표해서 이성규가 터를 내놓아 건축은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건립하였다. 1989년 과림동에 처음 행정사무소가 설치되었는데 바로 중립출장소가 이 마을회관을 빌려 사용하였다. 현재 마을회관은 이성규의 차자 이택역 씨가 물려받아 가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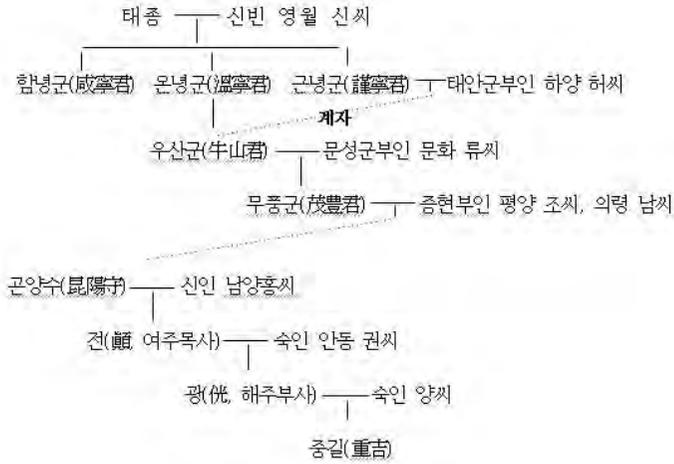
공장으로 임대 하고 있다.

전주이씨 은녕군파

조선 태종 11남 은녕군(溫寧君, 程, 1397~1453)을 파시조로 하여 그의 아들 무풍군의 자손들이 대성을 이뤘다. 은녕군(溫寧君)은 1407년(태조7)에 태종 이방원과 신빈(信嬪) 영월 신씨의 2남으로 태어났다. 부인은 익산군부인(益山郡夫人) 순천 박씨다. 슬하에 아들이 없어 근녕군(謹寧君)의 차남 우산군(牛山君)을 계자로 삼았다. 이 우산군은 문성군부인 문화류씨를 맞이하여 6남을 두었는데 그 차남이 무풍군(茂豐君) 이충(李摠, ?~1504)으로 자는 백원(百源), 호는 서호주인(西湖主人)·구로주인(鷗鷺主人)·월창(月窓)이다. 태종의 증손이며, 우산군 종(牛山君踵)의 아들로, 부인은 생육신의 한 사람인 의령 남씨(宜寧南氏) 효온(孝溫)의 딸이다. 유년에 무풍부정(茂豐副正)에 제수되었다.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문인으로 김일손(金駟孫)·강경서(姜景敍) 등과 교유하였으며,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 때 종친이 사류(士類)와 어울려 정치를 비방했다는 죄목으로 함경도 온성으로 귀양을 갔다. 따라서 가문은 종적(宗籍)에서 삭제되고 모두 서인이 되었으며 1504년 갑자사화 때 아버지 우산군을 비롯하여 형인 한산정(韓山正) 정(挺), 화원부정(河源副正) 간(揀), 청양부정(靑陽副正) 건(捷), 금성부정(金城副正) 변(抃), 동생인 용성부정(龍城副正) 간(秆) 등과 함께 7부자가 죽임을 당하였다.

1506년(중종1) 중종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이 쫓겨나면서 신원되었다. 무풍도정(茂豐都正)에 추증되었으며, 1705년(숙종31)정려를 받았고, 1738년(영조14) 무풍군(茂豐君)에 가증, 이조판서에 증직되었다. 시호는 충민(忠愍)이다.

무풍군은 남효온·손유손(孫裕孫) 등과 함께 청담파의 중심인물로서 시문·음률·서예에 뛰어났으며, 그의 작품인 「지환부(指環賦)」가 『동문



전주 이씨 온녕군파 과림종중 선계도

선』에 실려 있다. 양화진에 집을 짓고 고기잡이로 유유자적하였다.

과림동 부라위 온녕군파는 이 무풍군의 손자 중길의 자손이다. 이해용 씨에 따르면 후손들이 이곳 부라위에 터전을 잡

은 것은 5대 광(尙, 해주부사)의 3형제 중 막내 중길(重吉, 6대)이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 등과하여 금천현감으로 부임하면서 이곳을 알게 되었고 그 후 낙향하여 자리잡았다고 한다. 이들 묘소는 광명시 노은사동에 있으며 10월 11일 시제를 다섯 분을 모시는데 이 중에는 황해도 해주의 선조들에 대한 설단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12일에는 부라위 내에 있는 온녕군의 9대손이자 중길의 증손인 영일, 13세손의 형제 및 그 자손 등의 묘소가 이곳 과림종중묘역에 있어 여기서 묘제를 지낸다. 모두 일곱 분에 대해 묘제를 지낸다.

온녕군파 과림종중 묘역은 중림에서 과림동 주민센터가 위치한 부라위 마을로 넘어가는 갈고개 머리에서 우측 난길 입구에 ‘全州李氏溫寧君派果林宗中墓域碑(전주이씨온녕군파과림종중묘역비)’이라고 비석이 서있고 그 길로 100m를 가면 온녕군파 종중선산(와우산)이다. 모두 50기 가까이 되는 묘소가 있다. 야산 한 자락을 차지한 전주 이씨의 묘역은 잘 정비되어 있었다. 또한 산자락 아래 채실을 겸한 종중 사무실도 있어 종회원들의 회합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선산의 유지를 통해

서 부라위의 오랜 세거 가문임을 말해준다. 부라위에 전주 이씨 토박이들이 24호(戶)정도 있었는데 이제는 2010년 현재, 겨우 12戶 남아있다. 23대째 내려오고 있다.



**대동사상으로 결속된 은녕군
과 문중**

전주이씨 은녕군과 과림종중묘역 입구

주로 통혼하던 가문은 특별히 없으며, 신분적으로는 왕가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나 은녕군의 아들인 무풍군이 연산군 때 김종직에 연루되어 화를 당하고 중종반정 이후 신원되면서 왕족으로 행세하는 것보다는 자중하여 곡절 많은 왕위분쟁에 끼어들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했다. 권력암투에 휘말리지 않고 보신보전(保身保全)을 위했던 탓인지 이웃한 타성들과 신분적 권위를 내세워 불필요한 잡음을 내는 것을 삼가 하였다. 이는 신분적 특권을 내세워 타성들과 구분을 지었던 인근에 은행동 찬우물 파평 윤씨가와 다른 것으로 윤씨는 타성민을 백민으로 호칭하고 말을 낮췄으며 반대로 백민들은 윤씨를 서방님, 샌님으로 호칭하고 존대를 하며 윤씨가의 대소사에 일손을 도왔다.

그러나 혼인에 있어서는 엄격한 잣대가 있었는데 무풍군이 당시 훈구파 대신이었던 이극돈에 화를 입은 전례로 이극돈이 속한 광주 이씨와는 절대 혼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950년 말 유입된 머슴 즉, 일꾼들이 그 됃됨이에 따라 집안사람과 맺어주는 등 개방적인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이씨의 딸은 주지 않았다. 이러한 전통은 능곡동 밖뒤일, 안뒤일마을을 주도한 안동 권씨가가 일제 때 반상을 따져 성씨의 격을 나누어 끼리끼리 혼인을 맺어 주로 죽울동과 월곶동의 순흥 안씨들과 통혼한 폐쇄적 통혼보다는 개방적이나 은녕군과 전주 이씨들 역시

왕가의 혈통이 가지는 신분적 우월내지 타성과의 구별을 혼인에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부라위 전주 이씨의 통혼은 마을형성과 그 맥이 닿아있는데 처음 마을에 들어와 일군, 이들 이씨들이 통혼을 통해 며느리 성씨들이 마을에 정착하여 살게 되는 형태가 보인다. 이는 전형적인 동족촌인 안동 지역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가 모여사는 양동마을이 '처가입향(妻家入郷)'의 특징과 유사한 '외가입향(外家入郷)'의 특징으로 이러한 이유에서 정선 전씨, 그 외 나주 나씨, 오씨, 김씨 등이 세거 번성했다. 그리고 이들 성씨들은 부라위 이씨들과의 관계에서 차별 등, 관계의 어려움이 없이 생활 기반과 경제적 기반을 어렵지 않게 협력적으로 영위하는 특징을 가진다. 현재도 이러한 이씨의 개방성은 이들 친족 성씨들과 함께 친족모임인 '애향회'를 조직한 것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그밖에 이씨는 모갈과 부라위의 상여계인 의무계가 조직될 때 두무절이 효령대군과 이씨들이 양반이라 함께할 수 없다고 할 때도 처음부터 함께 참여할 정도로 유연하고 개방적인 전통이 있다.

온녕군과 전주 이씨 다음으로 번성한 전씨는 『전주이씨온녕군파과림종중과보』에 따르면 1870생인 문중 이덕상이 첫부인 한양 조씨를 여의고 1900년 노온사동에 살던 김해 김씨를 맞아들였는데 이때 7살 먹은 아들 전광선을 데려 온 것이 시초이다. 이와 같은 혼인풍습은 당시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고 등 여러 이유에서 아녀자들이 많이 죽게 되어 그 빈자리를 채우고 후손을 남기기 위해 흔하게 이루어진 혼인형태였다. 이 전광선은 슬하에 아들 3형제를 두어서 오늘과 같이 후손들이 번창할 수 있었다. 특히 전광선은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이덕상이 서울에서 기마병으로 나가있던 장자가 있었지만 전광선에게 가산을 물려주고 또한 자신의 양자로 입적하지 않고 본래 성인 전씨를 찾아주어 오늘처럼 전씨가 번성하는데 기반이 되었다. 현재는 그의 손자가 되는 전영복 씨 등 4가구가 세거중이다. 이들 정선 전씨의 장손은 전영환 씨이고 현재 부라위에 거주하지 않는다.

이밖에 1915년에서 20년 사이 통혼을 통해 나주 나씨 집안에 딸을 시집보내면서 나씨들이 2가구 정도가 들어와 세거하였다. 애향회 부회장을 맡은 나덕환 씨가 일가이다. 부라위에 거주하는 가구는 없다.

온녕군 가문과 통혼을 통해 형성된 전씨와 나씨는 모두가 친족범위에 있고 내외 친족의식이 강해 이들끼리의 친목도모를 위해 친족모임인 애향회를 조직하고 있다.

성씨	본관/파	입향조	입향시기/이유	가구	비고
이	전주/온녕군 무풍군	중길	1601년/낙향	12	예전 24호 세거
전	정선/판서공	광선	1900초/혼인	5	예전 4호 세거
나	나주/	용섭	1910년대/혼인	없음	예전 2호 세거

해방이전 부라위에 세거한 성씨

○산고사

산고사는 부라위 부녀자들이 주관하는 마을 신앙이다. 산고사가 시작된 것은 온녕군파 이씨들이 만든 마을이니 만큼 마을의 큰 행사는 무엇보다도 시제였다. 조상에 대한 제사인 시제를 남자들이 모시게 되니 토신에 대한 제례인 산고사가 자연스레 부녀자 몫이 되었다고 한다. 산고사를 지내는 것은 보통 온녕군파 시제일이 음력 10월에 먼저 정해져 치룬 후에 산고사를 지냈다. 현재 산고사는 과림교회(기독교)를 다니는 주민은 빠지고 비신자 10여 가구만이 지내고 있다. 따라서 외지인과 교인을 제외한 마을 부녀자가 지내고 한국전쟁 이후 잠시 사라졌다. 다시 시작되었다. 예전에는 상가(喪家)에 갔다 오거나 몸의 부정이 있는 주민을 제외한 마을 부녀자들만 참여하였으나 지금은 각 호의 내외가 모두 참여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빨바위 아래서 마을고사를 지냈고 터줏가리 모양의 당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마을의 전주 이씨가에서 빌려준 북쪽 임야로 터줏가리를 옮겨 제의를 계속하고 있다.

제의 날짜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의논하여 정하는데 2005년에는 음력 10월 초삼일 오전 12시쯤 지냈다. 대체로 초삼일을 넘기지 않는 것은 갑작스런 초상처럼 부정한 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이 마을제의로 가정교사를 대신하기도 한다. 제의 주관자는 주로 부녀자들 중 나이 많은 사람으로



산고사를 위한 터줏거리(새마닥)

정하는데 대체로 산에 가까이 있는 집에서 맡았다. 제물은 각 호 2만원 추렴, 또는 1말, 말가웃(한 말 반) 정도의 팔시루떡과 과일, 옥수(玉水, 제수를 준비하는 집에서 떠감), 돼지고기, 쇠고기적, 밤, 대추, 술 등을 준비한다. 예전에는 집에서 담근 농주를 제주로 썼으나 막걸리를 사서 지낸다. 제당 터줏거리 안에는 향아리를 두었고 그 안에 벼 또는 쌀을 넣어 매년 제의 때 바꾸었다. 쌀은 조금 견힐 경우 변하기 쉬워 벼를 넣을 때가 많다.

제의 과정은 남자들에게 올라오는 시간을 정해 주고 부녀자들이 제수를 진설한 후 남자들이 오면 먼저 절을 시키고 그 다음 여자들이 절을 하고 축원한다. 또 각자 자기 집의 축원을 하고 마지막으로 소지(燒紙)를 올린다.

마을	명칭	제일	장소	형식	참석자	제비	제물
과림동부라위	산고사	음력 10월 3일	빨바위(각암) 짚주저리 (터줏거리 형태의 당)	유교식	마을 부녀자	정액 추렴	소, 고, 돼지고기, 팔시루떡 등
물왕동능골	산고사	3년 1회 음력 10월 10일	군웅나무 (굴참, 느릅)	유교식	당주, 마을남성	추렴	소머리, 팔시루떡 등

○전주 이씨 온녕군과 과림종중

대대로 과림에서 세거한 온녕군과 전주 이씨 과림종중은 특별한 전통이 있는데 종중 대소사를 관장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종가의 종손이 중심이 된 계서적 형태가 아닌 종중 일원이 모두 평등한 가운데 종중의 대표자를 뽑아 대소사를 관장하게 하였다. 이는 다른 종중에서는 보기 힘든 민주적인 의사결정 형태로 유교를 숭상했던 집안이니 만큼 유학의 대동사상에 깊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90년대 초 사단법인인 을 세우기 전에는 종중에서 회원들이 회장을 선출하였다. 현재 과림종중은 2002년 족보편찬 때 회원 649명이 확인되었고 사단법인인 만큼 그 임원 구성은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 이사 25인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임원선출은 2년마다 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하는데 총회는 시체가 음력 10월에 있고 이틀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그 둘째 날이 총회가 된다. 보통 음력 10월 둘째 주 일요일이 총회가 된다.

과림종중의 주요사업은 종회의 족보편찬을 위한 수단을 적어 보내는 일인 수단인을 세워 종로 봉익동 대중중에서 족보정리를 위한 일이 큰일이다. 그리고 가문의 번영과 친족의 교우를 위해서 75세 이상 집안어른에게 연 10만원의 장수위연금을 드리고 후학을 위해 장학사업으로 학제와 관계없이 대학생 자녀에게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종중의 역사와 가문의 일원으로서 마음가짐 등 종중의 일원으로서 동질감과 정체성을 위해 훈육도 겸하고 있다.

구분	내용	비고
회장	이덕규	
부회장	이병일, 이해용, 이병선	
총무	이성규	
이사 및 감사	25인	
회원	649명	2002년 기준

사단법인 온녕군과 과림종중 종회 조직

○1945년 해방 이전 부라위

전주 이씨 온녕군과 과림종중 종회장 이덕규 씨에 따르면 일제시대

갖은 고난으로 우리나라가 피해를 볼 때, 이 곳 부라위 만큼은 별탈이 없었다. 당시 일제 순사가 파견된 파출소가 신천리에 있었는데 지금도 도로가 뚫리긴 했지만 길이 안 좋아서 마을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특히 서울 쪽에서 부라위로 오려면 큰 개울을 두 번이나 넘어와야 할 정도로 외졌는데 그야말로 오지였다. 이러한 이유로 일제 순사들로 인한 피해는 입지 않았다. 따라서 부라위에서는 징병 혹은 일본군 위안부 등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다만 이진규 씨에 따르면 징용이 이루어졌는데 이진규 씨의 증언에서 “보국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이는 일제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내선일체, 황국신민화 등을 명분으로 한국인을 전쟁으로 끌어내기 위해 취한 국민총력운동의 일환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민총력조선연맹(1940), 조선임전보국단(1941.10.22), 조선국민의용대(1945.7.8)를 결성하며 전시에 각종 수탈을 벌이던 일련의 상황이며 따라서 시흥에서도 경기도 근로보국단 결성에 발맞추어 1938년 8월 3일 근로보국단 발단식이 오후 1시 시흥군 회의실에서 거행되고 이어 시흥군내 300여 마을이 참여하는 근로보국단 연합단이 조직되었다.(동아일보 8월 5일 기사-『시흥시사』 5, 313쪽) 이진규 씨는 당시 16세(1944년)에 착출된 기억이 있으므로 당시 시흥군내 조직된 근로보국단 연합단이 어느 형태로든 존재하여 거기에 착출된 것으로 보인다.

징용 착출은 당시 집집마다 남정 1인이 착출 되었으며, 형편이 좋은 사람은 대신 사람을 사서 보내거나 또는 가장을 대신하여 아들이 나간 것으로 보인다.(김용호) 또한 구장 이구성이 이병권, 이진규 씨를 선발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리단위는 구장단의 협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착출된 인원은 관내 소래, 군자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을 군수품 제조로 막대한 양의 소금을 공출하던 일제가 이곳 소금창고에서 소래포구로 운반하는 일이었다. 이후 의정부와 김포비행장 건설 등에 착출되었다. 이렇듯 관내 및 일제가 필요로 하는 현장에 즉각 투입되어 노동력이 징발되는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강도와 노동환경이 열악하여 많은 사상자가 났고, 이진규 씨가 도망쳐 나왔다는 증언을 했는데 전시상황이나

무단이탈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탈한 사람은 다시 금 구장 등을 통해 착출되어 더 힘들고 먼 곳으로 보냈다.

○1945년 해방 후 부라위

이후 1945년 8·15 해방이 되고 1950년 6·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수도 서울이 인민군 손아귀에 떨어지고 전선은 낙동강까지 밀려 전세가 어려운 때, 인민군 연대가 양지산에 일시 고지를 파고 주둔하였다.(당시 인천주변 주둔 인민군은 서울위성 제18사단, 인천경비여단, 제31여단 1개 대대가 배치- 『시흥시사』 5, 348쪽) 이처럼 모갈과 부라위도 인민군에 점령되었다. 당시 인민군은 정치선동을 했는데 인민군이 남쪽을 점령하고 앞으로 김일성 정치라고 하며 김일성을 우상화하면서 중립 같은 큰 마을들을 다니면 유세를 하였다. 이러한 유세 현장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 마을사람 몇몇이 따라다니면 합세하였다.(김용호)

이후 유엔군은 맥아더 사령관의 지휘로 인천상륙작전을 벌여 서울을 탈환한 9·28 서울수복 즈음, 모갈, 부라위 점령 인민군은 인천쪽에서 오던 유엔군과 대치하여 첫날 전투기 한 대가 날아와 폭격(1950년 9월 4~15일까지 인천을 중심을 반경 50km를 미 공군 작전지역 ‘청색해안지역’을 설정- 『시흥시사』 5, 347쪽)을 하고 이후 유엔군이 대대적으로 들이닥쳐 고지를 차지했는데 이 전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때 인민군이 많이 죽었지, 유엔군도 많이 죽었어”라고 당시 13살이었던 이덕규 씨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금 모갈과 부라위가 한국군에 회복하면서 인민군 점령기간 동안 북한의 정치선동에 협조한 일부 마을사람들이 빨갱이로 몰려서 국군에 처벌되었다.

“그 사람들은 동네 사람이지만 한국군이 들어오니까 누구누구가 인민군이랑 선동하고 다녔다고 고자질 한 거야 그래서 죽지는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았고 몇 사람 있었지 매를 맞고 무척 고생했지”(김용호)

또한 한국전쟁이 한창인 당시 모갈과 부라위에도 한국전쟁에 참가 독려되면서 전쟁에 직접참전하는 징병으로 일반병과 제2국민병(제2국민역)이 동원되었다. 그리고 마을 장정들이 일종의 ‘징용’으로 불리며 한국군부역에도 동원되었다.

징병은 국민개병제의 원칙하에 소래면사무소에서 입대 연령을 추리고 상한 연령에 미치지 못해도 신체발달 조건이 양호하면 바로 입대를 시켰다. 이는 전시상황에서 많은 병력 손실과 함께 동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선발된 인원은 소래국민학교(현 소래초등학교) 운동장에 집결하여 군용트럭에 실려 인천으로 옮겨졌고 기차로 대구에 가서 짧게 군사훈련을 받고 전장에 투입되었다.(이진규) 그리고 현 제2국민역의 형태로 제2국민병도 동원되었다.(김용호) 당시 국민방위군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군부역은 이 당시 징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당시 일제시대를 막 끝나고 난 때라 일제시대 부역동원 형태인 징용이 당시 한국군부역자에 대한 인식과 맥을 같이 하여 그렇게 불린 것이다. 동원된 장정들은 한국군부역으로 지금의 민방위와 같았다. 따라서 동원된 장정들은 전투에 동원된 것이 아니라 한국군이 전투를 하면 이를 지원하는 임무로 주로 무기 따위의 전쟁물품과 식량들을 주둔지에 보급하는 임무를 하였다.

제보자

김용호(1935년생, 모갈거주)

이덕규(1938년생, 부라위태생, 전주 이씨 온령군파 과림종중 회장)

이성규(1964년생, 부라위태생, 전주 이씨 온령군파 과림종중 총무)

이진규(1929년생, 부라위거주)

이해용(1957년생, 부라위거주, 전주 이씨 온령군파 과림종중 부회장)

전영복(1955년생, 부라위거주, 보급자리주택 시흥과림지구 대책위원회 고문)

전영식(1958년생, 부라위거주, 애향회 총무)

정왕동의 자연마을

정왕동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정왕동은 시흥의 남서부에 해당하며 남으로는 군자만의 시화호와 접하고 동으로는 옛 군자면 거모동과 접한다. 서쪽은 서해가 있어 예로부터 어로활동이나 염전개발이 성행했던 곳이다. 시화공단의 개발 전에는 군자갯벌이 남서로 넓게 발달되어 오이도, 옥구도와 갯벌로 연결되어 있었다. 조수간만의 차가 커 군자갯벌 위로 바닷물이 차오르면 지금의 오이도역 근방까지 배가 들어 올 수 있어 배나루라는 지명이 남아 있기도 하다.

1920년대 군자염전의 개발 이후에는 옥구도와 정왕역(옛 군자역)으로 이어지는 방죽을 쌓고 방죽을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에 염전을 개발하였다.

이후 시화의 간척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군자염전과 군자갯벌을 매립하여 간척지가 늘어나게 되었다. 간척지는 시화공단과 정왕주거단지로 개발되어 현재의 지형이 완성되었고 정왕동은 본래 정왕리였던 정왕본동과 정왕 1,2,3,4동으로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군자염전의 위치(『시흥시사』, 2007)



정왕동의 옛지형과 현재 행정구역(위의 책)

정왕동의 유래

정왕동의 지명은 정왕산에서 유래 하였다. 정왕산은 예로부터 봉화가 있다고 하여 봉화산으로도 불리었는데 봉화가 소재한 지역이다 보니 봉화의 관리를 위해 중앙에서 관리(正)들을 파견하여 관리들이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자 정왕이라고 불리었다. 이후 정왕리로 지명이 굳혀지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정왕동으로 개칭되었다.

정왕동의 자연마을

정왕동은 본래 6개 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행정구역	자연마을명	현재지명
정왕 1리	사랭이마을	사랑마을
정왕 2리	함줄마을	함현
정왕 3리	봉우재마을, 배나루, (아래)평안촌	봉화
정왕 4리	(윗)평안촌(피양촌), 이민사(염부사)	정왕
정왕 5리	돌추리	옥구
정왕 6리	안말	오이도

정왕 3리의 경우 아래평안촌의 인구가 많아지자 배나루와 아래평안촌을 분구하여 정왕 7리로 개편하였으나 곧 시화지구 개발로 행정구역개편이 일어나 정왕동으로 통합되어 그 존속기간이 매우 짧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왕동의 자연마을 중 정왕 3리 봉우재 마을과 정왕 4리 평안촌에 대하여 수록하였다.



정왕동 3, 4리의 마을 위치

정왕동 봉우재 마을 (옛 시흥군 군자면 정왕 3리)

지리적 접근

시흥시 정왕역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마유로를 따라 약 600m를 진행하면 동쪽으로 봉우재로2와 만나게 된다 봉우재로를 따라 약 200m를 진행하면 봉화산(정왕산)의 남쪽 기슭으로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곳이 옛 봉우재 마을이다.



봉우재 마을 표지석

본래의 마을길은 봉우재로 포장되어 확장되어 있고 서쪽으로는 마유로, 동쪽으로는 죽율동 방향으로 뻗어있는 봉화로와 만난다. 봉우재로의 동쪽 끝에는 봉우재 마을임을 알리는 표지석이 서있고 봉우재 가든 식당이 위치해 있다.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봉우재 마을은 옛 시흥군의 군자면 정왕리에 속하며 그 중 정왕 3리로 구분되었다. 정왕리는 시흥의 최남서단에 해당하며 남으로는 군자에 속한 군자 갯벌, 동으로는 거모동과 맞닿아 있다. 그중에서도 정왕 3리는 정왕동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였으며, 봉우재 마을, 배나루 등을 포함한 행정구역이었다. 이것이 군자 염전 매립과 간척개발로 정왕리와 죽율리가 통합되어 정왕동으로 확장되고, 정왕본동, 정왕 1동, 정왕 2동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현재는 정왕본동이 되었다.

봉우재 마을의 북편은 봉화산(정왕산)이 위치해 있다. 봉우재 마을의 배후산인 봉화산(정왕산)은 본래는 해발고도 220m의 높은 산이었으나 현재는 해발고도 46m 정도로 낮아져 있다. 시화간척사업 당시 토취장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자연마을일 당시에는 봉화산(정왕산)의 남면에서 남동면까지 마을이 길게 자리 잡았으나 지금은 개발로 인해 자연마을은 수용되어 사라지고 공장지대로 재개발이 되었다.

마을의 남편으로는 넓은 논이 펼쳐져 있다. 이 논은 일제 강점기 전후에는 염전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지금도 논의 한가운데에 염전에서 사용하는 물을 담아두던 간수통 흔적이 남아 있다. 마을 동쪽으로는 봉화로 건너편으로 시흥변전소가 보인다.

봉우재 마을의 지명유래

봉우재마을의 이름은 배후산인 봉화산에서 유래하였다. 봉화산의 정상

에는 다섯 개의 돌 무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봉수대의 흔적(1988년 명지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 조사를 하였다.) 이라고 하였다. 봉화산은 정왕산이라고 불리어 이 지역의 이름인 정왕동의 유래가 되기도 했다. 봉수대가 있다 보니 서울에서 관리들이 들락날락거리려 관인들이 오르는 산이라고 정왕산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마을 이름인 봉우재는 봉화산 고개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본래는 ‘봉화재’라 불렸다. 현재도 봉우재 마을에는 봉현슈퍼가 있고 봉현부동산이라는 부동산도 있었는데 봉현이 봉우재를 한자로 옮긴 이름이다.

봉화산의 봉수대는 본래 오이도 정상의 오질이 봉수가 옮겨온 것으로 남쪽의 화성 해운산 봉수에 응하는 봉수이다. 『신동국여지승람』이 제작되었을 때는 정왕산 봉수가 언급되지 않고 영조 35년(1759년)에 편찬된 『여지도서』에는 오질이 봉수를 정왕산으로 옮긴 것으로 적혀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오는 무응고리 봉수를 정왕산 봉수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무응고리 봉수의 위치 묘사가 정왕산과 일치 하지 않아, 정왕산 봉수가 생긴 이후 오질이 봉수와 무응고리 봉수를 폐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는 시화공단 건립을 위한 토취작업으로 정왕상 봉수, 무응고리 봉수가 전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봉우재 마을의 구분

봉우재 마을은 크게 3지역으로 구분되었다. 마을 내부는 웃말(큰말), 높은물, 낮은물(아랫말)로 구분하였으나 일반적인 자연마을과 같이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았다. 마을에서 사용하는 우물이 두 군데 있었는데 웃마을에 가까이에 있는 우물을 두고 높은 우물이라고 부르며 그 주변은 높은 물이라고 칭했다. 봉현정미소 서쪽은 ‘불당촌’이라 하였다.(『시흥시 지명 유래』, 2006)

마을에 이어진 길은 크게 두군데로 구분되었다. 동쪽으로 군자면을 향



봉우재 마을의 대략적인 구분

하는 길을 앞논두렁길이라고 하였다. 군자면 거모동에 위치한 도일시장이나 도일 시장에서 화정, 안양으로 이동하려면 이 앞논두렁길로 나서야 했다. 봉우재 마을이 시흥의 최서단에 있다 보니 동네 처녀들의 혼례는 주로 마을의 동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앞논두렁길에서 거모동으로 이어지는 언덕길을 통해 혼례가마가 오가고는 했다. 시집간 딸이 방문한다고 하면 친정어미가 봉우재 마을에서 그 언덕길만 바라보고 있기도 했다.

본래는 봉우재들 사이로 난 굽이 길이었으나 새마을운동사업으로 마을에 철근과 시멘트가 지원되자 마을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길을 넓히고 포장을 한 후 버스가 들어오기도 하였다.

서쪽으로 난 길은 뒷논두렁길이나 뒷길이라고 불렸다. 옛 군자역(현 정왕역)으로 가서 인천으로 기차를 타려면 뒷논두렁길을 따라 배나루고개를 넘어 남쪽으로 내려가야 했다. 또 반찬거리가 없으면 마을 아낙들이 광주리를 메고 배나루고개를 넘어 배나루로 향했다. 갯벌에서 게, 조개 등을 캐서 돌아와서는 저녁반찬으로 만들어 먹기도 했다.

봉우재 마을의 생업

봉우재 마을은 군자염전이 성행할 당시에는 군자염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농사를 지었다. 봉우재들이라고 불리는 남쪽들이 워낙 넓게 자리잡고 있던 터라 논농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 후 특산작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새마을 사업 이후 농업교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복숭아, 포도 등을 시도하는 농가가 생겼으나 많지는 않았다.

70년대 젓소사육이 권장될 때 정왕리에서 처음 젓소를 사육한 곳이 봉우재 마을이다. 당시 원숙회가 젓소 30두를 사들여 봉우재 기슭에 축사를 짓고 젓소를 사육하기도 했다.

이런 다양한 생업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봉우재 마을이 사라지기 전까지도 주 생업은 벼농사였고 아랫마을과 높은물 사이에 봉화정미소가 있어 그곳에서 쌀을 정미하였다.

봉우재 마을의 변화

봉우재 마을은 1980년 초의 시화공단조성계획의 토지구획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 이후 봉화산이 토취지역으로 지정되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당시 이주 지원금으로 한 세대 당 670만원 정도가 지급되었다. 봉우재 주민들은 고향을 지키기 위해 농성을 하기도 했으나 정부의 도시계획을 막을 수가 없었다.

결국 봉화산이 사라지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고, 봉우재 마을 출신으로 안양시청에서 근무하던 김명대는 마을의 모습을 남기기 위해 시청의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1985년, 1986년 2차례에 걸쳐 마을을 촬영하였다. 또 1985년에는 봉우재 마을의 마지막을 기념하기 위해 봉우재 마을 마을잔치를 개최하였다. 이후 1993년 봉화산에서 토취작업을 시작하고 본래 자연마을인 봉우재 마을은 주민들이 떠나가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현재는 도시계획에 의거해 정방형의 토지구획이 시행되었다. 본래의 계획과 달리 주거구역이 아닌 공업지역으로 개발되어 공장들이 입주하였다.

정왕동 평안촌(피양촌) (옛 시흥군 군자면 정왕 4리)

지리적 접근

정왕동 평안촌은 옛 군자역 일대에 형성되었던 마을을 이야기 한다.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정왕IC로 진출하면 시흥시 서해안을 남북으로 가로 지르는 서해안로와 만나게 되는데 정왕교차로에서 남쪽 방향으로 3km 정도 진행하면 서해고교 삼거리에서 동쪽으로 좌회전하여 정왕산길로 들어가게 된다. 정왕산길의 동쪽으로 2km 정도 진행하면 우측으로 시흥 소방서가 있고 마유로와 만나는 사거리가 나오는데 사거리에서 북쪽으로 300m 쯤 떨어진곳에 정왕역이 있다. 정왕역은 옛 군자역 자리로 그 북쪽 일대와 남쪽 일부가 평안촌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평안촌은 정왕동 내에서 오이도의 안말과 옥구도의 돌추리 마을을 제외한 육지의 자연마을 중에는 가장 남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평안촌의 남쪽으로는 군자 갯벌과 맞닿아 있으며 염전이 개발된 이 후에는 군자염전으로 들어가는 방죽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또 소금수송을 위한 수인선 협궤열차가 부설되어 있었고 군자역이 위치해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정왕리에서는 가장 교통이 발달한 곳이기도 했다. 덕분에 군서초등학교가 설치되고 주변의 학생들이 평안촌으로 등교를 하였다.

평안촌(피양촌)의 지명유래

피양촌의 역사는 우리나라 천일염의 역사와 같이 한다. 우리나라의 전통 염업방식은 자염으로서 소금가마를 이용해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정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1907년 천일염의 제조 방식이 국내에 도입이 되면서 염업은 자염에서 천일염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소금생산지는 평안도였다. 평안도 서해안은 갯벌이 넓고 건기와 우기가 확실하여 소금생산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지녔다. 천일염이 도입된 이후에도 평안도에는 전통적인 소금기술자들이 많았는데 일제에 의해 경기도 일대에 염전개발이 시작되면서 평안도의 소금기술자들이 대거 이주하게 되었다. 그렇게 개발된 곳이 소래염전과 군자염전으로 현재의 정왕역 인근에 평안도 소금기술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게 되었다. 군자염전은 1922년 평안도 용강지역의 염전 기술자들이 이주하면서 개발이 시작되었다. 이후 평안도사람들의 마을이라고 하여 평안촌(平安村)이라고 불리었으나 한국전쟁이 후 월남한 이북출신 실향민들이 동향사람들이 거

주하는 평안촌으로 이주하면서 규모가 확대 되었다. 평안촌이 확대되면서 웃평안촌과 아래평안촌으로 구분되고 평안촌, 혹은 피향촌으로 불리게 되었다. ‘피향’은 ‘고향을 피해 왔다.’라는 말도 있으며, 동음으로 ‘피양촌’이라 부르기도 한다.(『시흥시 지명유래』, 2006)



정왕 4리의 대략적인 마을 위치

평안촌의 구분

웃평안촌은 평안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으로 염전개발로 이민자들이 많아지자 점차 마을이 해안가를 따라 확장되다가 정왕 3리의 배나루와 아래평안촌까지 거주지가 늘어났다. 웃평안촌 외에도 북동쪽의 오동나무골에도 이주민들이 자리를 잡아 오동나무골과 평안촌의 명칭이 혼용되기도 하였다. 현재 정왕본동을 가로지르는 길이 오동나무길로 불리고 정왕역 일대의 정왕 2지구에 오동나무마을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정작 평안촌 출신 주민들은 평안마을이라는 명칭이 붙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이민사는 본래 염전 인부들을 위한 숙소로 시작된 쪽방촌이었으나 염전 기술자, 염전 노동자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제대로 된 거주지를 마련하여 평안촌이 형성되자 일용직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숙소로 활용되었다. 이민사 또한 평안촌에 속한 곳이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이주한 실항민들이 거주하기도 하였으며 나중에는 거주지가 아닌 상점이나 음식점으로 활용되었다. 그 형태도 계속 변화하여 한국전쟁 이후의 건물은 ‘하꼬방’ 이라고 불리는 방 하나에 부엌 하나가 딸린 형태로 지어졌다.

군서초등학교는 현재의 시흥교육청 자리로 당시의 정왕동에는 군서초등학교 하나만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인근 지역의 교육에 중요한 거점이기도 하였다. 군서초등학교는 현재 시흥소방소 건너편으로 이전하였다.

굴뚝촌은 공장말이라고도 불이었다. 그 주변으로 제염공장이 위치해 있었고 대한영업 사무실이

염전으로 통하는 방죽길은 군자염전을 남북으로 가르는 중앙 길이었다. 이 길을 통해 옥구도, 오이도로 통하는 버스가 운행하였으며 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이 군자역으로 운반되는 통로이기도 하였다.

평안촌의 생업

평안촌의 주민들은 염전개발과 함께 생업이 변화하였다. 염전 노동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 덕분에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소득수준이 매우 높았다. 한국전쟁 후에도 소금을 전매청에서 다루었는데 소금을 한말 이고 나가면 쌀 두말과 바꿀 수 있었다.

염전 노동자들 외에는 수인선 부설과 염전 확장을 위한 일용직 노동자들도 많이 거주하였는데 일용직 노동자들은 ‘평뜨기’라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평뜨기란 독이나 선로부설시 일당이 아니라 하루에 작업한 평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해방 후에도 염전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군자

염전은 총 603ha로 소래염전과 합하면 남한 소금생산량의 58%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이후 소금 전매제도가 폐지되고 1979년 이온식기계염생산이 실용화 되자 소금공급이 크게 늘어나 소금생산과잉이 심해지고 군자염전 또한 시화간척사업에 의해 폐쇄되었다.

평안촌의 인구구성도 변화하여 이북출신의 염전노동자 외에 시화공단에서 일하는 공장 노동자들이 증가하여 생업의 양상 또한 변화하였다.

평안촌의 변화

평안촌은 1970년대 까지 염전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는 곳이었으나 시화지구 개발과 간척사업으로 인해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정왕 3리와 더불어 정왕 4리도 토지구획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오동나무골은 시화간척을 위한 토취장으로 선정되어 사라지고 말았다.

군자염전의 소금을 운반하던 수인선 협궤열차도 염전의 폐쇄와 지하철 4호선의 부설로 인해 1995년에 폐선되고 군자역 또한 지금의 정왕역으로 대체되었다.

군자염전은 매립되어 정왕신도시와 시화공단으로 탈바꿈하였다. 평안촌이 있던 지역은 구획별로 재개발되어 지금은 정왕 2지구의 원룸촌으로 변화하였으며, 정왕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하였다.



옛 지도의 정왕동과 현재의 정왕동

제보자

김명대(1934년생, 봉우재태생)

원영희(1936년생, 봉우재태생)

이종철(1947년생, 정왕동거주)

최순연(정왕본동 4통 통장)

2014 어르신 인문학 소품
사람으로 보는 우리마을

기획·총괄

정원철 (시흥문화원장)
이병권 (시흥문화원 사무국장)
이순근 (시흥문화원 팀장)

편집·기술

이순근 (시흥문화원 팀장 / 보고서 작성 총괄, 정왕동 마을)
이병권 (시흥문화원 사무국장 / 이진규 생애사 및 부라위 마을)
최경애 (시흥문화원 팀장 / 인터뷰 녹취록 작성)
이민이 (한양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원 / 인터뷰 녹취록 작성)
곽정민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 어르신강연 보조, 편집보조)
홍익한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 어르신강연 보조)

발행일 2014년 11월 14일

※비매품

발행처 시흥문화원

주 소 경기도 시흥시 연성로13번길 3 조은프라자 4층
전화 031-317-0821 팩스 031-317-0828

2014 어르신 인문학소품
사람으로 보는 우리 마을

 시흥문화원

발행인 정 원 철 / 발행일 2014. 11. 14. ※ 비매품

경기도 시흥시 연성로 13번길 3 조은프라자 4층

전화 031_317_0827 / 팩스 031_317_0828 / 홈페이지 www.shculture.or.kr